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학

제 65 권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History Vol. 65 No.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

주체 108(201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제65권 제2호
력사학 (루계 제549호)

차 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은 불멸의 령도업적

박사 부교수 **김 성 옥**

1. 서 론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때문에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오늘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과 선전실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이 확립되였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진군길에서 과학기술을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여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해설론증하려고 한다.

2. 본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강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발전에서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의 애국심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비약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중시를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지침을 밝혀주신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며 과학기술의 높이에 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높이와 속도가 규제되게 된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며 위대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강국건설과정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현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을 과학화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에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남들이 수십년동안에 이룩한 발전단계를 뛰여넘어 앞서나갈수 있게 하는 추동력이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며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생산과 건설을 과학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는것을 과학기술발전의 목표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나라의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첨단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이라고 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의 기수, 전초병들이며 첨단돌파전에서의 성과여부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다.

과학기술발전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세계적인것을 창조해나가는 첨단돌파전은 바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기본추동력으로 하는 사상전이며 그들의 창조력을 발동시켜나가는 두뇌전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과 함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아무리 정신력이 높아도 창조력이 그에 따라서지 못하면 과학기술발전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강한 정신력에 높은 창조력이 안받침될 때에만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자면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의 명맥을 틀어쥐는가 틀어쥐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발전수준이 좌우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겁을 먹고 패배주의에 빠질것이 아니라 첨단과학기술분야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자기 힘으로 개발하려는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남이 걸어온 단계들을 뛰여넘으며 공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네르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대상들에 힘을 넣어 세계패권을 쥐며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우주과학부문에서 첨단을 돌파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비상히 높인것처럼 전반적과학기술발전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자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다.

우주과학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표대로 하여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고 모든 부문을 과학화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자면 기초과학연구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발전의 주추이다. 기초과학이 든든해야 나라의 과학기술이 공고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기초를 다져나가면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을 내놓아야 한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자면 과학기술의 종합적발전추세와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계과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과학연구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방법들이 적용되는데 따라 응용과학, 경계과학들이 새롭게 개척되고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필요한 분야들을 우리 식으로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오늘날 과학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뭉개버리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과학기술성과로 옹호하고 빛내여나가자면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고 과학기술로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방안과 실행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과학기술발전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대렬을 꾸리고 그들의 연구개발능력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 전체 인민들을 과학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들의 역할에 의거하여야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목표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고 그 위력도 더욱 높이 떨칠수 있게 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어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작전과 지도관리를 바로하고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는것도 중요한 방도이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약의 지름길을 명시하심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첨단수준에 끌어올리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권위와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높이 떨치도록 하신것이다.

우주과학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며 위성과 운반로케트의 보유는 사회주의강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더우기 우리의 우주정복의 길은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을 저지시키려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정치군사적압력과 력사상 최악의 경제적제재가 감행된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101(2012)년 12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력전,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조선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통쾌하게 쏴올려 나라의 우주정복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우주정복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 전에 혁명의 길, 자주, 자립의 길이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령옹위전, 당정책사수전이며 우리의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세계우주개발발전추세에 맞게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최단기간에 우주정복실현의 목표를 반드시 수행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과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운반로케트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인류가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 때로부터 수십년이 되고 자기의 궤도를 따라 돌고있는 위성의 수도 적지 않지만 위성을 자기의 운반로케트로, 자기의 발사대로 궤도에 진입시키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주정복은 누구나 쉽게 이룰수 없는 매우 거창하고도 어려운 사업이다.

주체102(2013)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오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쏴올리기 위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비롯한 관련시설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우주개발법과 국가우주개발국이 나오고 그 관련시설들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국가의 모든 우주활동을 통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세계적수준에 올라선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여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와 서해위성발사장을 거듭 찾으시여 위성발사준비정형을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주체105(2016)년 2월 7일에는 위성의 발사과정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우리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극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우주과학분야에서 또다시 첨단을 돌파하고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올려세웠으며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나라의 자주적권리와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한겨울의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사소한 편차도 없이 지구관측위성을 자기의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우리의 위성운반기술과 로케트조종기술이 매우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가까운 앞날에 정지위성을 우주에 쏴올리는것을 우주개발의 당면목표로 내세우시고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개발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단기간에 여러차례의 위성발사를 통하여 시험위성으로부터 지구관측위성에로 단번 도약했을뿐아니라 자기의 운반로케트와 발동기로 위성을 발사할수 있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주체적인 과학기술력량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 발사와 발사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을 100% 주체화한 위성들이 날아오르게 됨으로써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올라설수 있은것은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고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나가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주체조선의 혁명적지식인들이며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갈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는 우리 당의 과학전사들이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과 정책적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집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과학기술전선의 주인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떤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자들이 조선로동당기발아래서만 과학연구사업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전반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11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부문들에 힘을 넣으며 특히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대상에 힘을 집중하여 세계적수준에 올라서도록 하며 그에 토대하여 전반적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6월 어느 한 연구원을 찾으시고 농산과 축산, 과수, 원예 및 원림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효능이 높고 인체와 토양, 생태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21세기 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은 중요하게 생물기술연구 및 응용분야의 발전수준에 따라 평가된다고 하시면서 이곳 연구원에서 이룩한 성과는 우리 나라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에 당당히 올라섰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우리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생물농약연구개발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힘으로 강국을 건설하려는 당의 전략적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것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관심하시던 천연흑연이 명실공히 조선의 귀중한 재부로 빛을 뿌리도록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주체적인 흑연공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청년들이 세계적안목과 대국적자존심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려 첨단돌파의 선구자, 패권자가 되고 쟁쟁한 재사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청년들이 불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사색하고 탐구하여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주름잡으며 첨단과학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켜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나라의 자랑인 련하기계개발자들이나 위성연구집단에서 젊은 연구사들이 핵심적역할을 한것만 보아도 주체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의 실력이 간단치 않다는것을 알수 있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면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수한 과학기술력량이 자라나고 과학연구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으며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핵심기초기술과 우주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지식인의 슬기와 재능을 과시할수 있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남의것을 가지고 세계적첨단을 돌파하는것은 우리 식의 첨단돌파전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첨단을 돌파하자는 목적은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첨단을 돌파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창조물들을 마련해나가도록 하시였다.

나라를 진정으로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마련해주려면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 우리의 멋을 내는 훌륭한것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8월 어느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여러가지 첨단기계제품을 개발하는것과 함께 경비행기들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이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긴장한 전투를 벌려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내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경비행기들의 구조와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몸소 경비행기에 오르시여 리착륙시험비행도 해보시며 잘 만들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후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사실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자체의 힘으로 새로 개발생산한다는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이 공장의 로동계급은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고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새형의 80hp뜨락또르와 5t급화물자동차를

비롯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견본모방의 길이 아니라 개발창조의 초행길을 헤쳐가며 우리 식,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첨단의 세계를 점령해가는 불굴의 정신력과 비상한 두뇌가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실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서만 자기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주체화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리시고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 제힘으로 일떠설 각오와 배심이 없이 다른 나라를 쳐다보면서 수입에 의존하여서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과 생활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입병을 없애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9월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시고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모두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무연탄을 가스화하여 새 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 공장은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주체104(2015)년 10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수입병을 근원적으로 없애버리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일군들속에서 수입병을 없애고 주체화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나날 과학자, 기술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주체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11월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의 창조적지혜와 애국적열정에 의하여 첨단수준에서 현대화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고 현대화의 중핵은 설비의 주체화에 의한 현대화라고 가르쳐주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에네르기, 동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에네르기와 동력이 없이는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문화생활거점들이 꾸려져있다고 하여도 에네르기와 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에네르기문제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연에네르기에 대한 연구를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국가과학원에 연구소를 새로 내오고 자연에네르기에 대한 연구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은 다름아닌 과학기술이다.

현시기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우리 식의 발전된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6월과 주체103(2014)년 5월 어느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정밀화, 고속도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공장들을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 통합생산체계가 실현된 수자화된 공장으로 전변시켜 공업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으며 어느 한 공작기계공장에 꾸려진 무인화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무인화를 실현하는것을 현대화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주체104(2015)년 12월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어느 한 기계종합공장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힘있게 추동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전환하며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하는데 중심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유연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조직과 지휘, 경영활동을 정보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며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 통합생산체계가 실현된 수자화된 공장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한다는것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하나로 결합시킨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생산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과학기술로 생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주체107(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열쇠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다그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여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창조한 귀중한 연구성과들이 과학전시관의 전시물로만 남아있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과학연구성과들과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이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으로 되도록 행정적, 경제적, 법률적대책들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과학기술을 위력한 추동력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과학기술은 어느 한두사람의 노력이나 개별적집단의 힘만으로는 빨리 발전시킬수 없으며 여기에는 국가적노력과 사회적관심이 집중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과학기술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말고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누구나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기풍이 차넘칠 때 나라의 과학기술은 빨리 발전하고 강국건설위업은 힘있게 다그쳐지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속에서 과학기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로잡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곧 당과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과 태도로 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고 모든 일군들이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여러 기계공장을 현지지

도하시면서 생산장성의 비결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데 있으며 과학기술을 떠나서 새 제품개발과 생산장성, 질제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견지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비결도, 생산장성의 열쇠도 과학기술에서 찾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은 증산의 돌파구가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해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국가과학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조건을 잘 보장해주기 위하여 부문별연구소들을 새로 꾸려주도록 하시고 설계로부터 건설력량과 설비와 자재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영원히 안겨살 사회주의조국과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조국건설에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베풀어주신 은정은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그리고 연풍호에 훌륭히 일떠선 과학자휴양소에 뜨겁게 어려있다.

그리하여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어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적극 내세워주는 전사회적인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민학습의 대전당, 나라의 과학기술보급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그를 거점으로 정연한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주체건축예술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을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없이 건설할데 대

하여 강조하시고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을 비롯하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풀어주시였으며 여러차례 현지에 나오시여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2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으시고 과학기술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배움의 전당, 선진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과학기술전당에 와서 최신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배워가도록 과학기술정보를 끊임없이 류통시키는 보급거점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전당은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이 완벽하게 반영된 국보적인 건축물로, 과학기술의 높은 목표를 향해 비약해가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며 훌륭히 완공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이 집대성된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정보봉사능력과 교육조건을 훌륭히 갖춘 대규모의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단위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고 그를 적극 리용하여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새 기술보급기지, 교육기지, 기술교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3월과 5월 여러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장성의 비결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데 있으며 과학기술을 떠나서 새 제품개발과 생산장성, 질제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견지하도록 하시고 공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모두가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설비를 다루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지 못하면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과학기술보급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공장, 기업소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는것은 당정책적요구이라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청년들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앞장서며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의 능수가 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 연료와 설비를 주체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이 꾸려지게 되였으며 온 나라에 현대과학기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

원격교육대학들의 규모가 확대발전되여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여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3. 결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첨단수준에 올려세우고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강국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첨단돌파, 과학기술중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모란봉전자악단을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불멸의 업적

교수 박사 **김 경 철**

1. 서 론

대중을 혁신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음악,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예술을 창조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음악을 위한 음악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음악은 어떤 쟝르의 음악이든 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결심하고 새로 조직한 모란봉전자악단에서는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서적요구에 맞는 음악을 창조하고 공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음악예술이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모란봉전자악단을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우시여 우리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선전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업적에 대하여 해설론증하려고 한다.

2. 본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란봉악단은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가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시대,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성스러운 투쟁의 시대, 거창한 변혁의 시대이다.

우리 혁명의 년대기우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했던 장엄한 투쟁의 시대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와 같이 인민들의 심장을 당에 대한 뜨거운 충정으로 불타게 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해주는 산음악, 전투적인 예술을 창조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현실발전의 요구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으신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한 모란봉악단(당시)을 조직해주시고 악단명칭도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던 모란봉이라는 이름을 달도록 하시였으며 모란봉전자악단이 당의 의도와 당정책의 가장 충실한 대변자, 적극적인 선전자, 관철자가 되여 사회

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모란봉전자악단은 대중을 혁신과 위훈에로 추동하는 공연,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을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며 실현해나가게 되였다.

모란봉전자악단을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주체혁명의 새시대 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는 관록있고 전도유망한 창작가, 예술인들로 위력한 예술집단을 꾸려주신것이다.

시대의 본보기악단은 곧 시대의 문학예술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악단이다.

전반적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 본보기악단이 되자면 악단을 인민의 심장을 달구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칠뿐아니라 사회적으로 약동하는 생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악단으로 꾸려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대렬을 관록있고 전도유망한 음악재사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의 문예정책집행의 척후대, 본보기가 되여야 할 모란봉전자악단에 있어서 창작가, 예술인대렬을 잘 꾸리는것은 악단의 강화발전과 관련되는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력량을 관록있는 창작가들로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창작활동과정은 작품의 종자를 선정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가공하여 형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로부터 창작은 경험있고 재능있으며 개성이 뚜렷한 창작가들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력량을 지난 기간 창작활동실천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고 그 재능과 개성이 뚜렷한 관록있는 창작가들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만수대예술단과 왕재산경음악단, 보천보전자악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에서 명성을 떨친 음악재사,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사랑해오는 작가, 작곡가, 예술인들로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력량이 꾸려지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지난 기간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앞장에서 떠받드는 믿음직한 창작의 대들보들로 성장한 창작가들이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력량을 이루게 됨으로써 모란봉전자악단은 고고성을 울린 첫날부터 기성관례를 깨뜨리고 음악예술의 모든 면에서 주체혁명의 새시대 본보기악단으로서 명성을 높이 떨치게 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형식과 구성에 맞게 전도유망한 수재급의 젊은 배우들로 예술인력량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반영한 음악예술은 사람들에게 생기와 약동을 주고 기백과 활력을 주는 예술로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대의 본보기악단을 꾸리자면 악단의 형식과 구성자체에서부터 기성의 틀을 깨뜨리고 새것을 창조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무어주시였던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하면서도 그 형식과 구성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독창적인 악단으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1980년대 음악이 상품화되고 흥행업자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돈때문에 기껏 5～6명정도의 소규모 전자악단밖에 만들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 전자음악의 위력을 최대로 떨칠수 있게 독특한 편성의 전자악단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14명이상이나 되는 세계에 없는 큰 규모의 전자악단이 새롭게 태여나게 되였다. 악단의 형식과 규모, 사명에 맞게 전도유망한 남자배우들로 전자악단이 구성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이 새로운 안목으로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진취적이고 약동하는 사상감정과 투쟁기풍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미학관, 음악예술사상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악단을 새로 내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악단을 전기바이올린, 전기첼로 등 새로운 전기현악기들을 받아들인 경음악단으로 만들며 그 규모에서는 보천보전자악단보다 작게 하도록 하시고 성악력량을 젊고 약동하는 시대의 모습, 눈부신 조국의 미래를 반영하여 생신하고 전도양양한 수재급의 녀성배우들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독특한 형식의 경음악단이 주체101(2012)년 3월에 조직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정력적인 지도로 모란봉전자악단을 위력한 예술집단으로 강화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을 조직해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른새벽에도, 저녁에도 시간을 내시여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며 공연을 완성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7월 6일 새로 조직된 모란봉전자악단의 시범공연을 보아주시였다.

불과 10여명의 연주가들이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대관현악단이 내는 장중하고 풍부하면서도 장쾌한 선률을 멋들어지게 울렸으며 젊은 가수들은 노래를 정서적이고 흥취나게 불러 무대를 시종 격정의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째인 안삼블과 화려한 무대조명의 효과로 하여 청각과 시각적으로 변화무쌍한 공연은 음악형상창조의 모든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완전히 조화시키였다.

공연무대에 우리 나라 음악과 함께 세계명곡들도 특색있게 형상하여 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악단은 짧은 기간에 멋쟁이예술집단으로 되였다고, 모란봉악단은 우리 식의 독특한 새로운 경음악단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후 모란봉전자악단이 전승절과 청년절경축공연, 조선로동당창건 67돐경축공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축하하는 공연, 주체102(2013)년 신년경축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104(2015)년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공훈국가합창단과의 합동공연을 통하여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을 노래하고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갈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

전자악단의 합동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모란봉전자악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 형상하여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예술인으로 성장한 창작가들과 배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하여 명예칭호를 안겨주시고 훈장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모란봉전자악단은 관록있고 전도유망한 음악재사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창작활동을 통하여 세련되고 단련된 예술집단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모란봉전자악단을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창조기풍으로 새시대의 본보기예술단체가 되게 하신것이다.

혁명적인 창조기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공연하여 강국건설을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예술집단, 당의 목소리로 인간개조와 사회발전을 선도해나가는 예술집단만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해나가는 시대의 본보기악단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확립하자면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당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되고 악단의 모든 기악편성과 무대조명, 배우들의 분장과 소도구 등 형상요소들의 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기성의 낡은 틀을 깨고 세계적수준을 돌파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은 독자적인 자기 얼굴을 가진 국가예술단체이면서 당에서 직접 지도하는 악단인것만큼 예술활동을 어디까지나 당에서 세워준 기준대로 하여야 하며 자연주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철저히 우리 식으로, 당에서 요구하는대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모란봉전자악단 배우들은 꾸준히 훈련하고 노력하여 기량이 높고 자기의 얼굴과 개성을 가진 명연주가, 명가수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란봉전자악단이 진취적이고 참신한 음악으로 젊음이 약동하는 새시대를 노래하는 예술집단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이 준 과업을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창조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당이 준 예술창작과제를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집행하는 혁명적창조기풍이 선 예술단체만이 본보기예술단체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을 찾으실 때마다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당이 준 음악창작과제를 무조건 접수하고 제기일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이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은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의 전과정을 혁명군대식으로 진행해나가면서 군대와 같은 정연한 지휘체계, 조직체계, 행동질서가 확립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신 조치는 모란봉전자악단을 시대의 본보기예술집단으로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였다.

견장에 별이 빛나는 군복을 받아안은 그 순간부터 모란봉전자악단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사명과 임무, 지위와 역할을 새로운 관점과 립장에서 자각하게 되였으며 악단의 면모와 기풍도 완전히 새로와졌다.

모란봉전자악단에서는 인민군대에서 타번지는 훈련열풍이 창작창조활동에 그대로 구현되게 되였고 이것은 그대로 창작가, 예술인들의 당성단련과정으로 되였다.

주체101(2012)년 8월 모란봉전자악단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짜주신 화선공연작전안을 받아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자면 48시간동안에 23개 종목의 작품을 새로 창조형상하여야 하였다.

악단이 조직된지 불과 몇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화선용사들처럼 즉시에 창조전투에 진입하였다.

편곡과 형상 등 배우들의 긴장한 전투가 진행되였다.

그들은 렬차행군을 하면서 이틀동안에 공연준비를 완전히 끝냈으며 현지에 도착하여 화선공연을 최상의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모란봉전자악단은 태여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악단이지만 시대의 제일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는 예술단체, 군인집단에서만 보고 느낄수 있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력을 지닌 예술집단으로 이름떨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모란봉전자악단이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기성의 형식과 낡은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기풍을 세우는것은 시대의 본보기악단으로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이 자기의 얼굴과 특성을 살려나가자면 편곡을 잘하고 공연종목을 바로 정하며 배우들이 형상을 특색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의 취미와 정서에 맞게 서정적인것도 하고 리듬이 강한것도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작품창작과 형상과정에서 종래의 관례를 대담하게 깨뜨려버리고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이 새것을 보지 못하고 모대길 때에는 편곡의 새 지식을 가르쳐주시며 그들의 경직을 풀어주시고 창작의 나래를 달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에게 우리 식의 새로운 리듬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화성조직도 도식적인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특색있게 하며 편곡에서 기본선률과 밀착된 제2의 선률을 완전히 새롭게 뽑아내는것을 비롯한 변화무쌍하고 파격적인 창조의 세계를 펼쳐주기도 하시고 작품들의 리듬 하나, 화성기호 하나에도 품을 들여 완성해주시였으며 누구도 눈길을 돌리지 않은 기성작품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시 편곡하여 새것으로 부활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활무대도 마련해주시였다.

이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승리자들》과 같은 작품들이 독특한 편곡양상을 가진 작품으로 훌륭히 완성되여 시대적 명작이 태여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어린 신인가수들이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량훈련을 힘있게 내밀수 있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인 가수들의 노래형상기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받아들이되 그대로 본딸것이 아니라 자기의것으로 잘 소화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악단가수들이 형상할 때에는 철저하게 자기 식의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며 그것도 원래의것보다 더 멋들어지게 해야 한다고 그 방도까지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수들이 자기가 부를 노래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형상에서 자기의 얼굴과 특색을 살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음정과 발음, 호흡계기와 절정대목선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한 가수의 창조형상을 위하여 몸소 성악교수안까지 짜주시고 범창까지 해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이 예술창조에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음악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는 길도, 세계적인 악단이 되는 근본비결도 바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데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초기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는 악단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녀성악단들의 우에 올려세우겠다는 포부를 앞세우던 나머지 다른 나라의 예술단을 모방하는데로 나가는 편향이 나타났었다.

이것을 포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른 나라의 유명한 악단의 음악을 채보하여 형상하는것도 좋지만 민족음악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를 가지고 그에 못지 않게 만드는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선률을 위주로 하는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매력을 살려야 한다고 음악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뿐아니라 모란봉전자악단의 배우들이 비행사들앞에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비행복을 입고 그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량강도인민들앞에서는 항일의 군복을 입고 《빛나라 정일봉》, 《대홍단 삼천리》와 같은 그들의 생활과 가까운 종목들을 펼치도록 세심히 관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벌리는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야말로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예술창작창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일군들과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서로 돕고 이끌어주면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일으켜나갔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란봉전자악단은 당이 준 과업이라면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하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예술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모란봉전자악단을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투적인 공연활동으로 강국건설을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무기가 되게 하신것이다.

예술은 시대정신과 사회발전추세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약동하는 기상을 안겨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악단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무기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약동하는 새시대에 맞게 음악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며 이끌어나가고있다고, 대중을 혁신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음악,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예술을 창조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7월 모란봉전자악단의 시범공연을 보아주시고 이 공연은 한개 예술단체의 형식과 방법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따라배우고 참고하여야 할 방향을 주는 공연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모란봉전자악단공연을 청년들에게 많이 보여주어 그들을 혁신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이 모란봉전자악단을 새로 내온것은 특히 우리 청년들의 깨끗한 모습을 지켜주고 그들의 끓는 피를 더 끓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제국주의사상문화는 침략의 주역이 되고있으며 그 기본공격대상은 바로 청년들이다.

퇴폐적인 사상문화의 독소가 밀려드는 속에서 문학예술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면 당에서 품들여 키운 청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슴아픈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청년들의 밝은 웃음과 깨끗한 모습을 지켜주자면 부르죠아문화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까지도 스스로 자기 머리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용기와 열정, 포부를 가다듬게 하는 멋진 음악형상을 창조하여야 하며 자본주의것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예술의 바다를 펼쳐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과 감정이 통하고 호흡이 맞는 모란봉악단공연을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청년들에게 모란봉전자악단공연을 많이 보여주어 그들의 끓는 피를 더 끓게 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주요국가적명절과 대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서 모란봉전자악단이 힘있는 공연활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주요명절들과 대회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떨치고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새로운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들을 강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승절, 당창건기념일,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을 비롯한 주요명절들과 여러 대회, 행사를 계기로 모란봉전자악단의 공연을 하도록 하시고 공연준비로부터 날자와 공연장소, 공연종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은 주체101(2012)년 7월 전승절경축공연, 주체101(2012)년 10월 당창건 67돐경축공연, 주체102(2013)년 1월 신년경축공연, 주체102(2013)년 10월 당창건 68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의 합동공연과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참가자들을 위한 합동공연, 주체103(2014)년 4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참가자들을 위한 공연, 주체104(2015)년 4월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참가자들을 위한 공연 그리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의 합동공연 등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명절들과 대회들에서 진행된 공연활동을 통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은 참신하고 활력있는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뚜렷이 살리며 주체예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모란봉전자악단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화선식공연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들끓는 전투장에서 힘있는 화선식공연활동으로 대중의 정신력과 지혜를 최대한 발동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상사업방법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화선공연을 발기하시고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 지역과 대상, 강국건설에서 맡고있는 임무와 특성에 기초하여 몸소 공연의 종자와 주제, 곡목의 구성과 배우들의 의상, 무대장치, 악단성원들의 활동질서와 로정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화선공연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은 주체102(2013)년 4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주체102(2013)년 6월 자강도로동계급들속에 들어가 공연을 하였으며 주체103(2014)년에는 평양에서의 공연에 이어 량강도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오만무례한 책동을 짓부셔버리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전자악단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는 날로 커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통하여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제일기수로서의 자랑스러운 면모와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도록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을 받아안은 모란봉전자악단은 첫 공연에서부터 백두산기슭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는 힘있는 음악포성을 장쾌하게 울리였다.

주체103(2014)년 4월 4일 삼지연군에서 진행한 첫 공연에서 항일의 녀대원들의 군복차림을 한 출연자들은 항일혈전의 나날 밀림속의 승전가를 높이 울려가던 투사들처럼 전투적이고 기백있는 공연으로 관람자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녀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어버이》,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생각》, 녀성3중창 《하늘아래 첫집》, 바이올

린독주와 경음악 《매혹과 흠모》, 녀성2중창과 방창 《빛나라 정일봉》,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특히 《하늘아래 첫집》, 《빛나라 정일봉》, 《백두의 말발굽소리》,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와 같이 량강도인민들의 생활과 직접 이어지고 그들이 남달리 좋아하며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는 명곡들이 흘러나오자 공연장소는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더욱 설레이였다.

공연의 모든 곡목들은 삼지연군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명중포화의 선률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면서 백두산아래 삼지연군에서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제일먼저 울려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예술인들, 소년단원들속에까지 들어가 전투적으로 진행된 모란봉전자악단의 화선공연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거대한 위력을 나타내였으며 국보적예술단체로서의 악단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악단의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널리 선전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모란봉전자악단의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굳어진 사고방식과 낡은 틀을 마스고 자기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조건에서도 최단기간내에 결사관철하는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을 대담하게 깨버리고 혁신적안목으로 끊임없이 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력전을 벌려나가는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세차게 휘몰아치게 되였다.

시대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며 문예전선의 제일근위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역할에 의하여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지고있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정신력이 활화산같이 폭발되여 건설분야에서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등 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군길에서 매일, 매 시각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란봉전자악단은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가 되여 우리 당정책의 가장 충실한 대변자, 적극적인 선전자, 관철자가 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되였다.

3. 결 론

지금 온 나라 어디에서나 모란봉전자악단에 대한 이야기가 꽃펴나고있으며 초소와 교정, 일터마다에서 모란봉전자악단의 새 노래들에 대한 보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모란봉전자악단의 음악포성의 메아리는 전체 인민을 무한히 흥분시키며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고있다.

모란봉전자악단의 음악에 바로 당의 목소리, 시대와 혁명의 요구가 담겨져있으며 이 음악은 우리 인민이 어떤 정신과 투쟁기풍, 창조방식으로 총공격전을 다그쳐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와도 같다.

오늘 우리 당은 약동하는 새시대에 맞게 음악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며 이끌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모란봉전자악단의 혁명적노래포성이 줄기차게 울려퍼져 우리 당의 음악예술전통의 순결성이 확고히 고수되고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총폭발되여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란봉전자악단을 조직해주시고 그것을 주체혁명의 새시대 본보기악단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나날들을 기적과 환희로 찬연히 빛내이도록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당의 음악예술건설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실마리어 모란봉전자악단, 창조기풍, 순회공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기 위한 현명한 령도

오 진 명

1. 서 론

인류는 오랜 세월을 두고 온갖 예속과 구속이 없고 인간의 지혜와 재능이 꽃피는 리상사회에서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것을 갈망하여왔다.

사람들의 이 념원과 지향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산현실로 펼쳐져 우리 인민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보건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계승해가시며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해설론증하려고 한다.

2. 본 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기초한 인민적인 보건제도와 인민적보건시책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태여나서부터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도시와 농촌들에 병원, 진료소들이 꾸려져있어 언제 어디서나 불편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다.

그런데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보건부문에서도 그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이 완전히 가셔지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렬처절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게 하신 숭고한 뜻을 받들어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온갖 조치를 다 취한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보시고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실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면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적인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국가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은 우리 당이 보건분야에 내세운 중요한 목표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하에서 능히 실현할수 있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투쟁과업이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무엇보다도 치료예방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자본주의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의학의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도록 하신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의학의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의학이 하나의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예방의학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 예방의학은 오직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방의학은 보건분야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차이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위생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을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생방역사업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 전염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을 예방근절하며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신년사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보건부문에서는 위생방역기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예방원식의료봉사를 잘하여 병걸린률을 극력 낮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위생방역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보건부문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위생방역기관들사이 실시간감시통보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실시간감시통보체계는 중앙과 지방의 위생방역기관들이 정보기술에 의거하여 호상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매 지역에서 발생할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감시 및 통보해주고 제때에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위생방역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예방경보체계이다.

보건성과 중앙위생방역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국가콤퓨터망을 리용하여 각 도의 위생방역소들과 남포항,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비롯한 국경위생초소들에 실시간감시통보체계를 확립하였다.

실시간감시통보체계가 실현됨으로써 해당 지역들의 질병발생지표들을 료해하여 미리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통보시간도 단축되여 방역사업에 큰 도움을 주게 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을 기본으로 내세우는 우리당의 보건정책이 얼마나 우월하며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위생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생선전사업은 대중을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이다.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근로자들을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보건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그들이 위생문화수준을 높이고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깨끗이 꾸리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문화를 세워 문화위생성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101(2012)년 12월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주위환경과 일터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문화위생적으로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뚜렷한 전망목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주체102(2013)년 9월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면서 모두가 자기 마을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봄철위생월간과 가을철위생월간을 통하여 위생선전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보건성에서는 봄철위생월간기간에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는것을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수 있는 비위생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보다 깨끗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근로자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위생월간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위생선전사업은 강연과 해설담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 선전활동에 사회주의경쟁요강을 작성하고 직관선전을 배합한 선동활동이 기본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신 의사담당구역제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여 담당의사들이 가정세대들과 로동현장에 들어가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년령별, 체질적특성에 맞게 각종 질병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건강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의사담당구역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보건성에서는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지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갔다.

의료일군들은 주민들속에 들어가 병의 예방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목을 가지고 위생선전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검진을 진행하였다.

이렇듯 전국가적인 위생방역체계가 세워지고 위생선전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다음으로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신것이다.

의료봉사사업은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상혜택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킬수 있으며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때문에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는 단순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앞선 진단과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당과 국가의 옳바른 시책에 의하여 의학과학연구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보건실천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고려의학을 과학화하며 최신의학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치료성과를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보건실천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최신의학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였다.

복부외과학강좌와 뇌신경외과학강좌의 의료일군들은 고심어린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수술방법을 림상실천에 받아들이는데 성공하였으며 병원의 내과의료집단에서는 의료봉사의 표준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할수 있는 진단 및 치료지도서들을 내놓았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서는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녀성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이 더 잘 가닿게 하였으며 류경안과종합병원에서도 앞선 치료방법들을 도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안겨주었다. 옥류아동병원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운 수술방법들도 내놓았다.

각지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 대한 현장의료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고려의학적방법과 신의학적방법을 옳게 배합하는것은 의료봉사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의료봉사에서 고려의학적방법과 신의학적방법을 옳게 배합하여야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환경과 습성, 체질적특성에 맞는 옳은 치료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치료효과를 더욱 높일수 있다.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에서는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결합하여 난치성질병치료에 대한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려의학연구원에서도 신의학을 고려의학과 결합하여 치료효과를 보다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고려의학과 관련한 도서를 편찬하고 우리 식의 질병예보진단체계를 전국의 병원들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널리 소개하고 림상실천에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또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완비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먼거리의료봉사체계란 거리상 먼곳에 있는 환자들을 직접 현지에 가지 않고도 정보통신체계를 리용하여 진단 및 치료(수술지원)에 대한 전문가협의와 기술적지도를 주는 체계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텔레메디신(Telemedicine)이라고 통용되고있는 먼거리의료봉사의 도입은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그 나라 보건사업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되고있다.

지리적 및 의료봉사수준에서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의료봉사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래왕을 극력 줄이는것과 함께 보건일군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치료환경을 제공하는것으로 하여 먼거리의료봉사의 중요성과 의의는 날로 더욱 부각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수립은 산이 80%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교통이 불리한 산간지대들에 주민들이 많이 분포되여있는 자연지리적특성과 모든 주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의료봉사를 제때에 보장해야 하는 보건사업의 특성으로부터 더우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전부터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개발도입사업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적극 추진시켜왔다. 중앙과 도, 군급병원들에서 각각 한개 단위씩 시범단위를 정하고 먼거리의료봉사실과 통신하부구조를 구축하였으며 먼거리의료봉사설비들의 운영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10월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병원의료일군대렬을 수준이 높은 의사들로 꾸리면서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과 화상회의를 할수 있게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완비하고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중앙병원들과 전국의 도, 시(구역), 군인민병원들에 도입하였으며 병원들에 첨단설비들을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통하여 조국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위치한 군인민병원들에 이르기까지 수술지도를 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마련되여 유능한 의료진의 지도와 방조밑에 수술을 보다 신속히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수술집도자와 보조성원들외에도 해당 병원의 외과의사들이 먼거리의료봉사실에서 수술과정을 동시에 시청하면서 상담할수 있으므로 보다 훌륭한 치료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로 개발도입한 먼거리수술지원체계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데 기초하여 유능한 외과전문가들이 아래단위의 수술환경과 조건을 원격으로 감시, 조종하면서 직접 수술지도를 줄수 있게 설계된 첨단의료봉사체계이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는 환자들이 보다 훌륭한 외과적의료봉사를 받을수 있게 적극적인 방조를 주는것으로 하여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러나 먼거리수술지원체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는 높아지고있지만 통신 및

의료봉사비용 등으로 하여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들에만 국한되여 도입리용되고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전국가적범위에서 짧은 기간에 수립된 나라는 없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있고 보건발전의 력사나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들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전국적범위에서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수립은 세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주체102(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먼거리의료봉사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기술협의회 참가자들은 조선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야말로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사회주의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이라는데 대해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이 한결같이 평가한 우리 나라에서의 먼거리의료봉사의 특징은 3가지이다. 즉 전국가적범위에서 실현되였다는것, 특정한 계급, 계층이 아닌 평범한 근로인민모두가 무상으로 봉사받는다는것, 매우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는것이다.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전국적도입은 사람의 생명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의학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보다 철저히 완비됨으로써 의료봉사사업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뚜렷이 과시되게 되였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다음으로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이 현대적이며 질좋은 의료봉사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신것이다.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은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보건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들이 현대적이며 질좋은 의료봉사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을 일떠세워 인민들을 위한 치료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치료조건과 환경개선사업은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장군님께서 생전에 주신 과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유선종양연구소를 건설할것을 결심하시고 공사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오래전부터 우리 녀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깊이 마음쓰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 평양산원에 유선종양연구소를 건설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설계도면까지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6월 건설현장을 찾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을 위해 마음을 많이 쓰시였다고 하시면서 연구소를 세계

적수준에서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유산을 남겨주시였는가 하는것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서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며 페부로 절감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일떠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1월 옥류아동병원을 중요한 건설대상의 하나로 정해주시고 그후 장마철폭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병원이 갖추어야 할 최신의료설비들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아동병원은 마음먹고 건설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치료기지인것만큼 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비를 무조건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류경치과병원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병원에 현대적인 의료설비를 그쯘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의료봉사기지로 손색없이 잘 건설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10월 문수지구에 새로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당풍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이 일떠세운 병원,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과시하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고있는것은 결코 나라가 풍족해서가 아니라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심혈과 로고속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의 의료봉사기지들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과 우리 당의 인민적인 보건정책의 정당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축도이다.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을 일떠세우는 과정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만방에 보여주었다.

하기에 세계 수많은 신문, 통신들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갈망하여온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하려던 소망은 조선에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고 하면서 옥류아동병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과 같은 의료봉사기지들이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일떠서 조선에는 인민들에게 의료상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있다고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신년사와 주체107(2018)년 신년사에서 의료설비와 기구,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여러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의약품생산과 의료기구생산을 늘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주체103(2014)년 11월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약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며 의약품들의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에 요구되는 약품들을 연구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을 보장할수 있게 약품포장을 손색없이 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도록 약품사용설명서도 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수액약품생산기지를 확장하고 수지주머니성형으로부터 주입, 접합, 적재, 멸균,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

주체104(2015)년 9월말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면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설비관리를 잘하고 원료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며 상비약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모든 의약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신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한 현대적인 의료기구생산기지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주체보건, 인민보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현대적인 질높은 의료봉사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켜 대중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늘이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우고 힘을 집중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료기구공장들을 전반적으로 다 현대화, 활성화하고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함으로써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개변시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보건산소공장과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이 새로 현대적으로 건설되여 최신식의료기구들이 더 많이 생산됨으로써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게 되였다.

3. 결 론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보건사업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기초적인 사업으로 되고있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것은 우리의 보건기관들과 보건일군들의 본분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의료일군들속에서는 환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 뼈도 서슴없이 바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소행들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황금만능의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 당과 국가의 인민적보건시책의 정당성과 우월성, 위대한 생활력을 증시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옹호고수하며 시대와 혁명, 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그 우월성과 위력을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예방의학, 의료봉사, 위생선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고조선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분석

박사 부교수 **최 연 주**

1. 서 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이며 우리 나라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입니다.》(《**김일성**전집》 제85권 428페지)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로서 B.C.30세기초에 단군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다.

우리 민족의 첫 페지를 장식한 고조선의 력사는 지난 시기 봉건사가들과 대국주의사가들에 의하여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으로 심히 외곡되여있었다. 고조선의 력사와 관련한 국내사료들에는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적립장이 반영되여있었고 외국사료들에는 필자들의 대국주의적립장이 반영되여있었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력사에 대한 연구는 력사를 외곡하는 행위에 학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력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의 력사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고조선력사연구에서는 봉건대국주의사가들과 사대주의사가들에 의하여 심히 외곡되여있던 고조선의 력사를 바로 정립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던 조건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명하는 방향에서 연구사업이 진행되였다.

고조선의 력사에 대한 실학자들의 연구성과와 관련한 도서로서는 《17세기이후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몇개 부문 학문유산》(1, 2)과 여러 《력사과학》을 들수 있다. 여기에서는 실학자들이 쓴 저서에 기초하여 고조선의 력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한해서만 일련의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들의 견해를 종합화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성과에 토대하여 고조선의 력사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화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2. 본 론

2. 1. 실학자들의 력사저서에 대한 일반적개괄

17세기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실학이 발생하였다. 실학자들은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로서 실지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풍을 세워나갔다.

실학자들의 저서가운데서 고조선의 력사연구와 관련한 대표적인 도서로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허목의 《동사》, 신경준의 《강계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등을 들수 있다.

《동국지리지》는 고조선시기부터 고려시기까지의 력사와 지리를 서술한 력사지리책으로서 실학자의 한사람이며 이름난 력사학자였던 구암 한백겸(1552−1615)에 의하여 1615년에 편찬되였고 1640년에 출판되였다.

한백겸은 임진조국전쟁이후 우리 나라 력사연구에서 새로운 학풍을 일으킨 개척자의 한사람이며 그의 저서 《동국지리지》는 당시 력사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의 하나였다.

그는《우리 나라의 크기는 동서가 600여리 미만이고 남북은 겨우 수천리여서 전국 8도를 두루 답사한 사람도 한두명이 아니였겠는데 그 력사지리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못하니 어떻게 나라의 력사를 알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한백겸은《동국지리지》에서 17세기 이전의 많은 력사책들이 각 시대의 력사지리변천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를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고 종래의 사실들을 그냥 답습한데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면서 새롭게 력사지리를 고증해명하려고 하였다.

허목(1595−1682)은 1673년에 단군조선으로부터 신라말기의 력사를 담은 5권으로 된 통사형식의 력사책 《동사》를 편찬하였다.

그는 고대력사에 관한 선행한 력사책들을 참고하면서 조국력사에 대한 자기의 견해에 따라 사료들을 취사선택하고 분석하여 일정한 통사체계를 만들었다.

신경준(1712−1781)이 편찬한 《려암전서》에는 1756년에 쓴 《강계고》라는 력사지리책이 포함되여있다. 그는 《강계고》의 서문에서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를 연구하는데서 애로가 많은데 그것은 주로 옛 문헌의 기록들이 매우 간략되고 혼탁된것들이 많기때문이며 그것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책의 력대국계(歷代國界)에서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를 서술하는 순서를 우선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주로 북쪽에 있던 나라들을 존재한 순서로 서술하고 그다음에 진국, 삼한, 백제, 신라 등 남쪽에 존재한 나라들을 서술하였으며 그다음에야 통일국가로 된 고려와 조선봉건왕조를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신경준이 당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북쪽의 나라들을 먼저 서술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서로 계승관계에 있던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들이였다. 그러니 그자신도 그 계승관계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확히 인식하고있지 않았겠는가고 생각된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경준은 1770년에 여러 학자, 관료들과 함께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고조선으로부터 당시까지의 력사적사실들을 국내외문헌들을 참고하여 력사적으로 고증하면서 서술하였다.

안정복(1712−1791)은 18세기 중엽에 고조선으로부터 고려말에 이르는 시기의 력사를 서술한 《동사강목》을 집필하였다.

그는 《삼국사기》(1145년 편찬)로부터 《동국통감》(1484년 편찬)에 이르는 력사책들에는 고증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결함들이 있고 《동사찬요》(1614년 편찬)이후부터 《동사회강》(18세기초 편찬)에 이르는 력사책들에서는 이러한 결함들이 극복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력사적사실들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하였기때문에 그 부족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국내외자료들을 참고하여 고증하면서 이 책을 서술하였다고 하였다.

정약용(1762－1836)은 1811년에 귀양지에서 《아방강역고》를 집필하였는데 이 책에서 고조선으로부터 고려에 이르는 기간 력사지리적인 문제들을 중요한것만 몇가지 묶어서 고증하였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실학자들은 당시까지의 력사연구에서 잘못 평가된 문제들을 바로잡는데 힘을 넣었으며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2. 2. 실학자들의 견해와 그에 대한 분석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은 단군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3개 왕조로 구성되여있었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사의 첫 페지를 차지하고있는것만큼 그에 대한 연구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정확히 인식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고조선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를 종합분석함으로써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였으며 그 이후에 존재한 우리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단군조선의 후예국들이였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하려고 한다.

실학자들은 우선 고조선이 우리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밝혔다.

실학자인 허목과 리종휘(1731－？)는 고조선이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였다는것을 밝혔다.

허목은 자기의 저서 《동사》에서 우리 나라에 단군조선으로부터 신라까지의 기간에 존재한 대국이 6개였고 그 부용소국들이 10여개에 달하였는데 그 6개 대국이란 곧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이고 나머지 부용소국들이란 숙신, 부여로부터 탐라에 이르는 나라들이라고 하면서 6개 대국에 대해서는 세가편을, 나머지 10여개의 부용소국들에 대하여서는 각기 해당 렬전편을 설정하고 서술하였다.

허목이 서술한 6개 대국가운데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 시기에 우리 나라에는 단군조선을 계승한 후조선과 만조선만이 존재하였다.

허목은 6개 대국들과 부용소국들을 호상 떨어진 나라들로 서술한것이 아니라 그것들간에는 긴밀한 련관 특히는 혈연적련관이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단군은 이 땅의 최초의 대국 고조선의 시조로서 아들 해부루를 낳았는데 해부루는 북부여국의 시조로 되였고 해부루는 아들 금와를 낳았는데 금와는 동부여국의 시조로 되였다. 동부여왕 금와는 우발수의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주몽(동명왕)을 낳았는데 주몽은 고구려국의 시조가 되였으며 주몽은 온조를 낳았는데 온조는 백제국의 시조로 되였고 동부여는 후에 고구려에 의하여 통합되였다. 그러니 결국 고조선,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백제국들이 다 단군과 그 후예들에 의하여 다스려진 나라들이다.》*라고 하였다.

＊《동사》 단군세가

우의 자료들에서 허목은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뿐아니라 삼국시기에 존재한 나라들까지 혈연적으로 련결시켜놓았다.

물론 자료에서 고주몽을 동부여의 왕이였던 금와의 아들이라고 한것은 잘못된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부여와 고구려가 같은 민족의 나라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우리 민족의 나라들의 계승관계는 허목이 처음으로 밝혀놓은것은 아니였다. 고려시기에 편찬된《삼국유사》나《제왕운기》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들이 단군의 후예들이라는 자료들이 전해오고있으며 다만 허목은 그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을뿐이다.

허목의 주장 즉 우리 나라의 고대국가들과 삼국시기에 존재한 나라들을 혈연적으로 련결시켜놓은것은 그 나라들이 모두 조선민족의 나라들이였다는것을 강조한것으로서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의 자료들이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옛날에 시조 추모왕(주몽왕)이 나라의 터전을 처음 닦을 때 북부여에서 나왔다.》*[1], 《후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남쪽으로 달아나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나라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다.》*[2], 《온조집단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로부터 나왔다.》*[3] 라는 자료들은 고구려가 부여에서, 백제가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였거나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1]《광개토왕릉비》1면

*[2]《삼국사기》권23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3]《삼국유사》권2 기이 제2

부여가 고조선에서 갈라져나왔다는것은 이미 학계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부여는 고조선의 후국으로 존재하여오다가 B.C.15세기 중엽에 독자적인 고대국가로 등장한 나라였다.

《제왕운기》(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에는《본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조선지역에 의거하여 왕이 되였는데 시라(신라), 고례(고구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통치령역이였다.》,《각기 서로 나라로 칭하며 병탄하니 그 수는 70여개이다. 그중 어느것이 대국인가 하니 먼저는 부여요, 그다음은 시라, 고례 …모두 단군을 이은것이다.》라고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부여가 고조선의 후국으로 존재하였으며 부여에서 갈라져나온 고구려도 고조선에 뿌리를 둔 같은 겨레의 나라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고조선과 부여의 계승관계, 부여와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통하여 부여나 고구려가 고조선에 뿌리를 둔 조선민족의 나라이며 나아가서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국이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허목이 6개 대국을 렬거한것은 우리 나라가 옛날에는 매우 강한 대국이였고 그것들은 력대로 분리, 통합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나라였다는것을 강조하자는데 있었다.

한편 리종휘도《단군은 처음 태백산(묘향산－저자)으로 내려와서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조선국을 창건하였고 후에 장당경(구월산일대)으로 옮겨갔다. 또 단군의 아들 부루는 멀리 북쪽 개원(오늘의 료동지역)지방으로 가서 새 나라 북부여를 창건하였으니 …》라고 하였으며《대개 고조선의 령토는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씨조선이 그것을 계승하고 다시 위만에게 전하여졌는데 한나라는 이 위만의 후예로부터 그것을 탈취하였다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고구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서술하였다.

*《수산집》권6 고사 3국 직방고론

리종휘의 이 주장은 고조선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나라였으며 부여도 고조선의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리종휘도 허목과 마찬가지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인정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단군조선을 기씨조선이 계승하고 다시 위만에게 전하여졌다고 표현하였는데 이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홍만종은 《동국력대총목》(1705년 편찬)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이라는 자기의 견해를 명백히 밝혔다. 특히 다른 문헌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자료를 서술하였다.

그는 《단군이 백성들에게 머리채를 땋고 상투를 쪽지는 법을 가르쳤고 군신, 남녀, 옷, 음식, 살림집 등 제도들을 마련하였다.》라고 서술함으로써 단군에 의하여 우리 나라 문화의 시초가 시작되였다고 하였다.

홍만종의 이러한 견해는 일부 실학자들이 말하는 중국 은나라의 기자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설보다 훨씬 독자성이 있고 정당한 견해였으며 특히는 기자에 앞서 단군에 의하여 조선의 문화가 개척되였다고 함으로써 우리 나라 문화의 기원이 오래였다는것을 밝힌것으로 된다. 그후 이 자료는 여러 력사책들에 리용되였다. 이것은 그만큼 이 책이 당시로서는 력사연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신경준은 자기의 저서 《강계고》에서 단군조선의 성립과 그 존재시기에 대한 옛 문헌기록자료들을 언급하고 서로 어긋나는것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경준은 《강계고》에서 《단군의 이름은 왕검이고 그가 처음에 태백산정점 신단수아래에 내려왔으므로 나라사람들이 임금으로 삼고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으니 기간은 무진으로부터 기묘까지로서 1 221년이였다. 류형원의 〈여지지〉에 이르기를 〈태백산은 지금의 평안도 녕변부 동쪽 120리로서 오늘의 묘향산이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신경준은 이 사료를 《삼국유사》의 기록을 들어 론증하면서 《〈삼국유사〉에서 신단(神檀)을 신단(神壇)이라고 하였고 단군(檀君)이라고 하였는데 대개 〈삼국유사〉가 동방에서 가장 오랜 력사기록으로서 신(神)자를 쓴것으로 보아 단(壇)으로 보는것이 비교적 옳을것이다.》라고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우리 나라에는 박달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종류가 두가지인데 《하나는 자단(紫檀)으로서 향기가 류달라 항간에서는 박달목(朴達木)으로 부른다. 이 나무는 줄기가 세서 목재로도 널리 쓰인다. 태백산에 바로 이 자단이 많아서 산이름을 묘향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신화적외피를 쓰고있던 단군조선성립의 력사를 사실적인것으로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강동현의 진산을 대박산이라고 부르는데 그아래에 하나의 큰 무덤이 있어 력대로 단군묘라고 불러왔다. 이때문에 단군묘의 이름도 실린것이다.》라고 하면서 강동현의 단군릉이 단군유적이라는것을 밝히려고 하였다.

신경준이 서술한 단군조선의 성립과 관련한 자료는 비록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지만 단군이 민족의 시조로 태여났고 강동땅에 그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력사지리적유래로 론증하자고 한것은 력사적사실과 부합될뿐아니라 조선력사의 첫 시작점에 대한 견해가 비교적 옳게 세워져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신경준은 단군의 출생과 고조선성립을 력사적으로 실재한 사실이라고 본데 근거하여 단군조선의 존재기간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구체화하여 밝혔다.

《〈고기〉에 이르기를 단군은… 무진년에 나라를 세우고 … 을미년에 아사달로 들어가 신으로 되였으며 그 수명이 1 048년이였다고 한다. 또 〈동국통감〉에 이르기를 1 048년을 단군이 대를 물려주면서 나라가 존재해온 기간이지 단군의 나이는 아니였다고 하였다.》*

* 《강계고》 권1 고대국가

《고기》와 《동국통감》에서 언급한 단군의 수명, 단군조선의 왕조년대를 놓고 후자의 견해를 긍정하면서 그것을 권근의 견해를 인용하여 론증하였다.

《양촌 권근이 명나라에 갔을 때에 … 시를 지었는데 〈그 몇해 력사가 흘렀는지 알길 없지만 아마도 1 048년이 흘렀으리〉라고 함으로써 1 048년이 단군조선의 력대 왕조년대임을 알게 하였다. 이로써 보아 〈고기〉의 기록은 황당한 측면이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단군조선의 존재를 실재한 력사적사실로 인정한데 기초하여 력대로 내려오는 단군의 나이 1 048년이라는 수자를 바로 단군조선의 존재기간이라고 한것은 당시로서는 단군조선의 력사연구에서 진보적인 견해였다.

최근년간 우리 력사학계에서는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 결과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며 지금으로부터 5 000여년전에 출생하여 활동하였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실학자들은 고조선이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였으며 그 이후에 세워진 고대국가들이 단군의 후예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다는것을 명백히 밝혀놓았다.

고조선의 력사적지위와 관련한 실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첫째로, 허목이나 리종휘, 신경준은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이 단군에 의하여 세워지고 그 후손들에 의하여 왕위가 대대로 이어졌다는것을 밝혔으며

둘째로, 허목과 리종휘는 우리 나라에 존재한 부여, 고구려, 백제도 다 고조선을 계승한 우리 민족의 나라였다는것을 밝혔으며

셋째로, 홍만종은 단군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시작되였다는것을 밝혔다.

그러나 허목과 리종휘가 이전시기의 그릇된 《기자조선》설과 《위만조선》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치도 그것이 우리 나라에 존재한 나라였던것처럼 인식하고있은것은 잘못된 견해였다.

실학자들은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조선이라는 국호의 연원을 밝히려고 하였다.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조선이라는 국호를 론의한 실학자는 안정복과 정약용 등이였다.

지난 시기 국호 조선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견해들이 제기되였다. 그 견해를 해석방법에 따라 크게 《조선》이라는 말을 한문식으로 해석하려는것과 고유조선어의 반영으로 해석하려는 두가지 견해로 나누어볼수 있다.

한문식으로 해석한 견해를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쪽의 해뜨는 땅에서 살았기때문에 조선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평양부 군명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국조보감》의 설과 《고이》의 설을 들고 그와는 다른 자기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국조보감》에서는《조선(朝鮮) 음은 조선(潮汕)인데 강이름으로부터 된것이다. 또 이르기를 선(鮮)은 밝다는 뜻이다. 땅이 동쪽에 있어 해빛이 밝기때문에 조선이라고 한다.》라고 썼으며 《고이》에서는《선(鮮)은 밝다는 뜻이다. 땅이 동방에 있어 아침해가 선명하기때문에 조선이라고 하였다.》*고 썼다고 하였다.

＊《동사강목》 본권 권1 상 조선

그러면서 안정복은 순수 한문식해석과는 견해를 달리하여《기자가 료하류역의 땅 태반을 봉지로 받았는데 선비의 동쪽이였기때문에 조선으로 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문식해석의 변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국호제정의 시기도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른바 기자조선시기로 보았으며 더구나 기원전후시기에나 비로소 등장하는 선비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 이전시기의 명칭을 억지로 가져다 맞추려고 한 잘못된 해석이였다. 특히《기자조선》은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였으며 그에 앞서 우리 나라는 단군조선시기에 벌써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정약용은 중국사서《사기》에 기록된 조선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사기》에는 조선에 습수, 렬수, 선수가 있는데 3개 강이 합쳐서 렬수가 되였으며 조선이라는 이름이 여기로부터 생겼다고 기록되여있다.*

＊《사기》 권115 렬전55 조선

정약용은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고 자기의 새로운 립장을 밝히였다.

정약용은 자기의 저서《아방강역고》에서《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오랜 나라의 이름은〈조선〉(고조선)이다.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서는 국내외의 여러 문헌들에 몇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대개 이 나라가 처음에 발생한 지방의 이름에서 나온것일것이다. 이 나라가 강대한 국가로 확대발전한 이후에도 나라이름은 여전히 처음과 같이〈조선〉으로 통용되였다.》*고 하였다.

＊《아방강역고》 권1 조선고

정약용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실례를 들었다.

정약용은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그 옛 중심지역에 한나라의《락랑군》이 설치되였는데 그 락랑군의 많은 속현들가운데서 수현(소재지)의 이름이《조선현》으로 불리웠다고 하였다.

저자의 이 견해는 락랑군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것이지만 국호를 지역의 이름과 결부시키려는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또한 나라의 발상지이름이 국호로 되는 실례를 들면서 조선이 지역의 이름일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였다.

정약용은 나라의 발상지이름이 곧 나라이름으로 되는것은 후날 고구려의 고구려현, 신라의 서라벌, 백제(百濟)의 백제(伯濟) 등과 같이 후세의 조선에도 있고 또 기타 고금의 동, 서방나라들에도 많다고 하였다.

정약용이 고구려라는 국호를 한나라의 고구려현과 결부시킨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기록에서 나오는 고구려현은 한나라의 현도군에 속한 현이였다. 현도군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린 다음에 설치한 4개 군중의 하나로서 그 설치년대는 B.C.2세기였다. 그런데 고구려는 B.C.3세기초에 세워진 나라로서 처음부터 고구려라는 국호를 사용해왔다.

이것은 고구려라는 국호를 한나라의 고구려현과 련결시켜보려는 정약용의 견해가 잘못되였다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조선》이라는 국호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이 나라에 습수, 렬수, 선수 등이 있기때문에 그것들에 의하여 《조선》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 《사기》를 비롯한 다른 설들보다 설득력이 있는것으로 볼수 있을것이다.

국호와 관련한 실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안정복이나 정약용은 조선이라는 국호의 연원에 대하여 해명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정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다. 다만 정약용이 국호의 연원을 지역명칭과 결부시켜보려고 한것이 진보적이다.

실학자들은 다음으로 고조선이 강대한 나라로 이름을 떨쳤다는데 대하여 밝혔다. 그 대표적인 실학자는 리종휘이다.

그는《전조선(고조선)의 전성시에는 그 령토가 매우 광대하고 국력이 강하였으나 평화를 귀중히 여기며 구태여 강한 외적과 맞서 무의미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다. 전조선의 이러한 립장과 태도는 특히 서쪽지방에서 존속한 력대 중국왕조들과의 관계에서 잘 표현되였다. 이리하여 나라는 계속 륭성, 번영하고 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백성들은 오래도록 안착된 생활을 누릴수가 있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정책이 옳았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라고 하였다.

* 《수산집》 권6 전조선론 상하

리종휘가 쓴바와 같이 고조선은 전조선(단군조선)시기에 벌써 광대한 령토를 가진 강대한 나라로 위용을 떨치였으며 그렇기때문에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들이 안착된 생활을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리종휘자체도 당시 문란해지고 약해진 나라를 볼 때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강대하였던 시기는 과연 어느때였던가 하는것을 생각해보면서 자기의 립장을 밝혔던것이라고 할수 있다.

실학자들은 다음으로 고조선의 수도문제를 해명하는데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수도의 위치를 밝히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고조선의 수도문제는 우리 민족의 발상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실학자들은 고조선의 수도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조선의 수도문제와 관련한 실학자들의 견해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보는 견해였고 다른 하나는 료동을 고조선의 수도로 보는 견해였다.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주장한 실학자들은 신경준, 리종휘였다.

신경준을 비롯한 여러 실학자들은 고조선의 첫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수도를 평양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오랜 전승에 의거한것이였다.

신경준은 《동국통감》의 기록을 인용하여 고조선의 수도가 평양이였다는것을 론증하였다.

그는《단군이 처음에는 도읍을 평양으로 삼았다가 그후 도읍을 백악(구월산)으로 옮기였다.》라고 한《동국통감》의 기록을 그대로 전하면서《평양은 지금의 평안도 평양부이다. 성안에는 단군사가 있어 매해 봄, 가을이면 향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군 한다.》라고 함으로써 단군조선의 옛 도읍으로서의 평양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단군조선의 첫 도읍인 평양에 대한 견해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평양지명의 력사적유래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여있다.

《강계고》에는《평양은 옛 이름이 아니다. 만조선에서 평양을 도읍으로 하였지만 시기를 보면 만조선의 도읍을 왕검성이라고 하였다. 왕검이란 곧 단군의 이름이다. 대개 평양이 단군의 첫 도읍이였으므로 후조선이나 만조선때에도 단군의 이름을 그대로 도읍이름으로 삼았던것이다. 단군때에는 평양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알길이 없다. 력대의 기록을 보면 후조선이나 만조선이전에 평양이라고 언급한것은 없다. …고구려때부터 평양이라는 지명이 나온것으로 보아 평양이라는 이름은 고구려때에 붙은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평양은 고조선의 첫 수도였을뿐아니라 고조선이 존재하여온 전기간 도읍으로 존재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사실 평양이 단군의 도읍지, 고조선의 수도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옛 문헌기록들은《강계고》이전에도 수없이 많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인용된《고기》에서도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도읍한것이 평양이라고 명백히 밝혀놓았다.

일연은《고기》에 나오는 평양이 바로 고려당시의 이름난 서경이였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오늘의 평양이 단군조선의 수도였다는것은 고구려 동천왕때인 247년에 있은 천도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있다.

신경준은 바로 이러한 력사적견해를 긍정한데 기초하여 평양은 단군조선뿐아니라 후조선, 만조선시기에도 수도였다는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넋이 깃든 민족의 발상지로서의 평양의 지위를 보다 뚜렷이 하였던것이다.

리종휘도 신경준과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단군이 처음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조선국을 세웠다고 하였다.

정약용은《아방강역고》에서《조선이란 이름은 평양에서 시작된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그 중심지를 평양으로 보고있다.

＊《아방강역고》 권1 조선고

이처럼 실학자 신경준과 리종휘, 정약용은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확고히 인식하고있었고 그로부터 정확히 서술해놓았다.

다른편으로 고조선초기의 수도를 오늘의 평양이 아니라 멀리 서북 료동지방 또는 훨씬 더 서쪽지역으로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었다.

고조선의 수도를 료동지역으로 보는 견해는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하나의 정설처럼 되여있었다.

그것은 당시 료동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결과 이 지역에서 고조선시기의 유적유물이 많이 나왔기때문이다. 그와 반면에 평양일대에 대한 발굴은 료동지역보다 매우 적게 진행되였으며 그러다보니 여기에서는 고조선시기에 해당한 유적유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게 되였다.

결국 평양일대에서 발굴된 유적유물을 가지고 당시로서는 이 지역이 고조선의 수도였다고 말할수가 없었다. 그런데로부터 고조선의 수도는 평양이 아니라 료동지역으로 되여있었다.

고조선의 수도가 료동지역이 아니라 평양이였다는것은 이미 우리 력사학계에서 밝혀놓았다. 그런데 료동지역에서 고조선시기의 유적유물이 많이 나온 사실은 이 지역이 수도의 지위와 거의 맞먹는 부수도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실학자들은 다음으로 고조선의 령역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실학자들은 고조선의 령토문제를 해명함으로써 나라의 강대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들은 임진조국전쟁과 두차례의 청나라의 침략으로 하여 나라의 형편이 한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무능한 봉건통치배들때문에 국력이 약해져가고있던 당시의 형편에서 강대성의 요인을 령토의 넓이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런데로부터 고조선의 령역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다.

실학자들은 고조선의 첫 왕조인 단군조선의 령역을 밝히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였다.

리종휘는 《…단군 부자의 나라인 고조선과 북부여의 판도는 남쪽은 오늘의 림진강에 이르고 동, 서, 북은 지금의 만주전역을 포괄하는 광대한것이였다.》*라고 하였다.

* 《수산집》 권6 고사 3국 직방고론

우의 자료에서 본것처럼 단군조선은 그 강성기에 료하를 계선으로 하여 그 이동의 넓은 지역을 다 차지하고있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광대한 령역을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신경준도 《강계고》에서 단군조선의 령역문제를 론하였다.

그는 단군조선의 령역을 고조선의 마지막시기 령역과의 대비속에서 비교적 깊이있게 론하였다.

물론 《강계고》이전에도 우리 나라 첫 고대국가였던 고조선에 대하여 언급한 력사지리관계문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문헌들에서는 고조선의 건국과 창건자, 존재기간에 대한 문제들은 적지 않게 언급하였지만 고조선 특히 단군조선의 령역문제에 대해서는 적게 언급되였다. 그것은 단군조선의 령역에 대하여 전해오는 력사기록이 적은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강계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면서도 고대국가의 력사지리연구에서 령토문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립장에 서서 이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

신경준은 《강계고》에서 《전조선의 령토에 대해서는 크게 밝혀진 문헌이 없다. … 하지만 그 폭의 정확성에 대하여서는 후조선과 꼭 같으리라는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단군조선의 령토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것을 밝힌 다음 그에 대한 견해를 전개하였다.

《그 서쪽으로는 바다에 닿았고 그 남쪽으로는 한산 하남의 북부지역과 진국땅과 린접해있었다고 보아진다. 또 강화도 마니산에 참성단이 있어서 단군이 하늘과 별에 제사지낸 땅으로 전해지고 그곳에 삼랑성이 있어서 단군의 세 아들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것으로 보아 단군이 다스린 령토가 바다와 한나라지역과 린접해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 동북쪽경계는 더우기 알기 어려운데 〈한서〉 식화지에 〈팽오가 예, 맥을 지나고 조선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고조선의 령역에 대한 신경준의 견해에는 주목할만 한 측면들이 있다.

신경준은 고조선은 원래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나라이지만 점차 서쪽으로 령토를 확장하여 중국의 연나라와 서로 린접하고있으면서 그것을 치려고까지 하였다는것이 중국의 고문헌들에 기록되여있으니 당시 조선이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알수 있다. 그리고 그후 조선이 약해지면서 연나라가 장수 진개를 보내여 서쪽을 공격하여 땅 2 000리를 빼앗았으므로 조선과 연나라가 린접하였고 한나라때에 와서는 조선과 한나라가 패수(대릉하)를 경계로 삼게 되였으므로 이때부터 조선은 료하이서 옛 강토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가장 쇠약해진것이라고 하였다.

신경준의 이러한 견해는 고조선령역의 범위를 단군조선시기부터 시작하여 시대에 따라 부단히 달라진것으로 본것으로서 고조선의 령역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정불변한것으로 본 선행견해와 대립되는것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단군조선의 령역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조선 전기간의 령역에 대한 해당 사료들을 심중히 검토하고 그와 관련한 견해를 제기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단군이 평양을 수도로 정하고 나라를 세운 후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령역을 확대하여나갔으며 후조선때에는 서쪽으로 만리장성계선까지 령역을 넓혀나갔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단군조선과 그후 고조선의 령역에 관한 신경준의 견해는 력사적사실에 부합되는 비교적 과학적인 견해였으며 또 그만큼 고조선의 력사지리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심화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고조선의 령역을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시대로 나누어 따로따로 서술하였다.

그는 단군시대의 강역은 료동과 료동북쪽 1 000여리에 있다는 후부여를 포함한 지역이고 《기자시대》의 조선은 진개에 의하여 서쪽 1 000여리를 잃었다는것*을 고려하여 료수(료하)동쪽 즉 료동지방이며 《위만시대》의 조선은 만반한 동쪽에 국한하여 동북새외와 함경도 및 령동지방이라고 하였다.

* 《동사강목》 부권 하 지리고 단군강역고, 기자강역고, 위씨강역고

안정복은 여기에서 진개의 공격으로 서쪽 1 000여리를 잃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신경준의 기록과 차이나는 점이다. 신경준은 2 000여리를 잃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력사학계의 견해와 일치하다.

그리고 삼조선의 남쪽경계선은 모두 한수(한강)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한서》 지리지에 의거한것으로서 옥저, 부여, 예맥, 읍루까지 고조선에 포함시킨것이다.

고조선의 령역을 고증한 안정복의 견해는 막연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료동과 그 일대를 고조선의 기본령역으로 본것은 정확한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안정복은 료동의 소속관계를 력사적으로 개괄하고 마침내 명나라의것으로 되고만데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면서 《료동이 회복되지 못하고 압록강이 경계선으로 되여버려 우리 나라는 마침내 작은 나라

로 되고말았다.》*라고 서술하였던것이다.

안정복이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령역을 론한것은 잘못이지만 이것은 고조선의 삼왕조인 단군조선, 후조선, 만조선시기의 령역이 시기에 따라 변화되였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 《동사강목》 부권 하 지리고 료동고

정약용은 단군조선의 령역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조선일대였다고 하였다.*

* 《아방강역고》 권1 조선고

정약용의 이 견해는 단군조선초기의 령역에 관한 견해였다. 이미 앞에서도 론했지만 단군조선은 건국초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조선일대였지만 강성기에는 우리 나라 전령역을 포함하여 연해주일대, 료동일대, 대릉하일대 등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고조선의 령역과 관련한 실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첫째로, 리종휘는 고조선의 령역을 시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강성기의 령역만을 론하였고

둘째로, 신경준은 리종휘보다 더 세분화하여 령역을 론하였는데 특히 고조선말기의 령역이 패수를 경계로 한나라와 린접해있었다고 찍어서 밝혔으며

셋째로, 정약용은 고조선초기의 령역만을 밝혔으며

넷째로, 안정복은 다른 실학자들보다 좀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고조선의 령역을 단군조선, 후조선, 만조선 등 삼왕조시기로 구분하여 밝혔다.

이처럼 실학자들은 고조선의 력사적지위문제, 국호문제, 수도문제, 고조선의 령역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당시 고조선에 대한 력사연구에서 미해명으로 남아있던 문제들과 모호한 문제들을 해명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3. 결 론

실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첫 국가였던 고조선에 대하여 일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학자들은 고조선이 우리 민족의 첫 국가였으며 그후에 세워진 나라들은 모두 단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다고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나라들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단일민족의 나라였다는것을 밝혔다.

실학자들은 고조선이 처음부터 수도를 평양으로 정하였고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으며 광대한 령토를 가진 강대한 나라였다는것을 자료적으로 밝혔다.

물론 실학자들이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하지도 않은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 조선현문제 등 대국주의사가들에 의하여 외곡된 견해들을 인정한것 같은 제한성은 있지만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인 고조선의 력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해명하려고 노력한것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이였다고 할수 있다.

실마리어 단군조선, 박달나무, 실학자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고구려성의 건설설계연구

박사 부교수 **박 준 호**

1. 서 론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해놓은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인 력사유적유물들가운데는 동방의 강국이였던 고구려의 성유적도 있다.

지난 시기 고구려성에 대한 발굴과 연구사업이 심화되여 성의 축조지형과 위치, 구조형식과 성이 고구려인민들의 반침략애국투쟁에서 논 역할 등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러나 방어력이 강한 고구려의 성들이 당시에 정확하고 면밀한 건설설계에 기초하여 축조되였다는데 대해서는 거의 론의되지 못하였다.

중세시기 성은 일정한 지역을 둘러막은 영구방어축성물로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것으로 하여 반드시 모든것이 과학적으로 타산되고 작성된 설계가 있었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설에서 설계가 기본이다.

설계가 있어야 로력과 자재, 설비, 자금을 타산할수 있으며 그 예산을 세울수 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477페지)

해당 건설대상의 시공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 자금은 모두 설계에 기초하여 타산되고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므로 설계를 선행하여야 공정별계획을 과학성있게 세우고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면서 시공속도를 높일수 있다.

건축물의 설계는 건설대상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기술문건으로서 여기에는 건설대상의 모든 특성과 제반 기술경제적내용이 그림, 약속된 기호나 부호, 글자, 수자 등으로 반영된다. 여기서 기본은 설계도면이며 그밖에 도면에 다 밝힐수 없는것은 설계설명서 등에 구체화된다.

고구려성건설에 리용된 건설설계에 대하여 알려진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조사발굴된 고구려의 성터유적들과 무덤벽화자료들, 금석문, 문헌기록들은 고구려성의 총체적인 건설계획을 밝힌 총계획도와 총평면도, 성안의 개별적인 건물과 시설물들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한 부분별설계가 작성리용되였다고 볼수 있게 한다.

이 론문에서는 고구려성건설에 리용된 건설설계를 총계획도, 총평면도, 부분별설계로 구분하여 론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발전되였던 건축술의 일면을 건설설계를 통하여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고구려성의 건설에 리용된 건설설계에 대하여 알려진것은 없지만 발굴자료와 벽화자료를 분석하여보면 당시 성전체의 건설계획인 총계획도와 총평면도, 개별적건물들과 시설물들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한 부분별설계가 작성리용되였다고 볼수 있다.

2. 1. 총계획도

총계획도는 총체적인 건설계획이 세워져있는 도안이나 도면이다.

고구려성건설의 총계획도에는 성이 건설될 지역의 자연지형과 방위, 성의 크기와 형태, 각종 건축물들의 배치상태가 밝혀져있었던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고구려무덤벽화에 있는 성곽도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고구려벽화무덤들인 약수리벽화무덤, 안악1호무덤, 세칸무덤, 룡강큰무덤들에 그려진 성곽도에는 성의 전체 모습이 조감도형식으로 그려져있다.

약수리벽화무덤의 안칸북벽에 그려진 성곽도에는 성의 형태, 성문과 문루, 성안의 건물들이 조감도형식으로 그려져있어 성의 총체적인 면모나 건설계획을 한눈에 알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시기 성건설에서 조감도형식의 총계획도가 작성리용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성건설을 위한 총계획도에는 우선 성의 사명과 축조지형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결정되여있었다.

그것은 방어축성물로서의 성의 사명과 목적에 맞게 성의 크기와 형태를 규정하는것이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던것과 관련된다.

후세의 기록이지만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 성지조에 《무릇 성의 대소를 정하는것은 마땅히 그 목적에 따라 할것이다. …생각컨데 성이 너무 넓으면 지키기 어렵고 좁으면 군대가 움직이기 어려우니 제식에 맞는것이 중요하다.》는 기록은 성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성의 크기를 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성의 크기는 성의 사명과 목적에 맞게 수용능력과 방어밀도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던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발굴자료와 문헌기록에 보이는 고구려성의 크기를 보면 잘 알수 있다.

고구려는 첫 수도방위성으로서 오녀산성을 쌓았는데 산성의 둘레는 약 2 440m이다. 오녀산성주변에서는 흑구산성(둘레 1 493m)을 비롯한 고구려초기산성들이 여러개 알려졌는데 모두 오녀산성보다 그 규모가 작은 성들이였다. 이것은 고구려초기 도읍이였던 환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주민들이 모여살았으며 도읍주민수를 고려하여 수도방위성의 규모를 설계하였다고 볼수 있게 한다.

둘레가 2 440m정도 되는 오녀산성안에 최대로 얼마만한 인원을 수용할수 있었는가는 645년 고구려－당전쟁시기 안시성전투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알수 있다.

안시성(영성자산성)은 오늘의 료녕성 해성시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는데 성의 평면생김새는 불규칙적인 타원형이며 둘레는 약 2 472m이다.

당시 안시성은 신성, 료동성, 건안성과 함께 료하하류 동쪽에 있는 기본방어선상의

기둥성의 하나로서 이 성을 견지하기만 하면 적의 침공기도를 파탄시킬수 있었으므로 고구려는 이 성방어에 큰 전략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안시성에는 고구려군사와 주민 10만여명이 있었다.*

*《신당서》권219 렬전145 고려

안시성안에 있던 군대와 주민수의 비례는 료동성전투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추정할수 있다.

료동성에는 전투과정에 전사한 고구려군사가 1만명, 성이 함락되여 포로된 군사가 1만명, 성안에 있던 주민이 4만명 도합 6만명이 있었다고 한다.*

*《삼국사기》권21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

기록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당시 료동성안의 군대와 주민의 비례는 1:2정도였다. 같은 방식으로 안시성안에 있던 고구려군대와 주민수를 계산하면 성안의 군민 10만여명가운데서 군사는 3만～3만 5 000명, 주민은 6만 5 000～7만명정도 되였을것으로 추산할수 있다.

당태종은 각종 공성무기와 친위군까지 내몰아 하루에도 6～7차례씩 집중공격을 들이대고 50여만공수를 들여 흙산을 쌓으면서 90여일간 발악적으로 공격하였으나 고구려군의 결사적인 방어로 하여 끝내 안시성을 점령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이만한 크기의 산성안에 군사가 3만～3만 5 000명정도 있으면 충분한 방어밀도를 보장하여 성을 성과적으로 고수할수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성벽둘레가 2 472m정도 크기의 산성안(성안면적 약 45정보)에 최고 10만여명까지의 군민이 들어갈수 있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은 당시 안시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구려지원군 15만명이 온다는것을 알고 당태종이《이제 연수로서는 계책이 세가지가 있을것이다. 군사를 이끌고 직접 앞으로 나가서 안시성에 잇닿아 보루를 만들고 높은 산의 험한 지세에 의거하여 성안의 곡식을 먹으면서 말갈의 군사를 풀어놓아 우리의 마소를 략탈한다면 공격해도 고구려성을 갑자기 함락시킬수 없고 돌아가자니 진펄이 가로막히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군사를 앉은채 곤난하게 만드는것이 상책이다.…》라고 말한데서도 알수 있다. 다시말하여 15만명의 지원군이 성안에 주둔할수 없으므로 안시성과 잇닿아 보루를 쌓아야 하였음을 말해주며 둘레가 2 472m정도 되는 산성에는 최고 10만명정도의 인원이 들어갈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기록들을 통하여 성의 둘레가 약 2 440m정도 되는 오녀산성안에는 최대로 10만명정도의 인원이 들어갈수 있었으며 그만한 력량이면 당시의 조건에서 방어밀도를 충분히 보장하여 성을 성과적으로 지켜낼수 있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건국초기에 이미 도읍의 군민수가 10만명정도까지 늘어날것을 예견하여 수도방위성의 규모를 설계하였다고 볼수 있다.

고구려는 류리명왕 22년(A.D.3년)에 집안에 도읍을 옮겼는데 그때에도 인구증가에 따르는 도읍군민수를 예견하여 종전보다 큰 규모의 수도방위산성인 위나암성(산성자산성)을 쌓았다.

위나암성(산성자산성)은 해발 676m의 주봉과 그와 련결된 몇개 봉우리들의 릉선을 리용하여 쌓은 고로봉식산성인데 둘레가 6 951m로서 오녀산성에 비하여 성벽길이가 근

3배, 성안면적은 거의 8배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산성이였다. 이 성에는 30만명정도 수용할수 있었다고 추산해볼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건국초기에 비하여 비할바없이 넓어진 령토와 많은 인구, 강한 국력에 맞게 종전의 3배에 달하는 도성건설을 계획하고 추진시켰음을 알수 있게 한다. 또한 도읍의 군민들을 수용할수 있도록 수도방위성의 총계획설계를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성의 평면형태는 지형에 따라 결정되였을것이다. 고구려의 성들이 산성이거나 평산성인것으로 하여 성벽은 자연히 산릉선이나 강기슭을 따라 뻗어나갔으므로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성의 형태를 설계하였을것이다.

총계획도에는 또한 건축물과 시설물들의 위치가 규제되여있었다.

그것은 벽화무덤에 그려진 성곽도들에 성문과 각루를 비롯한 구성요소들의 크기와 위치가 명백히 반영되여있는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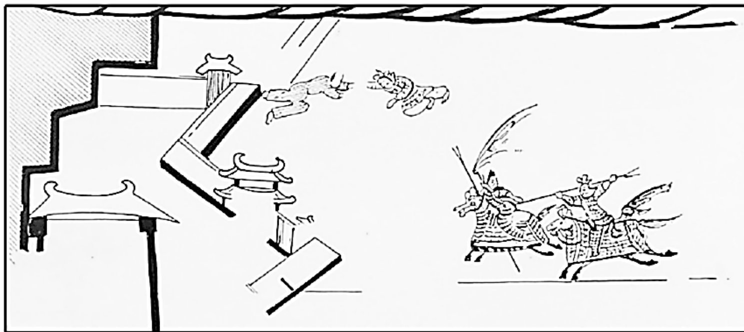


그림 1. 세칸무덤에 그려진 성곽도

2. 2. 총평면도

총평면도는 한마디로 어떤 건축물 또는 건축군을 우로부터 내려다 보았을 때 물체의 모양을 보이는대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고구려시기 성건설에서는 총평면도도 작성리용되였던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료동성무덤에 그려진 성곽도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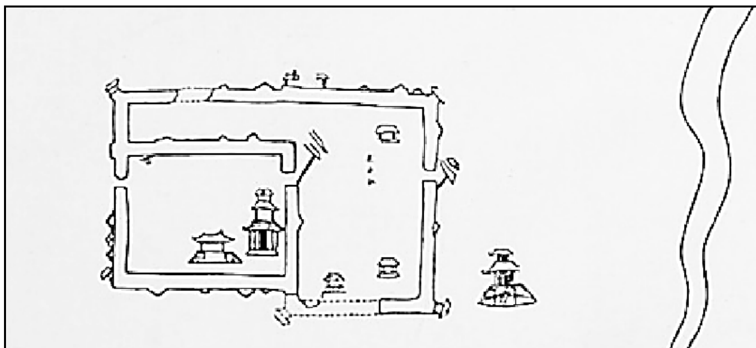


그림 2. 료동성무덤에 그려진 성곽도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료동성무덤의 앞칸 남벽에 그려진 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다. 성문들에는 문루가 있고 성벽들에는 각루, 치, 녀장과 같은 시설물들이 있다. 내성에는 2층집과 3층루각이 있으며 외성에는 단층집들이 있는데 그사이에 《료동성》이라고 내려 쓴 묵서가 있다. 성밖에는 다층건물이 있는데 그옆으로 강이 흐르고있다. 결국 이 성은 한쪽에는 산을 등지고 다른쪽에는 강을 낀 요충지대에 자리잡은 내외성을 구비한 대규모의 평지성으로서 여러층의 문루들과 각루들, 수많은 치와 녀장들로 요새화된 고구려 서변의 군사요충지의 하나였던 료동성이다.

료동성무덤에 그려진 성곽도는 료동성의 성벽을 직각평행투영의 방법으로 그린 그림으로서 고구려시기 성건설에서 리용된 총평면도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고구려시기 성건설을 위한 설계에서는 총계획도와 총평면도가 작성리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설계설명서와 같은 기술문건도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2. 3. 부분별설계

발굴자료와 벽화자료를 분석하여보면 고구려시기 성건설에서 기본방어축성물인 성벽과 그밖의 구성요소들인 성문과 문루, 각루, 못과 같은 건축물과 시설물들에 대한 설계가 작성리용되였다고 볼수 있다.

2. 3. 1. 성벽설계

성벽은 성의 기본방어축성물로서 성의 방어력은 성벽의 견고성에 따라 결정되였다.

고구려성의 성벽설계에는 성벽기초설계와 성벽구조설계가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기초설계

기초는 상부구조의 짐무게를 분포시켜 작은 압력을 지반에 전달하는 힘받이구조부분이다. 큰 짐무게를 받는 기둥이나 벽체를 기초없이 지반에 직접 설치하면 지반이 상부구조의 큰 짐무게를 받아내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큰 침해를 일으키며 따라서 상부구조물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할수 없게 된다.

특히 고구려의 돌성벽과 같이 큰 짐무게를 가진 구조물의 기초공사를 잘하는것은 건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고구려사람들은 성벽의 기초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지형과 지질조건에 따르는 설계에 따라 기초를 쌓고 성벽을 축조하였다. 다시말하여 나쁜 지반, 보통지반, 좋은 지반에 따라 기초를 마련하였다.

오녀산성과 산성자산성, 대성산성과 같이 산성인 경우에 지반은 대체로 보통지반이나 좋은 지반에 속한다. 그러나 성벽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경우나 평양(장안)성의 외성벽과 같이 강변을 따라 축조되는 경우 일부 나쁜 지반이 나오는 때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구간(실례로 평양성 외성의 안산북쪽—평양체육관 서남쪽구간)에서는 성벽이 지나갈 자리에 있는 감탕층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곳의 지반은 그 기준세기가 보통 $3N/cm^2$에 불과하므로 인공지반을 형성하여 기준세기를 보통지반의 기준세기($10\sim20N/cm^2$)이상으로 높여주어야만 성벽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감탕층을 이룬 부분에서 성벽이 통과할 구간(너비 6m)에 깊이 4m의 감탕을 모두 들어내고 거기에 직경 약 30cm, 길이 5～6m의 통나무를 1～1.5m의 간격으로 놓았다. 그우에 다시 이보다 더 굵은(직경이 약 50cm) 통나무를 마치 철길모양으로 약 4m간격을 두고 세로방향으로 놓았으며 그우에 자갈과 모래, 흙을 넣고 다진 다음 성돌을 쌓아올렸다. 이와 함께 보통지반(실례로 평양성의 칠성문일대)에서는 너비 6～7m, 깊이 약 3m정도로 판 다음 진흙과 막돌을 50～60cm씩 서로 엇바꾸어 다져넣고 그우에 다듬은 기초돌들을 놓았다. 주로 암반으로 된 좋은 지반에서는 성벽밑면이 수평면을 이루도록 내리파고 그우에 큰 다듬은 기초돌을 놓았다.

잘 알려진것처럼 고구려 평양(장안)성의 축조년대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552년에 착공하여 586년까지의 35년간으로 볼수 있다.*

*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양원왕 8년, 평원왕 28년

그런데 평양성성벽에 대한 발굴결과 지반이 동일한 곳들의 기초시공방법에서는 규칙성과 반복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지질조건에 따르는 성벽의 기초설계가 있었으며 축조구간과 시기, 담당자들은 서로 달라도 하나의 기초설계에 따라 성벽의 기초를 축조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성벽의 구조설계

구조설계는 건설물의 사명에 맞게 힘받이구조의 형태와 전반적구성 및 개별적치수 등을 규정하는 설계로서 대상건설설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발굴자료에 의하면 지형과 지질조건에 따르는 성벽과 성시설물들의 축조방식이 규칙성과 반복성을 띠고있다. 이것은 성벽과 시설물들이 공통된 구조설계에 기초하여 축조되였다고 볼수 있게 한다.

고구려성벽은 아래의 일정한 부분은 성돌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안으로 조금씩 들여쌓았다. 그리하여 아래부분에는 계단모양의 굽도리가 형성되였고 웃부분은 곧추 쌓아졌다. 성벽의 밑부분에 있는 성돌의 웃면 앞부분에는 턱을 지워 그우에 놓인 돌이 미끄러져나가지 않게 하였다.

성벽의 앞면은 수직이 아니라 얼마간 경사지게 쌓았는데 산세가 험한 지대의 성벽은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였으며 평지대의 성벽은 좀 급하게 하였다. 실례로 평양성 외성의 정평동일대의 외성벽은 82～83°로서 거의 수직을 이루고있으나 모란봉릉선을 따라 쌓은 성벽은 78～79°로서 평지성벽에 비해 좀 완만하다. 이러한 성벽의 경사각도는 평지와 산지의 지형조건에 따라 엄격히 지켜졌는데 이것 역시 지형조건에 따라 표준화된 성벽단면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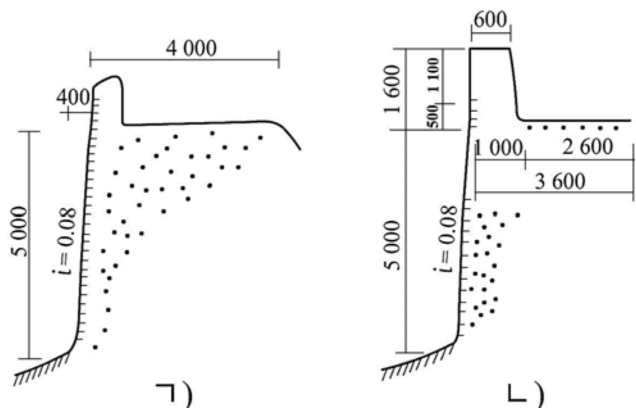


그림 3. 고구려성의 돌성벽실측도(단면)

ㄱ) 평양성 칠성문옆 성벽, ㄴ) 황룡산성 성벽

조설계의 존재를 잘 보여준다.

특히 평양성 칠성문옆 성벽과 룡강군 황룡산성 성벽의 높이와 경사각도가 신통히도 같은것은 고구려시기 같은 지형에서의 성벽의 구조설계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여 있었다고 볼수 있게 한다.(그림 3)

2. 3. 2. 건축물 및 시설물설계

성문과 문루, 각루설계

고구려성의 부분별설계에는 성문과 문루, 각루를 비롯한 개별적인 건물들에 대한 설계도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벽화무덤에 그려진 성곽도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고구려벽화무덤에 그려진 성곽도에는 성문과 문루, 각루, 성안의 건물들이 정면도와 측면도형식으로 그려져있다.

실례로 룡강큰무덤 안칸 남벽에 그려진 성곽도를 보면 남쪽성벽에 3개의 성문이 있고 성벽모서리에는 각루가 설치되여있다. 성문의 문루는 2층으로 되여있는데 중남문은 성의 정문답게 그 높이를 다른 문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설계하였다. 문루의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서 치미와 기와골, 지붕의 조로곡선(조선식지붕에서 추녀가 들리면서 이루어지는 처마의 곡선)과 두공의 활개까지 구체적으로 표시되여있어 건물의 형태와 크기, 구조형식, 개별적부분들의 비례관계 등을 잘 알수 있다. 각루의 지붕은 모지붕인데 밑단을 높여 주변을 감시하는데 편리하게 설계되였음을 알수 있다.(그림 4)



그림 4. 룡강큰무덤에 그려진 성곽도

이것은 성문과 문루, 각루와 같은 성의 개별적건물들의 구조형식과 구체적인 치수를 규제한 설계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식량창고설계

《주서》에는 《수도는 평양성인데 그 성의 동서는 6리이며 남으로는 패수에 림했다. 성안에는 다만 로적가리와 창고가 있어 군사물자를 저축하였으며 적들이 들어오는 날에는 곧 들어가 굳건히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다.

* 《주서》 권49 렬전 고구려

이것은 고구려수도방위성이였던 대성산성안에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저축하여놓는 창고가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성산성안에서는 식량창고터로 볼수 있는 큰 규모의 집자리가 발굴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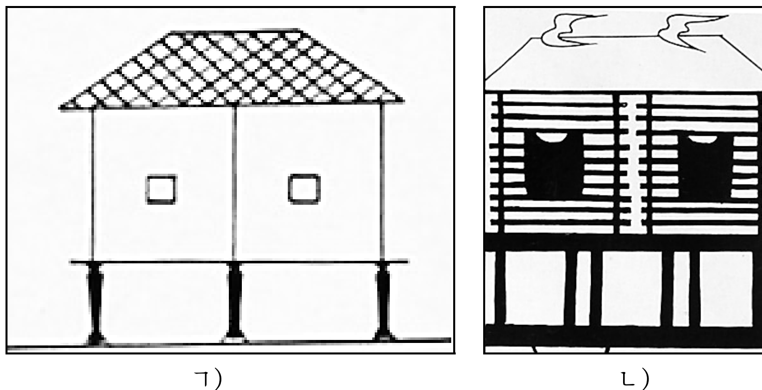
이 집자리는 대성산성중심에 있는 산중턱 경사진 곳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고구려의 붉은색기와쪼각이 대단히 많이 널려져있었다. 여기에는 땅속 1.5m 깊이에 80m 길이로 불에 탄 낟알이 5～10cm 두께로 묻혀있었다.

당시 성안에 있던 식량창고의 구조형식을 무덤벽화에 보이는 창고그림을 통하여 추정할수 있다.

고구려벽화무덤들인 덕흥리벽화무덤, 마선구1호무덤, 팔청리벽화무덤 등에 그려진 창고는 모두 다락식으로 된것으로서 고구려시기 집집마다 있었던 창고의 면모를 정면도형식으로 잘 형상하였다. 창고는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로 굵은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판자로 창고바닥을 마련하였으며 그우에 벽체와 기둥을 세우고 우진각지붕을 씌웠다. 벽체에는 나무기둥사이에 하나씩 창문을 내여 통풍을 보장하였다.(그림 5)

《삼국지》 위서 고구려전에 보이는 《(고구려에는)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부경이라고 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시기 매 집들에 창고가 있었으며 대체로 다락식창고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락식창고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고 통풍이 잘되여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각종 동물의 피해를 막는데 유리한 창고형식으로서 고구려시기 창고의 기본류형으로 되여있었다고 볼수 있다.



ㄱ) ㄴ)

그림 5. 고구려벽화무덤에 그려진 창고

ㄱ) 덕흥리벽화무덤, ㄴ) 팔청리벽화무덤

그러므로 이런 다락식의 창고형식이 성안의 식량창고설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여 여러 성들에 건설되였을것으로 보인다.

대성산성안의 중심부에서 탄화된 쌀이 80m의 긴 구간에서 발굴된것은 당시 이곳에 식량창고들이 줄지어있었으며 거기에 많은 쌀이 일상적으로 저축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식량창고설계에서는 개별적인 창고설계와 함께 식량의 저장능력설계 즉 식량창고를 얼마나 많이 건설하겠는가도 규제하였던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645년 고구려—당전쟁시기 료동성에 량곡 50만석이 있었다. 료동성에는 전사한 군사 1만여명, 사로잡힌 군사 1만여명, 백성 4만명으로 총 6만여명이 있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고구려시기 성안에 저축되였던 량곡의 량을 추산하여볼수 있다. 료동성안의 인구가 군대와 백성을 합쳐서 6만명정도이므로 1인당 평균식량저축량은 50만석÷6만여명＝8.3석정도로 된다.

또한 645년 전쟁당시 개모성에도 10만석의 량곡이 있었다. 개모성은 오늘의 중국 료녕성 무순시 서쪽평지에 있는 둘레가 2 000m정도 되는 토성인데 당나라침략자들에게 함락되였을 때 성안에는 고구려군민 1만여명이 있었다.*

*《삼국사기》권21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

이것은 군대와 백성을 합한 수자였으므로 전투가 시작되기 전 성안에 있던 인구수가 얼마인가를 계산할수 있다. 료동성의 경우를 보면 군대의 50%가 전사하면 성의 방어밀도를 보장하지 못하여 지켜내기 힘들게 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개모성에서도 군대와 백성의 비례가 1:2정도이고 전투과정에 50%정도의 군대가 전사하였다고 보면 원래 성안의 군민수는 군대 약 4 000여명, 백성 8 000여명으로서 총 1만 2 000명정도로 볼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모성에서 인구 1인당 식량저축량은 10만석÷1만 2 000명＝8.3석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통히도 료동성의 경우와 일치한다.

이것은 우연한 수자가 아니라 당시 고구려에서 성안의 식량창고에 보관하던 량곡의 량에 대한 규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다시말하면 성안에는 유사시 들어올 군대와 백성 1인당 약 8.3석의 량곡을 저축하도록 규정되여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1인당 하루에 평균 1kg씩 소비한다고 하여도 이만한 량이면 3년이상 먹을수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시기 전쟁에 대처한 예비물자조성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는가를 알수 있게 하며 그만한 량의 식량을 보관할수 있는 다락식의 식량창고를 성건축설계에 반영하여 건설을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물보장체계설계

중세시기 성방어전은 성문을 닫고 하기때문에 싸움을 오래동안 하자면 성안에 군사와 무기, 군량도 많아야 하지만 물이 많이 있어야 하였다.

사람이 하루에 1L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가정하면 앞에서 본 645년 고구려－당전쟁시기 료동성안에 있던 6만여명의 고구려군민들이 소비하는 음료수만 하여도 하루에 약 60만L, 안시성인 경우 성안의 군민에게 하루에 필요한 깨끗한 물량은 십여만L이상이였을것이다. 음료수뿐만아니라 생활용수도 필요하였으므로 요구되는 물량은 실로 대단하였다. 물은 생활용수로뿐아니라 중세시기 성싸움에서 중요한 방어수단으로도 리용되였다. 다시말하여 성벽으로 기여오르는 적들에게 끓는 물을 퍼부어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였고 장대나 문루, 성안의 건물들에 불이 붙은 경우 불끄기용으로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성방어전에서 물은 성의 방어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되였다.

일반적으로 물보장체계는 물원천지에서 물을 끌어 그것을 물쓰는 대상의 요구에 맞게 필요한 물량을 보내주기 위한 순차적인 련결체계를 말한다.

고구려성의 물보장체계는 물원천과 물잡이구조물, 물길로 이루어져있었다.

일반적으로 물원천으로서는 땅겉면물과 땅속물이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는《고구려지역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과 소택지는 없으며 사람들은 산골짜기를 따라 살면서 골짜기물을 마신다.》라고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을 음료수로 리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골짜기의 시내물은 가물철에는 거의 마르고 장마철에는 수질이 떨어지는 등

기상기후조건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 그러므로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안의 물원천으로서 땅속물을 많이 리용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귀중한 물을 한방울도 허실함이 없이 최대로 리용하기 위하여 산성안에 수많은 물잡이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

고구려성안에 설치되였던 물잡이구조물은 땅속물잡이구조물과 땅걸면물잡이구조물, 스밈식물잡이구조물로 갈라볼수 있다.

땅속물잡이구조물은 땅속물을 필요한 량만큼 잡아두기 위하여 땅속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여기에는 졸짱이나 우물, 샘물잡이구조물 등이 속하였다.

땅속물은 일반적으로 깨끗하며 년중 그 량과 질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므로 좋은 물원천이라고 할수 있다. 대성산성안에 7개의 샘과 녕변 철옹성에 50여개의 우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구려사람들이 땅속물을 적극 리용하였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당시 우물에 대한 설계는 발굴자료와 벽화자료를 통하여 추정할수 있다.

고구려우물로 알려진 고산동우물, 정릉사우물, 호산동우물, 림흥동1호, 2호우물 등은 모두 우물바닥에 굵은 각자로 4각형의 방틀을 2～4단 쌓고 그우에 다듬은 돌로 우물의 자름면이 4각형, 8각형, 원형이 되게 벽을 쌓아올렸다.

우물의 상부구조는 고국원왕릉벽화에 보이는 우물그림과 정릉사우물발굴자료로 보아 4각형 혹은 8각형의 나무나 돌로 된 보호시설이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성안에는 땅걸면물잡이구조물과 스밈식물잡이구조물들도 조밀하게 분포되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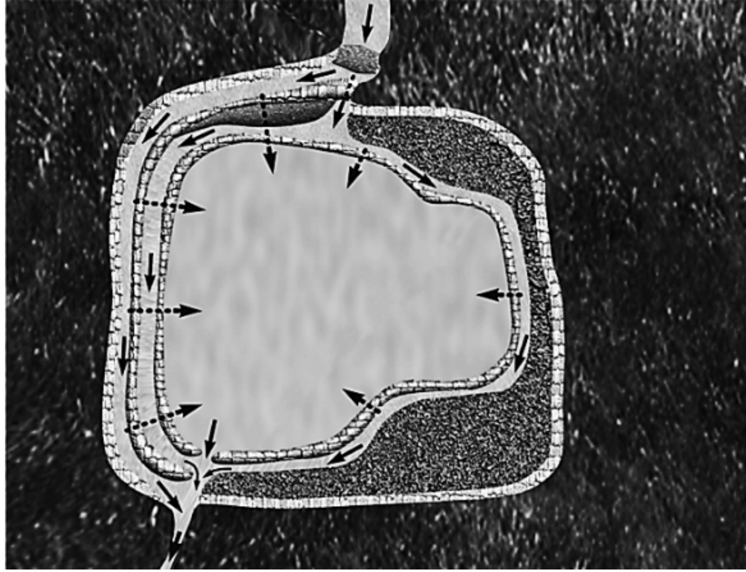
땅걸면물잡이구조물은 땅걸면으로 흐르는 물을 잡아두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고구려－한전쟁시기 오래동안 포위된 속에서도 산성자산성안의 못속에 잉어가 있었다는 사실과 대성산성안에서 170개의 못자리가 발견된것은 당시 성안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물과 비물을 잡아두기 위한 땅걸면물잡이구조물이 상당히 많았고 이곳에 많은 량의 물이 저축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특이한것은 땅걸면물잡이구조물들이 단순히 땅걸면으로 흐르는 물을 잡아두는 역할만 한것이 아니라 물정화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되였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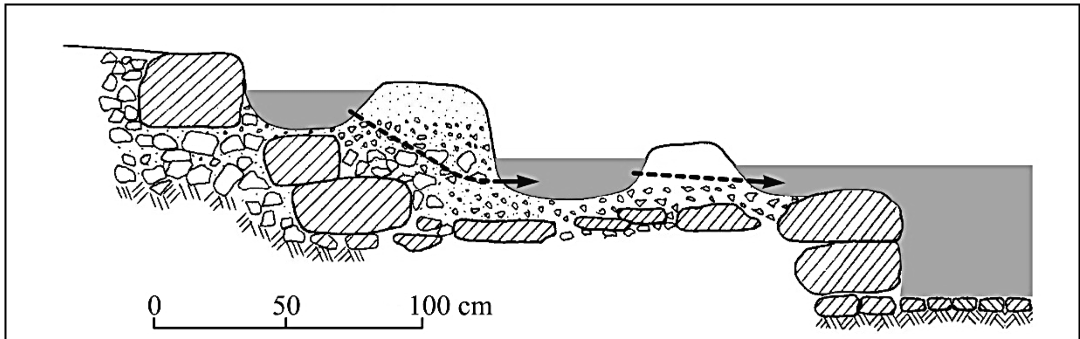
대성산성안의 못들에서 발견된 물정화구조물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대성산성안에서 발견된 2호, 6호, 10호못을 비롯한 거의 모든 못들의 입구에는 잔돌을 쌓아 흐려진 물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1차적으로 려과되도록 하였다. 못안에는 2중, 3중의 물도랑을 쌓아 물이 물도랑을 따라 못의 가장자리부분으로 흐르면서 밑에 있는 다음못으로 빠지도록 되여있다. 그리고 못의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물이 물도랑뚝을 통과하면서 2차, 3차로 려과되여 못의 중심부분에 고이도록 되여있다.(그림 6)

이런 못뚝의 구조는 다른 나라의 물잡이구조물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으로서 고구려사람들이 못을 만드는데서 창안한 독특한 수법이였다. 그리고 3호못(《형제못》)과 7호못에서와 같이 못의 바깥도랑주위에 2～8개의 박우물(스밈식물잡이구조물)을 설치하여 정제된 물을 손쉽게 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대성산성안에서 알려진 170개의 못들은 모두 물길들로 련결되여있는데 물길안에는 큰돌과 자갈이 가득 채워져있다. 이것은 웃못에서 넘쳐나는 물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고 물길을 통하여 아래못에 넘겨 채우며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에 깨끗이 려과되도록 한



(1)



(2)

그림 6. 대성산성 2호못에서의 물정화원리도

(1) 평면도, (2) 단면도

물보장을 위한 설계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고구려사람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설계에 기초하여 물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의 방어력을 최대로 높였던것이다.

3. 결 론

고구려성의 건설설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먼저 고구려에서 성건설을 위한 설계가 작성리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당시에 작성된 성의 총계획도와 총평면도의 면모를 보여주는 무덤벽화의 성곽도들, 성벽의 기초와 단면구조, 많은 고구려성들에서 류사성과 반복성을 띠는 우물과 물정화기능을 가진 못의 구조 등은 고구려에서 성건설을 위하여 작성리용한 성건설설계의 존재와

그 일면을 잘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성의 건설설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으로 고구려시기 건설설계의 발전수준을 알수 있다.

앞에서 본것처럼 성의 부분별설계는 지반조건에 따르는 성벽의 기초설계와 지형조건에 따르는 성벽의 구조설계, 건설목적과 사명에 부합되는 식량창고의 구조설계와 저장능력설계, 자체의 정화기능과 견고한 구조를 가진 물잡이구조물의 구조설계와 자연흐름식의 물보장체계설계 등은 성의 방어력을 최대로 높일수 있도록 하는데 지향되였으며 현실적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구체화되여있다.

이것은 고구려인민들의 창조적슬기와 재능, 높은 애국심을 잘 보여주며 나아가서 고구려건축술의 발전면모를 과시하고있다.

실마리어 고구려성, 구조설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고구려시기 무덤건설규정연구

교수 박사 리 광 희

1. 서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입니다.》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귀중한 유산이며 당시의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민족의 재부이다.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가적인 규정에 의하여 담보된다.

삼국시기의 력사를 전하는 《삼국사기》의 권33 잡지 2에는 색갈옷, 수레, 기물사용, 살림집과 관련한 규정이 기록되여있는데 이것은 주로 신라의것들이다.

이런 규정은 고구려에도 존재하였을것이다.

고구려시기에 건설된 수많은 성들과 궁전, 절간, 무덤 등에서는 시기별, 등급별에 따르는 강한 공통성과 규칙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그러한 공통성과 규칙성을 산생시킨 국가적인 규정이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 내외의 학계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하여 이러한 규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고구려시기 중요건설과 관련한 규정연구가 제일 가능한 대상은 무덤건설부문이다.

그것은 우선 당시의 문헌기록들에 무덤건설과 관련한 비교적 엄정한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있기때문이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에서 왕자 발기를 《왕의 례》, 호동을 《왕자의 례》, 부여에서 고주몽의 어머니 류화를 《태후의 례》로 장사하였다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 《례》는 다름아닌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는 종합적인 규정을 의미한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에서도 건국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인 976년에 문무량반무덤제도가 정해졌다.*

* 《고려사절요》 권2 경종 원년 2월

그것은 또한 고구려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물들가운데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유적이 무덤이기때문이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인과 집안, 평양지역은 물론 오늘의 조선반도중부이북과 중국의 동북지방, 로씨야의 원동지역에는 수만기의 고구려무덤이 분포되여있다.

고구려무덤은 성곽이나 궁전, 절간 등과는 달리 한번 건설된 후 원래의 상태대로 천수백년동안 보존되여왔다.

이것은 건설당시의 규정을 도출해내는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고구려의 무덤제도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였는가는 당시의 금석문자료를 가지고 추정할수 있다.

덕흥리벽화무덤에는 주인공 진의 장례와 관련한 묵서가 있는데 무덤의 터잡기, 건설(주로 로력과 자금), 장례날자와 시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고구려시기 무덤의 건설과 관련한 규정이 크게 터잡기, 건설공사로 이루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론문에서는 이러한 각도에서 무덤의 건설과 관련한 규정을 연구하려고 한다.

2. 본 론

2. 1. 무덤의 터잡기

고구려시기 무덤의 터잡기는 무덤건설규정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5세기초의 고구려무덤인 덕흥리벽화무덤의 묵서에서 제일먼저 《…周公相地…(… 주공이 터를 잡고 …)》라고 하였기때문이다.

고구려시기 무덤의 터를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는 민중왕이후 력대 왕들의 왕호들가운데 장지명왕호(무덤을 건설한 장소의 지명을 가지고 선대왕들의 호칭을 정한것)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2. 1. 1. 무덤터의 위치선정자

무덤터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잡아놓았다.

민중왕은 민중원에서 사냥을 하다가 석굴을 보고 자기의 무덤을 거기에 쓰라고 하였다. 그가 죽자 왕후와 여러 신하들이 왕의 유언을 어기기 어려워 석굴에 장사지내고 민중왕이라고 불렀다.(《四年夏四月王田於閔中原. 秋七月又田 見石窟顧謂左右曰 〈吾死必葬於此不須更作陵墓.〉

…五年王薨. 王后及群臣重違遺命乃葬於石窟號爲閔中王.》*

*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 민중왕 4,5년

태후 우씨는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을 산상왕의 무덤옆에 만들라는 유언을 남기였다.(《秋九月太后于氏薨 太后臨終遺言曰 〈妾失行將何面目見國壤於地下. 若群臣不忍擠於溝壑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側〉 遂葬之如其言.》*

*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8년

이것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터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기면 그대로 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무덤터는 본인의 유언이 없으면 고위급의 인물이 정하였다.

민중왕이 죽자 왕후나 신하들이 왕의 유언을 어기기 어려워 석굴에 묻었다는것은 왕의 유언이 없으면 왕후와 고위급신하들이 무덤의 위치를 정하였다고 볼수 있게 한다.

신대왕시기 국상 명림답부가 죽자 왕이 가서 애도를 표시하고 례를 갖추어 질산에 장사지내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十五年秋九月國相答夫卒年百十三歲 王自臨慟罷朝七日乃以禮葬於質山置守墓二十家.》*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15년

이것은 국상과 같은 고위급관리무덤의 터는 왕이 직접 잡아주었다고 볼수 있게 한다.

덕흥리벽화무덤의 건축터를 잡았다는 주공은 당시에 산 사람은 아니였으므로 실지로는 고구려에서 그에 못지 않은 명성과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잡아주었다고 생각된다.

2．1．2．무덤의 위치와 립지

무덤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살며 활동하던 곳, 외지에 나갔을 경우에는 죽은 곳, 유언으로 지적된 곳, 자기의 출신지, 자기의 식읍 등이였다.

고구려시기 왕이나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위치를 알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대부분의 왕들은 수도부근에 무덤터를 정하였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인, 집안, 평양부근에 왕릉급의 무덤들이 집중되여있는 현상은 고위급통치배들의 기본무덤터가 그들이 살며 활동하던 수도부근이라는 사실을 립증하여준다. 외지에 나갔다가 죽은 경우에는 그곳에 무덤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류리왕은 왕궁이 아니라 두곡의 별궁에 갔다가 거기에서 죽어 두곡동원에 묻히였다.(《冬十月 薨於豆谷離宮 葬於豆谷東原 號爲琉璃明王.》)*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류리왕 37년

왕자인 발기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추격을 받아 곤경에 빠지자 배천가에서 자살하였는데 넉달후 산상왕이 배령에 《왕례(王禮)》로 장사하였다.(《… 發歧聞之不勝慙悔奔至裴川自刎死.…秋九月命有司 奉迎發歧之喪以王禮葬於裴嶺.》)*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 산상왕 1년

태자 해명은 려진 동원에서 자결하였는데 그 동원에 장사하고 사당을 세웠다.(《乃往礪津東原以槍揷地走馬觸之而死時年二十一歲以太子禮葬於東原 立廟號其地爲槍原.》)*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류리왕 28년

유언으로 지적된 곳에 무덤터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태후 우씨는 죽기 전에 유언하여 산상왕릉옆에 장사하였다.

자기 출신지에 무덤터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괴유는 대무신왕의 부여정벌때 부여왕 대소를 죽여 큰 공을 세운 장군인데 자기의 출신지인 북명에 묻혔다.(《拜王曰. 〈臣是北溟人怪由 竊聞大王北伐扶餘臣請從行取扶餘王頭〉…王善其言又以有大功勞葬於北溟山陽命有司以時祀之.》)*

＊《삼국사기》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5년

자기 식읍에 무덤터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림답부는 차대왕, 신대왕시기의 대귀족인데 자기의 식읍이였던 질산에 묻혔다.

(《王大悅賜签夫坐原及質山爲食邑…王自臨慟罷朝七日乃以禮葬於質山置守墓二十家.》)*

*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15년

이러한 자료들은 고구려시기 무덤위치를 정할 때 일정한 규정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무덤터의 위치와 립지에서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환인에 도읍을 정하고있던 시기 왕들의 무덤은 주로 주민지대의 동쪽에 있는 산언덕에 썼고 일반통치배들의 무덤은 거주지와 가까운 산우에 썼다.

환인에 있던 시조 동명왕의 무덤위치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葬龍山(룡산에 장사하였다.)》*[1]고 하였지만 광개토왕릉비에서는 구체적으로 《王於忽本東崗 黃龍負昇天(왕(동명왕)이 홀본 동쪽언덕에서 황룡에게 업히워 하늘로 올라갔다.)》*[2]고 하였다. 이것은 동명왕의 무덤이 환인 동쪽의 언덕(룡산)우에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1]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19년
*[2] 《〈광개토왕릉비문〉에 대하여》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 27페지

환인지역에서 일반통치배들이 쓰던 고구려무덤떼들은 하고성자토성과 오녀산성을 중심으로 혼강과 그 지류인 부이강, 륙도하, 아하 등의 강기슭을 따라 분산되여있었다.

그리고 산우에는 년대가 가장 이른 무기단돌각담무덤들이 있었다.

당시 무덤이 한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강기슭을 따라 나뉘여있은것은 환인이 구려국의 옛 도읍이였던것으로 하여 고대이래의 분산적인 거주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집안에 수도를 정하고있던 시기 환인에서는 여전히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을 주민지구의 동쪽에 썼고 집안에서는 행정구역별로 무덤터를 정하였으며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립지는 산우와 비탈지였다.

태자 해명은 려진 동원에서 자결(1세기)하였는데 그곳에서 장례를 하고 사당을 세웠다. 해명은 환인에 남아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었으므로 환인부근 려진의 동쪽언덕우에 매장되였다고 인정된다.

집안지역에서 알려진 무덤은 1만 2 000여기인데 하해방무덤떼, 우산밑무덤떼, 산성밑무덤떼, 만보정무덤떼, 칠성산무덤떼 및 마선구무덤떼와 같은 6개의 큰 무덤떼로 구분된다.*

* 《집안현문물지》(중문) 길림성문물지편찬위원회 1983년 98페지

집안일대 고구려무덤들의 위치가 행정구역별에 따르는 무덤구역으로 배치된것은 건국후 약 300년동안 고대이래의 분산성이 많이 극복되고 수도에서 주민의 집중화가 추진되여 일정한 행정적구분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수 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배천가에서 자살한(2세기) 왕자 발기는 왕의 례로 배령에 묻혔다.

배령은 배천과 같은 《배(裴)》자를 썼으므로 배천가의 령(언덕 혹은 산봉우리)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죽은 왕들의 장지명왕호들에는 국원, 국강상, 산상, 봉상 등 언덕이나 산우

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아도 태왕릉, 장군무덤, 천추무덤 등 왕릉급무덤들의 립지는 다 높은 언덕이며 일반통치배들의 무덤들은 산비탈가까이나 평지에 배치되여있었다.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립지가 언덕이나 산우로 된것은 전시기의 유습이 이어진것과 관련된다.

평양의 대성산일대에 수도를 정하고있던 시기에는 도시북쪽의 대성산주변에 무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무덤립지는 산언덕으로부터 점차 평지로 전환되였다.

《삼국사기》에는 당시에 존재한 왕들가운데서 장지명왕호를 가진 안원왕, 양원왕(양강상호왕), 평원왕(평강상호왕)들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무덤이 다 언덕이나 산우에 있었다고 볼수 있게 한다.

대성산일대에는 1 000여기의 고구려무덤들이 산속이나 산기슭의 서쪽과 남쪽, 동쪽의 완만한 구릉지대 또는 경사면에 수십수백기씩 떼를 지어 있다. 산속의 높은 지대에는 돌각담무덤이 대부분을 이루고 돌칸흙무덤은 대성산기슭의 낮은 지역에 있다.

평양천도이후 무덤들이 대성산주변에 집중된것은 중앙집권력을 강화하여 무덤위치선정에서도 집중성을 보장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무덤의 립지가 변천된것은 언덕에 거대한 무덤무지를 축조하는 외부중시단계로부터 내부중시단계로 넘어오면서 높은 지대의 지형적효과를 얻으려는 경향이 약화된 결과로 평가할수 있다.

평양(장안)성으로 도성을 옮긴 다음에는 도시의 북쪽인 대성산일대와 교외의 아늑한 지역의 평지에 무덤터를 잡았다.

이 시기 일반통치배들의 무덤은 대성산주변에서 알려졌으며 왕릉급무덤들은 오늘의 강서구역 삼묘리와 같은 교외에도 있다. 그 원인은 고구려말기 무덤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인식에서 변화가 일어난것과 관련된다.

6~7세기경에 불교의 영향으로 사람이 죽으면 령혼이 무덤안이 아니라 천상세계에 간다고 하는 비과학적인 래세관이 널리 퍼지게 되였다.

《삼국유사》에서 신라 문무왕대(661－681) 사람인 광덕이 죽자 그의 령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처와 친구인 엄장이 광덕의 시신을 거두어묻었다는 기록*은 이 시기 사람들의 무덤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준다.

* 《삼국유사》 권5 감통 제7

그리하여 앞선 시기처럼 무덤은 령혼이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라 단순한 시신보관소로 인정되여 규모를 크지 않게 하고 내부에는 시신을 지켜주는 방위《수호신》들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을 그려넣게 되였던것이다.

총체적으로 고구려의 력사발전과 더불어 무덤의 위치선정규정은 마을별, 거주지별로 무덤터를 정하던 방식으로부터 무덤구역의 집중성과 일체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였으며 무덤의 립지는 돌각담무덤단계는 주로 산언덕이였고 돌칸흙무덤으로 넘어가면서 낮은 곳으로 변화되였다.

2．1．3. 무덤의 부지면적과 구입절차

무덤의 부지면적은 피장자의 벼슬등급에 의하여 결정되였으며 후시기로 가면서 점차 작아졌다.

집안의 왕릉급돌각담무덤들은 대단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실례로 태왕릉에 소속된 광개토왕릉비는 무덤에서 500m나 떨어져있고 평양의 동명왕릉에 배속된 진주못이 무덤과 400m정도 되는 곳에 있는데 이것은 당시 무덤부지면적의 크기를 알수 있게 하여준다.

후세에 가서는 등급상 매우 높은 무덤들도 서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여있는데 이것은 부지면적이 작아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실례로 집안 다섯무덤의 4호, 5호무덤들은 매우 높은 급의 벽화무덤들이며 강서세무덤가운데서 2기는 왕릉으로 인정되고있지만 서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여있다. 그리고 이 무덤들주변에서는 릉원으로 볼수 있는 특별한 구조물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 리유는 아마도 고구려말기에는 무덤이 시신의 보관장소로 된것만큼 그전처럼 생존시기의 환경을 그대로 꾸려줄 필요가 제기되지 않았기때문이였다고 본다.

고구려에 벼슬의 등급에 따라 무덤의 부지면적이 규정되여있었다는것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에 벼슬등급에 따라 무덤의 부지면적이 규정되여있었던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그에 의하면 무덤의 크기는《1품은 사방 90보, 2품은 80보로 하되 높이는 1장 6척이며 3품은 70보에 1장, 4품은 60보, 5품은 50보, 6품이하는 모두 30보로 하되 높이는 각각 8척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였다.(여기서 1척은 0.2m, 1보는 1.2m, 1장은 2m로 볼수 있다.)

* 《고려사》권85 지39 형법2

무덤의 건축부지를 사는 절차(의식)가 있었다.

고구려의 문헌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백제 무녕왕릉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무녕왕의 묘지석에는 무덤의 터로 되는 땅값으로《지신》에게 돈 1만문을 낸다고 기록되였고 그옆에서는 엽전꿰미가 발견되였다.

그리고 798년 신라에서는 원성왕의 릉을 만들면서 필요한 토지를 충분한 값을 치르고야 샀다. 원성왕을 위한 절간의 비문에는《전국의 토지는 다 국왕의 토지이지만 공전이 아니므로 값을 주고 샀다.》고 기록되여있다.

고구려의 천왕지신무덤벽화에 《천왕》과 함께 《지신》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고구려에도 백제나 신라의 경우와 비슷한 공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2. 무덤건설

덕흥리벽화무덤의 묵서에는 무덤건설에 많은 인적, 물적재부가 들어갔다는데 대하여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당시 무덤건설이 매우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런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을것이다.

무덤건설을 진행하자면 건설기간을 정하고 설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을 담보하는 로력과 자금, 자재가 안받침되여야 할것이다.

2. 2. 1. 무덤의 건설기간

무덤건설은 본인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구려시기에 수릉제도 즉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 무덤건설을 시작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수릉풍습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후한서》나 《삼국지》 고구려전에 혼인을 하면 점차 장례에 쓸 기구를 만들어둔다는 기록이 있다는것을 들고있다.

《후한서》나 《삼국지》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장례용옷이나 관과 같은 장구를 마련하였다는것이지 무덤까지 미리 축조하였다는 의미로는 볼수 없다.

고구려시기에 무덤건설을 언제 시작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문헌기록에 잘 남아있다.

《삼국사기》에는 민중왕이 석굴을 보고 자기가 죽거든 거기에 무덤을 쓰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죽자 석굴에 장사지내고 민중왕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민중왕은 자기의 무덤건설이 죽은 다음에 진행된다는 것을 념두에 두고 말하였다. 실지 민중왕의 무덤건설은 그가 죽은 다음에 곧 시작되였다.

또한 태후 우씨가 림종시에 자기를 산상왕의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니 마침내 그의 말대로 장사지냈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 역시 우씨의 무덤건설이 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시작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만약 무덤을 살아있을 때 건설하였다면 우씨가 죽기 전에 무덤의 위치문제를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을것이다.

무덤의 건설은 주인공이 죽은지 3년(해수로)이 지난 다음 장례날자에 맞추어 끝냈다.

덕흥리벽화묘지명에는 《鎭年七十七薨焉以永樂十八年太歲在戊申　十二月辛酉朔廿五日乙酉成遷移玉柩(진은 나이가 77살에 죽었다. 무덤은 영락18(408)년인 무신년, 초하루가 신유일인 12월 25일 을유일에 완성되여 령구를 옮기였다.)》고 기록되였다.

진이 죽은 날은 알수 없지만 무덤이 완성되여 령구를 옮긴 날은 영락18(408)년인 무신년, 초하루가 신유일인 12월 25일 을유일이다.

이것은 무덤의 완공날자와 령구를 옮긴 날자를 같게 보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412년 10월에 죽었다.*

＊《삼국사기》권18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22년

광개토왕릉비문에는 《晏駕棄國　以甲寅年　九月廿九日乙酉　遷就山陵.(광개토왕이 죽으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일에 산릉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광개토왕이 죽은 다음 곧 무덤건설이 시작되였다면 공사기간은 해수로 3년정도, 정확히는 1년 11개월이다.

여러 자료들을 보면 무덤건설이 끝난 시점은 주인공이 죽은지 만 2년정도 되는 때인데 이것은 곧 무덤건설공사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당시 높은 급의 무덤들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므로 단 몇달동안에 건설하기가 어렵다.

당시의 문헌기록에 고구려에서 《死者殯於屋內 經三年擇吉日而葬.(죽은 사람을 집안에 빈장하였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좋은 날을 받아서 장사지냈다.)》*고 되여있는것으로 보

아 고구려에서는 대체로 3년기간에 무덤건설을 진행하였다고 볼수 있다.

＊《수서》권81 렬전 고구려

고구려시기의 기록에는 무덤의 건설기간을 보다 짧게 볼수 있는 자료도 있다.

실례로 산상왕과 왕위를 다투던 왕자 발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자결한것은 197년 5～6월경이였다. 산상왕은 그로부터 3～4개월후인 9월에 관청에 명령하여 발기의 상여를 받들어《왕례(王禮)》로써 배령에 장사지내게 하였다.*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 산상왕 원년

이것은 아마도 빈장을 하는 림시무덤을 건설한 정형을 보여주는 자료로 리해할수 있다.

우에서 본《수서》의 기록에는 집안에 빈장을 하였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실정에서는 자그마한 무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매장을 하였던것으로 생각된다.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의 주변에 있는 안악4호무덤의 발굴자들은 바로 그것이 기본무덤인 고국원왕릉을 건설하기 전에 림시로 빈장을 하였던 무덤이라는 견해를 이미전에 발표하였다.

림시무덤은 규모가 작았으므로 건설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것으로 생각된다.

발기의 장례가 왕의 례로 진행되였으므로 무덤건설기간을 간략하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러므로 이 3～4개월은 왕들의 기본무덤을 건설하기 앞서 림시무덤을 건설한 기간으로 추산할수 있을것이다.

2．2．2．무덤건설규모와 구조형식

무덤의 규모는 벼슬등급에 따라 제한하였다.

《삼국사기》의 살림집규정에는 벼슬등급에 따라 살림집의 크기와 재료, 장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실례로 신라에서 진골은 방의 길이와 너비가 24자를 넘지 못하고 당기와를 잇지 못하며 부연을 달지 못한다. 6두품은 방의 길이와 너비는 21자를 넘지 않고 당기와를 잇지 못하며 부연과 덧보, 기둥받침, 물고기모양의 풍경, 금, 은, 놋쇠와 다섯가지 채색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삼국사기》권33 잡지2 색갈옷, 수레, 기물사용, 살림집

이러한 규정은 고구려시기 무덤건설에서도 존재하였을것이다. 당시 무덤은 령혼이 영원히 살게 될 장소, 래세의 집으로 간주되였기때문에 신분적인 등급에 따르는 구별을 두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무덤칸의 크기 특히는 주검칸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무덤주인공의 등급을 론하면서 벽화무덤의 인물풍속도주제의 무덤을 6개의 등급으로, 사신도주제의 무덤들을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무덤건설에서 무덤주인공의 벼슬등급에 따라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벼슬등급에 따르는 무덤의 구조형식규정이 있었다.

그것은 동시대에 존재한 돌각담무덤들과 돌칸흙무덤들의 구조와 크기에서 비슷한것

들이 많은 현상을 보고 알수 있다.

실례로 집안의 씨름무덤과 춤무덤의 구조와 크기에서는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집안의 왕릉급돌각담무덤들에서 제단과 달린 무덤들의 위치와 구조에서도 공통성이 많이 보인다.

무덤의 구조형식과 크기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였다.

고구려무덤의 구조형식이 크게는 돌각담무덤으로부터 돌칸흙무덤으로 변화되고 그안에서도 여러 단계로 변천되였다는 연구성과가 이미전에 발표되였다.

고구려돌각담무덤이 초기에는 무기단돌각담무덤, 기단돌각담무덤, 계단돌각담무덤으로 변천되면서 건설되였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규정의 변화과정으로도 볼수 있다.

실례로 광개토왕이 등극하여 자기 아버지의 무덤으로 건설한 천추무덤과 장수왕이 건설한 광개토왕의 무덤인 태왕릉은 20년정도의 간격으로 세워졌는데 구조형식과 크기, 무덤안에서 발견된 돌곽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후에 건설된 장군무덤에서는 내외부구조와 크기가 많이 달라졌다. 외부의 크기는 작아지고 내부인 무덤칸은 훨씬 커졌으며 돌곽이 없어지고 무덤칸안에 직접 2개의 관대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태왕릉이 건설된 414년부터 평양천도전인 427년까지의 10여년동안에 왕릉급무덤의 구조형식과 크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의미한다.

돌칸흙무덤의 구조형식과 크기는 해당 시기에 류행된 사상조류에 따라 크게 2단계로 변화되였다.

첫 단계에는 령혼불멸사상의 영향에 의하여 무덤칸이 살림집을 모방하였다. 실례로 고국원왕릉의 내부구조가 고구려궁전이나 살림집의 방배치방식을 모방하였고 크기가 최대규모라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학계에서 많이 론의되였다. 이때에는 벽화를 살아있을 때의 생활모습을 반영한 인물풍속도를 위주로 그렸다. 이때 무덤칸의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칸으로부터 두칸으로 변화되였다.

두번째 단계에는 불교의 류행과 더불어 무덤을 시신의 보관장소로 보면서 무덤칸내부를 단순한 외칸구조로 꾸리고 벽화는 사신도를 위주로 하면서 풍경화도 있었다.

특히 덕화리1호, 2호무덤을 비롯한 일부 무덤들에서 무덤천정의 구조를 여러단의 8각고임식으로 처리한 현상은 무덤을 불교의 탑아래에 있는 지궁(땅속의 궁전)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고구려무덤의 크기도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는데 특히 5세기이후에는 점차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갔다.

태왕릉에서 최고의 규모를 보여준 돌각담무덤은 얼마후에 건설된 장군무덤단계에 이르러 훨씬 작아졌으며 평양천도와 함께 건설된 동명왕릉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돌칸흙무덤화되면서 더 작아졌다.

태왕무덤봉분의 한변의 길이가 63m, 높이가 14m정도라면 장군무덤의 한변의 길이는 30m, 높이는 12m로 작아졌다.

동명왕릉(5세기 초엽 건설)에서는 무덤봉분기단의 길이가 22m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도 2～3단밖에 쌓지 않았다.

무덤의 규모를 작게 하는 이러한 경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여 왕릉급무덤들의 무덤칸크기를 점차 작게 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장군무덤의 무덤칸은 길이와 너비가 5.3∼5.5m, 동명왕릉의 무덤칸 한변의 길이는 4.2m이지만 5세기 이후에 건설된 수많은 고구려돌칸흙무덤들가운데서 무덤칸의 길이와 너비가 4m이상이 되는 무덤은 련꽃무덤뿐이다. 지어는 7세기 중엽의 왕릉인 강서큰무덤도 무덤칸의 길이가 3.15m, 너비가 3.18m밖에 안된다.

무덤에 배속된 릉원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고구려시기 릉원의 구성요소와 부지면적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집안일대 왕릉급무덤들의 릉원은 릉을 둘러싼 돌담장, 달린 무덤, 제단, 제당, 비석, 원림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릉원유적은 집안의 태왕릉주변에서 발견되였다. 태왕릉을 둘러싼 돌담장은 평면이 사다리형으로 되여있는데 무덤의 동, 서, 북쪽으로 100∼150m 되는 곳에 1m정도의 두께로 쌓아졌다.*

* 《집안고구려왕릉》(중문) 문물출판사 2004년 254~270페지

달린 무덤들은 태왕릉, 장군무덤 등의 대형돌각담무덤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였는데 대체로 일정하게 급수가 높은 편이다.

제단은 지금까지 돌각담무덤단계에서만 존재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실례로 태왕릉의 제단시설은 무덤의 동쪽으로 50∼68m정도 되는 곳에 두줄로 축조되였는데 그중 하나의 길이는 72∼74m, 너비는 7.5∼7.8m정도 된다.

릉원에는 비석도 세웠다.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5세기초 이전의 력대 고구려왕릉들에는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광개토왕릉에 처음으로 방대한 규모로 릉비를 세웠다.

릉원에는 무덤주변에 나무를 줄지어 심어 원림을 조성하였다.

고구려시기 《積石爲封列種松栢.(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줄을 지어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은 무덤주변에 나무를 심는것이 무덤건설에서 중요한 항목이였다는것을 의미한다.

* 《삼국지》 위서 고구려전

246년 고구려에 침입하였던 관구검은 위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것을 주장한 고구려사람 득래의 무덤을 헐지 말고 거기에 있는 나무도 베지 말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

이것은 일반통치배들의 무덤들에도 다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무덤주변에 나무를 줄지어 심게 하는것은 도시의 미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좋은 방책의 하나였다.

고구려시기 무덤은 대부분이 도시구획안에 건설되였으므로 국내성처럼 오랜 기간 수도로 존재하여 만여기의 무덤들이 집중되면 온 수도가 무덤천지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무덤을 쓰느라고 산림의 많은 면적을 채벌하였으므로 사태와 같은 큰물피해도 입을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무덤주변에 나무를 줄지어 심으면 많이 해결될수 있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건설된 돌칸흙무덤들에도 일부 릉원을 건설하였다.

동명왕릉의 릉원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동명왕릉이 있는 구릉지대에는 현재 약 40정보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200～300년 자란 소나무들이 뒤덮여있고 그속에는 16기의 달린 무덤들이 있다.

문헌기록에 고구려무덤들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고 한 사실과 고구려무덤벽화들에 보이는 나무그림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소나무를 형상한 그림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동명왕릉건설초기부터 무덤주변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볼수 있다.

동명왕릉의 앞쪽에는 부지면적이 3만㎡나 되는 넓은 절터가 있다. 여기에 있던 절간은 고구려시기 동명왕의 명복을 빌던 릉사였다. 발굴과정에 《정릉》, 《릉사》라고 쓴 질그릇쪼각이 발견되였는데 이것은 절간의 이름이 《정릉사》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덤과 절간을 결합시키는 릉원방식은 동아시아에서 동명왕릉의 건설과정에 처음으로 창조되였다. 그리고 동명왕릉의 서쪽 400m 되는 낮은 지대에는 고구려시기에 만들어진 진주못이 있다. 이 못은 당시 동명왕릉의 릉원안에 있던 시설의 하나였다.

고구려시기 무덤의 릉원은 그후 무덤의 구조와 규모가 간소화되면서 점차 축소되여갔다고 보인다. 그것은 강서세무덤을 비롯한 이후시기의 대표적인 무덤들에서 특별한 릉원시설이 발견되지 않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2. 2. 3. 무덤건설의 로력과 자금, 기자재

고구려시기 무덤의 건설에는 많은 로력과 자금이 소용되였다.

당시 이러한 무덤건설공사가 계속 진행되였으므로 그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건설로력에 대한 지휘와 모집규정

무덤건설로력에 대한 지휘는 주로 중앙과 지방의 군사지휘관이 책임지고 해당 지역의 사람들을 징발하여 보장하였다.

고구려시기 무덤건설로력에 대한 지휘체계와 건설로력모집과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집안의 천추무덤을 비롯한 유적유물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천추무덤에서는 《락랑 조장군》, 《장안 호장군》으로 읽을수 있는 글자들이 새겨진 기와쪼각들이 발견되였다. 이것은 천추무덤건설공사를 적어도 2명의 장군들이 지휘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지휘한 로력은 대체로 자기 지방사람들이였을것이다. 락랑 조장군이 거느린 로력은 평양에서 징발한 로력(백성이거나 군사)이였을것이며 장안 호장군이 거느린 로력은 아마도 전쟁과정에 잡아온 포로들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는 302년에도 현도성을 치고 잡아온 8 000여명의 포로들을 평양성건설을 위해 옮겨온 실례가 있다.

문헌기록들에는 고구려시기 성, 궁전건설과 보수를 비롯한 큰 공사는 다 전국각지의 백성들을 모아서 보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천추무덤이나 태왕릉과 같은 큰 무덤들의 공사량은 그에 못지 않으므로 로력보장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천추무덤건설에서 2명의 장군이 거느린 로력이 얼마나 되였겠는가를 연구해볼수 있다.

고구려시기 벼슬등급에 따라 거느릴수 있는 인원의 수가 규정되여있었다. 《한원》 고

려기에 의하면 말객(중랑장급)은 1 000명을 거느릴수 있었다. 소형은 정7품인데 북부 소형 고노자의 경우와 같이 작은 성(현급의 성)의 책임자인 재(중랑장급)로 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형인 재는 1 000명정도까지 거느릴수 있다.

《한원》 고려기에는 고구려의 무관제에서 말객우에 대모달(위장군)이 있다고 기록되여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북사》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백제에서 《방에는 10군이 있고 군에는 장수가 세사람 있어 덕솔로 임명하니 군대 1 100명이하 700명이상을 통솔한다.》*고 기록되였다.

＊《삼국사기》 권40 잡지9 무관

이 장수는 거느린 군사의 수가 1 100명이하인것으로 보아 말객(중랑장)급이였다고 본다.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장수들이 거느리는 인원의 수에서도 서로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장군은 말객보다 3배 많은 수(700～1 100명의 3배이면 2 000～3 000명정도)를 거느렸을것이다.

이것은 천추무덤건설에 동원된 로력자수를 4 000～6 000명정도로 볼수 있게 한다.

건설로력의 구성은 농민들이 기본이며 여러가지 기술로동을 진행할수 있는 수공업자들도 포함되여있었다.

무덤건설에서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토목공사는 농민들이 맡아서 진행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공사는 우수한 수공업자들이 맡아서 진행하게 되였다.

우선 고구려돌각담무덤은 막대한 량의 석재를 채취하고 가공하며 축조하는 석조물위주의 건축물이므로 많은 석공들이 필요하였을것이다. 새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의 뒤면에 《□□國烟□墓烟户合卄家石工四 烟户頭六人.(…국연 …수묘연호는 합하여 20가인데 석공이 넷이고 우두머리는 6명이다.)》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무덤의 정상관리에서도 돌가공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다 건설된 무덤을 관리하는 로력가운데서도 석공을 중요성원으로 규정하였다면 처음으로 돌을 가공하여 무덤을 축조하는 건설에서는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을것이다.

또한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목조구조물들을 맡아처리하는 목공, 건물에 씌우는 기와를 생산하는 와공, 지반을 닦고 흙을 다루며 석회를 구원내는 토공, 나무를 심고 못을 파서 릉원을 조성하는 정원사, 벽화를 그리는 화공 등 여러가지 기술력량이 동원되였을것이다.

실례로 집안에서 발견된 수기와막새에는 《십곡민조와소》라는 글이 있다.

이것은 기와를 황해남도지역에 존재하였던 십곡성의 전문적인 기와제작소에서 생산한것임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서북지역에 존재한 고조선유민들의 소국들에서 이런 형의 기와들을 일찍부터 생산리용하였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기와막새는 4세기경에 집안일대에 건설된 무덤들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아마도 오랜 기간의 경험을 축적한 황해남도지역의 수공업자들이 부역으로 끌려가 현지에서 생산하였던것 같다.

백제에서 588년에 왜에 보낸 수공업자들가운데 《와박사》가 있었는데 이런 기술자들이 고구려에도 존재하였을것이다.

무덤건설자금

고구려시기 무덤건설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고위급통치배들인 경우 대부분을 국고금으로 충당하였다.

덕흥리벽화무덤의 묘지명에는 《이 무덤을 건설하는데 만공수의 로력이 들고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술과 고기, 밥과 반찬은 다 헤아릴수 없으며 된장은 한창고분이나 먹었다.》고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무덤건설에 많은 물질적인 비용과 1만공수의 로력비가 들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백제와 신라의 자료를 가지고 따져볼수 있다.

백제의 개로왕이 무덤개축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를 벌려놓아 국고가 텅 비였다는것은 그 자금이 국고에서 나왔다는것을 의미한다.*[1]

신라의 자료를 보면 그 자금의 구체적인 량과 출처를 더 잘 알수 있다.

신라의 문무왕은 김유신이 죽었을 때 장례비용으로 채색비단 1 000필, 벼 2 000석을 주었다.*[2] 비슷한 시기에 강수는 사찬의 위품을 받고 록봉으로 벼 200여섬을 받았는데 죽은 다음 부조로 준 옷과 피륙이 특별히 많았다.*[3] 또한 전장에서 죽은 관창에게 준 장례비용은 당나라 명주 30필, 스무새베 30필, 곡식 100섬이였다.*[4]

*[1]《삼국사기》권3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
*[2]《삼국사기》권43 렬전 3 김유신 하
*[3]《삼국사기》권46 렬전 제6 강수
*[4]《삼국사기》권47 렬전 제7 관창

이것은 고위급통치배들은 물론 《공을 세운》 일반통치배들인 경우에도 무덤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의 대부분이 국고에서 보장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장자들의 매 가정에서 지출한 자금과 식량, 주변사람들이 준 부조들도 있었을것이므로 이것들은 모두 장례비용에 보태여졌을것이다.

이외에도 건설공사에 끌려나온 수많은 백성들의 로력과 식량구입비는 다 그들에게 강제로 들씌웠을것이다.

건설기자재

무덤건설에 리용된 기자재는 주로 장공인들을 비롯한 개인들이 부담하였다.

석재를 채취하고 가공하는 정대와 망치, 여러가지 도구를 만들어내는 야장도구, 목재를 채벌하고 가공하는 목공도구 등이 다 필요한 도구들이였다. 이런 도구들은 개인들의 손에 익어야 사용하기 쉽고 그것을 마련하는데도 큰 품이 들지 않으므로 다 장공인들이 자체로 보장하였을것이다.

무덤건설에 리용되는 석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수단은 소나 말, 달구지였다고 본다.

고려시기 경효(공민)왕릉을 건설하면서 공사자재운반에 끌려나왔던 소들이 수많이 죽어 길가에 늘어졌다는 기록은 중요한 방증자료로 된다.

고려시기인 1010년에 건립된 경상북도 례천군 《개심사석탑기》를 보면 이 돌탑을 쌓는데 광군 46대(1대는 25명이므로 46대는 1 150명)가 수레 18량, 소 1 000마리와 함께

동원되였다.

고려시기 석탑건설은 돌을 채취하여 다듬고 운반하여 축조하는 고구려의 돌각담무덤건설과 류사한 공정이며 다만 그 규모가 훨씬 작았을뿐이다.

석탑건설에 동원된 광군은 고려의 정규군이였으므로 그에 대한 지휘는 1명의 장군이 하였을것이다.

그러므로 2명의 장군이 지휘한 천추무덤건설공사에는 수레가 약 40량, 소는 2 000마리정도가 동원되였을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왕릉건설에 필요하였던 수레와 소의 량이였다.

무덤건설에 필요한 소와 말, 수레는 다 개인별로 준비하였다고 본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10년 사간원이 평양성증축공사에 대하여 《그곳(황해도)의 장정일군들은 각각 소와 말을 가지고 평양에 돌을 싣고가고있으며 로약자들과 부녀자들이 논밭에서 곡식을 걷어들여서는 그것을 동원된 사람들의 식량으로 운반하고있습니다.》*고 상소하였다.

* 《태종실록》 경인 10월

이러한것은 고구려시기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3. 결 론

고구려시기 무덤의 건설은 봉건통치배들이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뽐내려는 목적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감행한 고역적인 공사였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온 겨레의 운명을 지켜내는데 필수적인 방어축성물인 성곽건설을 항시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수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탕진한 무덤의 건설은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왕릉급의 무덤 몇기를 건설하는데 수도방어성 하나를 건설하는데 맞먹는 로력공수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끼친 봉건통치배들의 죄악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한다.

비록 봉건통치배들의 강요에 의하여 건설된 무덤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의 슬기와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다.

발전된 석조건축술과 우수한 벽화, 릉원의 못과 원림은 당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매우 높았다는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증견물로써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론문에서 진행한 고구려의 무덤건설규정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무덤제도의 일부분을 큰 선에서 해명한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고구려시기의 무덤건설분야에는 앞으로 해명하여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무덤건설은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과학과 기술이 적용된 종합적인 공사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정교한 석재가공과 조립, 벽화창작과 같이 과학기술적으로 어려

운 문제들을 국가적인 범위에서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당시 관청, 민간수공업기술자들을 동원시키고 그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도 무덤건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해명할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고구려의 발전된 무덤건설문제를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될수 있다.

실마리어 무덤립지, 무덤의 구조형식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조선의 민속놀이 윷놀이에 대한 분석

박사 부교수 **김 경 순**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윷놀이는 옛날부터 설명절때마다 우리 인민이 즐겨하는 좋은 오락의 하나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202페지)

윷놀이는 옛날부터 설명절때마다 우리 인민이 즐겨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윷놀이는 4개의 윷쪽(또는 윷가락)을 던져 나온 윷수의 결과에 따라 윷판에서 말을 전진시키며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윷놀이는 사람들의 지능을 계발시키고 천체의 운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놀이이다.

우리 나라에서 윷놀이는 고대부터 진행되여왔으나 그 놀이방법은 현재까지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고있다. 윷놀이는 그 명칭으로부터 놀이도구, 놀이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놀이인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력사와 더불어 자기의 모습을 보존해왔다.

지난날 주로 가정적범위에서 진행되던 윷놀이는 오늘 가정뿐아니라 사회적범위로 확대되여 경기적성격을 띠고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남녀로소 누구나가 사랑하는 대중놀이인 윷놀이의 전통을 고수하고 앞으로도 적극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윷놀이를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보호하고있다.

우리 나라 민속놀이 윷놀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연구가 진행되였다.

지금까지 윷놀이를 취급한 도서들인 《조선의 민속놀이》(군중문화출판사 1964년), 《조선의 민속전통》 5(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년), 《조선의 민속놀이연구》(사회과학출판사 주체93(2004)년) 등에서는 윷놀이의 유래와 놀이도구, 놀이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만 머무르고 이 놀이가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놀이라는데 대하여서는 거의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론문에서는 윷놀이의 유래와 놀이방법에 대한 선행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이 놀이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민속놀이이며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는 우수한 놀이라는데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 1. 윷놀이명칭과 놀이도구

윷놀이는 그 명칭이나 놀이도구로 볼 때 다른 민족의 민속놀이에는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놀이이다.

윷놀이는 무엇보다먼저 그 명칭이 고유한 우리 말로 되여있는 민속놀이이다.

윷놀이에 대하여 옛 기록들에서는 한자로 《사(柶)》*[1], 《사희(柶戱)》, 《척사(擲柶》*[2] 등으로 표기하였다.

*[1] 《중경지》 권10 부록

*[2] 《동국세시기》 12월 제석

윷놀이에 대한 여러가지 한자표기들에서 공통적인것은 《사》라는 글자이다. 즉 《사》라는 글자에 놀다,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를 붙임으로써 《사》를 가지고 노는 놀이라는 것을 나타내였다.

그런데 《사》는 윷이 아니라 숟가락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한나라때 편찬된 《설문》에 의하면 숟가락을 가리키는 한자로 《사》와 《비(匕)》가 있는데 제사때 례기로 쓰는 숟가락은 《사》라고 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숟가락은 《비》라고 한다고 썼다. 그리고 《비》는 지금의 밥숟가락(飯匙)이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반비(飯匕－밥숟가락), 생비(牲匕－제향때 쓰는 숟가락), 소비(疏匕－자루에 장식을 새긴 숟가락), 서비(挑匕－국물을 떠먹는 숟가락) 등이 있었는데 형태는 대체로 같다고 하였다.*

* 《사해》 사, 비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숟가락을 의미하는 《사》와 윷이 어떤 련관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내용적으로는 아무런 련관도 없다.

그것은 《동국세시기》의 저자가 윷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옛날 비(匕)에는 네가지가 있었기때문에 네가치(윷가락－필자)라는 뜻을 취하여 사(柶)라고 한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서술한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즉 이것은 윷가락이 4개 라는것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다른 나라에 있던 네종류의 숟가락과 인위적으로 맞추어 해설하고 우리 민족이 창조한 고유한 윷놀이를 한자로 표기한것에 불과하다.

* 《동국세시기》 12월 제석

봉건사가들이 편찬한 력사기록들에는 윷놀이를 한자로 표기했지만 민간에서는 이 놀이를 윷놀이라고 하면서 면면히 계승해왔으며 그 명칭도 오늘까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4개의 가락을 가지고 노는 놀이를 왜 윷놀이라고 하였겠는가.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고대에 우리 인민들이 창조한 창조물들가운데서 수자 4와 관련한것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수자 4와 관련한 고대의 창조물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제단시설이라고 말할수 있다.

고대제단들은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다.

선행연구성과에 의하면 평양시 룡성구역 화성동1호, 2호제단과 황해북도 연탄군 오덕리제단을 비롯하여 고대의 제단시설들은 대체로 배부른 4각형으로 되여있다.

화성동1호제단을 보면 네 모서리에 가공한 모서리돌들을 놓고 남북량쪽에는 가공한 돌 8개씩, 동서량쪽에는 7개씩 맞물려놓아 네면과 모서리가 밖으로 배부른 방형을 이루게 하였다. 화성동2호제단의 평면테두리도 1호제단과 마찬가지로 배부른 4각형으로 되여있다.

오덕리 1지점 1호제단유적은 길이 130cm, 너비 약 100cm, 두께 80cm정도의 큰돌들을 빙 둘러놓아 만든것으로서 평면륜곽이 배부른 4각형이다. 2지점 2호제단과 3지점 3호제단도 1지점 1호제단의 평면륜곽과 류사하다.

제사의식과 함께 천체에 대한 관측사업도 진행하였던 고대제단을 4각형으로 만든것은 고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의 하나였던 《천원지방설》(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을 반영하였기때문이라고 본다.

옛 문헌기록에서는 《천원지방설》이 윷가락에도 반영되였다고 하면서 가락의 둥근 부위는 하늘을, 평평한 부위는 땅을 본딴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였다.*

* 《송도지》 사도설

실지로 윷놀이에서는 땅을 본땄다고 하는 가락의 평평한 면이 젖혀진 개수에 따라 명칭을 달았는데 네면이 다 젖혀진것을 윷이라고 하였다.

수자 4는 1년 사계절과 농사를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다.

온대성기후대에 놓여있는 우리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분이 명백하였으며 오래전부터 농업을 기본생업으로 하여왔다. 우리 인민들은 일찍부터 농사를 짓는데서 소를 부림짐승으로 가장 많이 리용하였기때문에 지상세계를 반영한 4개의 평평한 가락이 다 젖혀진 상태를 소에 비유하여 윷(슝)이라고 명명했다고 본다. 《모》, 《윷》, 《개》, 《도》가 고대관직명인 마가(馬加), 우가(牛加), 구가(狗加), 저가(猪加)에서 유래되였다는것은 이미 해명된 문제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윷놀이명칭에는 사계절에 맞추어 농사를 기본생업으로 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이 반영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후시기에 한자를 숭상하면서 이른바 유식을 뽐내던 량반사대부들이 다른 나라에서 제사의례때 사용된 숟가락 4개와 윷가락 4개가 수자에서 음이 같은것만을 절대화한데로부터 인위적으로 《사》나 《척사》로 표현하였다고 본다.

만약 윷놀이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들속에서도 진행된 놀이였다면 그에 대한 공통적인 표기가 있었을것이다.

실례로 바둑과 장기를 들어 설명할수 있다. 바둑과 장기는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속에서 진행되는 놀이인데 그것을 표기하는 글자는 통일되여있다. 물론 구체적인 놀이방법은 민족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윷놀이가 동아시아의 어느 민족에게나 보편적인 놀이였다면 반드시 공통적인 명칭이 있었을것이나 그에 대하여서는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윷놀이가 우리 민족에게만 고유한 놀이였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해주는것이다.

윷놀이는 다음으로 놀이도구와 방법도 독특하다.

윷놀이도구로는 4개의 가락(쪽)과 4개의 말, 말판이 있었다. 윷은 나무 두가치를 둘로 쪼개여 네가락으로 하는데 길이가 세치가량 되게 하거나 혹은 콩알만큼 작게 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24사의 하나인 《수서》에는 백제사람들이 저포(樗蒲)를 놀았다고 기록되여있는데(投壺圍棊樗蒲…之戲行)* 이것은 윷놀이에 대한 잘못된 표기이며 또 당시로서는 윷에 대한 한자가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저포와 비슷하다고 보고 주관적으로 서술하였다고 본다.

윷놀이를 저포라고 잘못 기록하였다는것은 그 이후시기의 우리 나라와 중국의 력사책들에 우리 인민들이 저포를 놀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으며 다만 윷놀이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여있는 사실로서도 증명된다.

＊《수서》권81 백제전

그러면 윷놀이와 저포(樗蒲)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것이다.

윷놀이는 4개의 가락(쪽)과 4개의 말을 가지고 노는 놀이였다면 저포는 5개의 나무가락(후에는 돌, 옥, 상아, 뼈를 사용)과 6개의 말을 가지고 노는 놀이였다.

나무가락의 형태를 보아도 윷놀이에 사용하는 가락은 한면은 평평하게, 다른 면은 둥글게 깎아냄으로써 그것이 잘 굴러서 엎어질듯 하다가 젖혀지며 젖혀질듯 하다가 엎어지게 만들었다면 저포놀이에 쓰이는 5개의 나무가락은 우리의 윷가락과 비슷하나 량끝을 좁고 날카롭게 하였다. 그리고 윷가락은 색을 칠할수도 있고 나무의 자연색을 그대로 리용할수도 있었으나 저포놀이의 나무가락은 한면에는 검은색을 바르고 송아지를 그렸으며 다른 면에는 흰색을 바르고 꿩을 그렸다.*

＊《사해》저포, 5목

놀이도구가 다른데로부터 승부를 가르는 방법도 달랐다.

저포놀이에서는 5개의 나무가락을 던져나오는 수에 따라 로(사냥개), 치(꿩), 독(송아지), 효(올빼미)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한 점수를 주었는데 로가 최고점수였다.

이렇게 윷놀이와 저포는 놀이도구와 방법이 다르다.

보다 중요한것은 윷놀이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진행되고있으나 저포는 중국에서 고대의 놀이로만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윷놀이가 우리 인민들이 창안하여 오랜 력사적기간 전해온 조선민족의 놀이라는것을 확증해준다.

2. 2. 윷놀이에 반영된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고대부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온 우리 인민은 놀이 하나를 해도 기발한 착상과 지혜가 반영된 놀이들을 진행하였다.

그 대표적놀이가 바로 윷놀이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윷놀이에는 우리 인민들이 지니고있던 천문지식이 반영되여있다.

윷놀이에 천문지식이 반영되여있다는것은 우선 윷놀이도구의 하나인 말판에 그려진 윷판도형을 통하여 알수 있다.

윷을 쳐서 나오는 수에 따라 말을 움직여나가도록 작성된 윷판도형에는 천문우주관이 집약되여있다고 본다. 그것은 문헌자료들과 고고학적자료들을 통하여 증명할수 있다.

14세기 사람인 리색의 시에 윷놀이장면을 구수하게 읊은 내용과 함께 《단단 4.7방원국》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윷판의 가운데점인 방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그려진 28개의 점을 말한것이며 고려시기에 29밭으로 된 윷판도형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목은집》권35

이 기록에서 보는바와 같이 윷판에는 가운데점인 방을 중심으로 28개의 점이 있는데 이것은 별자리들을 표시한것이였다.

이에 대해서는《중경(개경－필자)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론하였다. 즉 윷판의 중심을 추성(樞星－북극성)으로 놓고 나머지 28점은 28수(宿)에 비유하였으며 윷놀이에서 종착점으로 가장 짧게 들어오는 길이 동지이고 가장 멀리 돌아서 들어오는 길이 하지이며 절반을 돌아 들어오는 길이 춘분과 추분을 상징한다고 해설하였다.*

*《중경지》권10 부록

28수는 하늘의 해길과 적도부근에 널려있는 천체들을 28개의 별자리로 나누고 거기에 붙인 고유한 이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천문관측에 28수를 리용하여왔다.

달이 해길부근의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운동하면서 하늘을 한번 도는 주기가 28일가량 된다는데 기초하여 28수가 나왔다. 28수에 의해서는 태양, 행성, 달, 혜성, 별찌들의 자리를 표시할수 있을뿐아니라 계절을 판정할수도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저녁이나 새벽에 어느 수(별자리)가 자오선을 지나는가에 의하여 계절을 알아냈다. 28수를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면 매개 구역에 7개의 수가 들어갔다.《목은집》에 쓴 4.7방원국이라는것은 바로 이것을 표현한것이였다.

19세기 중엽 리규경이 쓴《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도 윷판의 가운데점은 추성을 상징하고 주변에 배렬된것은 4개의 7숙을 상징한것이니 사방 각기 7수가 있어 4시(時)를 운행하는 의미라고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사희변증설

윷판도형에는 계절을 판정하는데 리용한 28수와 동지로부터 시작하여 해길을 등분하는데서 기준점이라고 할수 있는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이 표기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천체의 운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있었을뿐아니라 그것을 도형화하는데서도 기발한 착상을 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윷판도형에는 말이 전진하는 길을 4개 방향으로 구분하였는데 질러가는 가까운 길과 우회하여가는 3개의 길을 정하였다.

가장 가까운 길은 모밭과 방을 거쳐 먹임밭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 길은 12점이면 쉽게 나갈수 있는데 이 길을 바로 동지길이라고 하였다.

다음길은 모밭과 방을 지나 직선으로 진출했다가 먹임밭으로 나가거나 모밭을 돌아서 다음모밭에서 꺾이여 방을 지나 먹임밭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 길은 17점이면 날수 있는 길로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과 춘분길이라고 하였다.

가장 멀리 에도는 길은 모밭을 지나 방으로 한번도 들어서지 못하고 모밭만을 련속 돌아 먹임밭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 길은 21점이라야 나갈수 있는 길로서 하지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윷판도형에서는 한 평면우에 간단한 선과 점들로 1년 사계절을 표기하였고 사계절의 바뀜속에 한해가 흘러간다는것을 집약적으로 독특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러한 윷판도형이 언제 창안되였는가.

우에서 언급한 문헌자료들이 14세기 이후의것들이라고 하여 그때에 비로소 도형이 나왔다고 볼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천문관측술이 발전되여있었기때문이다.

고조선에서는 새벽에 별자리를 관측하여 그해의 풍년작황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삼국지》위서 권30 예

이것은 고대의 별자리관측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말해주며 아울러 윷판도형도 이때 나왔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윷놀이는 삼국시기에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여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에까지 널리 보급되였다.

최근에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였던 국내성북쪽의 우산무덤떼 3319호무덤 앞바위에서 인물화에 새긴 윷판도형이 발견되였는데 도형에 새겨진 점이 29점이라는것이 확인됨으로써 이후시기 윷판도형과의 계승관계가 밝혀지게 되였다.

이로부터 천문지식이 집약된 윷판도형은 윷놀이가 시작된 초시기부터 있었다고 볼수 있다.

8세기경에 나온《만엽집》의 기록들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4개의 가락을 가지고 노는 놀이에서 셋이 엎어지고 하나가 젖혀지면《쯔꾸》, 하나가 엎어지고 셋이 젖혀지면《고로》라고 하였다고 한다.*

＊《만엽집》권10, 권12, 권13

이것은 윷놀이에서 쓰인 우리 말인 도를 쯔꾸로, 걸을 고로라고 표현한것으로서 윷놀이방법이 일본에도 전수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려시기에도 윷놀이는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놀이로 되여있었다.

14세기 말엽에 출판된《목은집》의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집들에서는 서로 모여앉아 웃고 떠들며 윷놀이를 하였으며 머리흰 늙은이들까지도 29개 밭의 윷판에 홀수와 짝수로 나타나는 윷수의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여 승부를 겨루면서 즐거워 하였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윷놀이는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끄는 놀이의 하나였다.

15세기의 시인이였던 김시습은《선행과 함께 윷놀이를 하면서》라는 제목의 시에서 윷놀이의 흥미진진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상하였다.

우리 나라 윷가락은 쪽이 네개
말밭은 둘러서 다섯점씩
신수가 사나우면 개가 도로 되고
운수가 트이면 단숨에 모길이라
(《김시습작품집》문예출판사 1990년 64폐지)

이것은 단편적인 시구절이지만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윷놀이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윷놀이는 고대로부터 독특한 도형의 말판을 비롯한 정연한 놀이도구와 놀

이방법을 갖춘 완성된 놀이로서의 자기의 전통을 고수해왔다.

윷놀이에 천문지식이 반영되여있다는것은 또한 이 놀이를 하는 시기를 놓고서도 설명할수 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설명절을 계기로 윷놀이를 진행하여왔다.

19세기 전반기의 문헌인 《동국세시기》에는 섣달그믐날부터 윷놀이가 진행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있다.

《나무 두가치를 네쪽으로 짜갠것을 윷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세치가량 되게 하며 혹은 콩알같이 작게 하여 던지면서 노는것을 사희(윷놀이—역자)라고 한다. 네쪽이 엎어진것은 모요 네쪽이 젖혀진것은 윷이요 세쪽이 엎어지고 한쪽이 젖혀진것은 도요 두쪽이 엎어지고 두쪽이 젖혀진것은 개요 한쪽이 엎어지고 세쪽이 젖혀진것은 걸이라고 한다. 판은 29개 밭을 그리고 두사람이 마주 앉아 던지는데 각각 말 네개씩을 옮겨가되 도는 한밭씩 가고 개는 두밭씩 가고 걸은 세밭씩 가고 류(윷—역자)는 네밭씩 가고 모는 다섯밭씩 간다. 밭에는 돌아가는 길과 빠른 길이 있고 말은 빠르고 더딘 구분이 있음으로 하여 승부를 판단하게 되여있다. 새해가 시작될 때에는 이런 놀이가 제일 성행한다.》*

* 《동국세시기》 12월 제석

새해의 시작 즉 해가 바뀌는것이 천체의 운동과 관련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지식이다.

우리 인민들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자기의 자리길을 따라 운동하며 사계절의 바뀜속에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된다는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공고히 하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목적에서 설명절을 계기로 윷놀이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한편 생산활동에서 농업을 기본으로 하여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농사를 제철에 지을수 있도록 절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것도 사활적인 문제였는데 윷놀이에는 이런 요구도 반영되였다고 본다.

이것은 바로 윷놀이가 천문지식과 직접적으로 련관된 놀이라는것을 실증하여준다.

2. 3. 윷놀이방법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도 윷놀이가 대중적인 놀이로 계승발전되고있다.

전통적인 윷놀이방법은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되였다.

현재 진행하고있는 윷놀이방법과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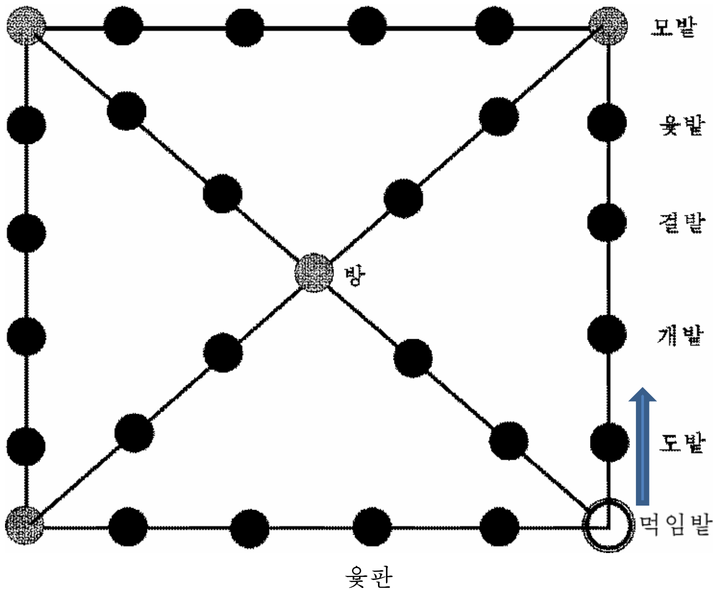
우선 윷쪽과 윷판, 말을 준비한다.

윷쪽은 4개로 한다. 매 윷쪽은 대체로 낮과 밤, 밝고 어두운것과 같은 시간적변화를 반영하여 안쪽은 흰색, 바깥쪽은 검은색으로 만든다. 윷쪽 4개중에서 2개 쪽의 흰색부분에 각각 검은 점을 찍어 후도와 두후도를 표식한다.

윷판의 크기는 놀이장의 규모에 따라 정한다.

윷판은 두터운 종이, 수지판, 나무합판 등으로 만들수 있다.

윷판에는 모두 29개의 점과 먹임밭, 출발선을 표시한다.



윷판

말은 모나무 또는 큰 도장같은것으로 할수 있는데 두편이 서로 다른 색갈로 하며 개수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대체로는 말을 10개로 한다.

놀이에서 윷쪽은 엎어지거나 젖혀지는 다섯가지 경우를 나타낸다.

셋이 엎어지고 하나가 젖혀지면 《도》라고 부르며 말은 1발을 전진한다. 둘이 엎어지고 둘이 젖혀지면 《개》라고 하며 말은 2발을 전진한다. 하나가 엎어지고 셋이 젖혀지면 《걸》이라고 부르며 말은 3발을 전진한다. 넷이 모두 젖혀지면 《윷》이라고 하며 말은 4발을 전진한다. 넷이 모두 엎어지면 《모》라고 부르며 말은 5발을 전진한다. 오늘날에는 후도와 두후도가 생겨 놀이가 더 재미나게 진행되고있다.

만일 윷쪽이 놀이판밖으로 튀여나가면 락판이라고 하여 무효로 되고 상대편에 순서를 넘긴다.

윷놀이는 두사람이 대전할수도 있지만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편을 갈라서 놀수 있다.

윷놀이는 어느편의 말들이 윷판의 자리길을 먼저 돌아나오는가에 따라 승부를 가른다. 그런것만큼 우선 윷수가 잘 나와야 하며 다음말을 어떻게 잘 쓰는가 하는데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다음 윷을 치며 말을 쓰는데서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① 윷을 쳐서 윷수가 나온 결과에 따라 말을 전진시키는것은 놀이조장의 의사에 따른다.

② 윷을 쳐서 모나 윷이 나오면 련속 윷을 쳐서 나온 점수를 종합하여 말을 쓴다.

③ 상대편의 말이 있는 밭에 자기의 말이 가면 상대편의 말을 잡으며 윷을 한번 더 칠수 있다.

④ 자기 말이 있는 밭에 또다시 자기 말이 가면 여러개의 말을 하나의 말과 같이 묶어 전진할수 있다.

⑤ 《후도》와 《두후도》가 나왔을 때 말쓰는 방법

· 윷을 쳐서 《후도》가 나오면 한밭, 《두후도》가 나오면 두발 자기가 온 길로 되돌아간다.

· 《도》밭에서 《두후도》가 나오면 먹임밭으로 갔다가 다시 《도》밭으로 와야 한다.

· 각이한 길을 따라 자기의 말이 먹임밭에 들어간 경우 《후도》 또는 《두후도》가 나오면 말들은 각각 자기가 온 길을 따라 되돌아간다.

⑥ 《앉은 석동산》, 《앉은 두석동산》이 되였을 때 말쓰는 방법

·《앉은 석동산》,《앉은 두석동산》은 출발선에서《모》발까지의 어느 한 발에서 3개, 6개의 말을 묶는것을 말한다.

자기편의 한사람이 윷을 쳐서《걸》이 나오고 다음사람도《걸》이 나오고 또 다음사람도《걸》이 나와 한 발에서 세개의 말이 련속 묶어진것을《앉은 석동산》이라고 한다.《앉은 두석동산》도 우와 같이 6개의 말이 한발에서 묶이운것을 말한다.

·《앉은 석동산》은 9발,《앉은 두석동산》은 18발을 나갈 때까지 상대편이 잡지 못한다. 그다음부터는 잡을수 있다.

·《앉은 석동산》은 9발,《앉은 두석동산》은 18발을 나갈 때까지 상대편의 말을 두개까지 붙여서 함께 갈수 있다. 그다음부터는 상대편의 말을 떼여놓는다.

·《앉은 석동산》,《앉은 두석동산》에 붙인 상대편 말은 자기 말이 따라가 잡을수 있다. 자기편 말도 우의 방법과 같이 상대편에게 잡힌다.

· 두편의《앉은 석동산》은 9발 가기 전에 잡을수 있다.《앉은 두석동산》도 같다.

⑦ 먹임발에서 말쓰는 방법

자기편의 어느 한 말이 놀이판을 다 돌아서 먹임발에 들어갔을 때에는 놀이판에 있는 자기 말들이 모두《동》을 낸 다음에《도》가 나와야 나올수 있다.

놀이판을 돌아《동》을 낼 때에는 반드시 한점의 여유를 둔다.

⑧ 윷을 쳤을 때 어느 한 윷쪽이 모로 서서 분간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윷쪽만 들어 다시 친 다음 윷수를 평가한다.

⑨ 윷을 쳐서 그 윷수에 따라 상대편의 말을 잡았을 경우 윷을 한번 더 칠수 있는데 이때《모》나《윷》이 나오면 말만 쓰고 윷은 다시 치지 않는다.

3. 결 론

윷놀이는 그 명칭이나 놀이도구와 방법, 노는 시기로 보아 우리 민족에게만 고유한 놀이이다.

윷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반영되여있는 지능놀이이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윷놀이는 오늘 자기의 독자성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세태가 반영되여있는 우수한 민속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민속놀이, 윷놀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지와 불굴의 기개를 시위한 광주학생운동

박사 부교수 **박 학 철**

1. 서 론

지금으로부터 90년전인 1929년 11월 청년학생들이 스스로 떨쳐일어나 대오를 짜고 노도와 같이 거리를 누비며 항쟁의 광장으로 달려나갔던 광주학생운동은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살이를 원치 않으며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억압착취하는 포악무도한 일제에 견결히 항거해 싸운다는것을 전세계에 힘있게 과시한 대중적인 반일투쟁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주학생운동은 일제식민지통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지와 불굴의 기개를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기세를 크게 북돋아주었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25페지)

지난 기간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많은 경우 1920년대 중엽이후 벌어진 대중운동의 테두리안에서 단편적으로 취급되였다.

광주학생운동에 대하여 1929년 10월 30일 광주－라주사이의 기차칸에서 일본인중학생이 조선녀학생을 희롱한것이 계기로 되여 폭발한 반일투쟁이라고 하면서 간단한 소개로 그치고있으며 다른 연구성과들은 거의나 없다.

한편 남조선학계에서는 《한국사》(현대편), 《한국민족운동사》(최근세편) 등의 도서들에서 광주학생운동에 대하여 일정하게 론하였으나 개별적인 일본인들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분석, 평가하고있다.

이 론문에서는 1920년대말 조선사회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강도 일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민족적분노와 울분의 폭발이였던 광주학생운동을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특징의 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 1.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3.1인민봉기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1919년 8월 《문화통치》를 선포하고 조선인민을 철저히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을 강행적으로 밀고나갔다.

3.1인민봉기직후인 1919년 4월 일제는 조선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교육은 서로 동일한 방침을 취할것. …요컨대 일본의 연장으로 인정하고 조선을 동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였다.(《하라 다까시일기》 일문 5 1965년 84페지)

3.1인민봉기이후 일제가 실시한《문화통치》가 종전의 무단통치와 구별되는 점은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반일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사상문화적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한것이였다.

따라서 일제는《문화통치》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교육정책을《개편》하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식민지노예교육체계를 재정비하려고 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였던 유미사꾸는 1919년 7월《소요와 교육》이라는 연설에서《독립운동(3.1인민봉기－필자)의 최대의 요인은 독립의욕》이며《이 독립의욕만은 결코 장래에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자기가 조선인이라고 생각하고있는 동안에는 모든 조선인가운데서 독립의욕의 소멸을 볼수 없을것이다. 그러면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소멸할 수단은 무엇인가. …첫째로 교육을 보급하고 리성을 발달시키는것이다.》고 떠벌이였다.(《조선교육문제관견》 일문 1936년 85~86페지)

일제는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1920년대에 새로운 식민지노예교육체계를《문화통치》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였다.

일제는 무단통치시기에 실시하던 민족차별에 기초한 각급 학교의 학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고 조선에 새로 대학을 내온다는《개편》조치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하여 1922년 2월 6일《칙령》19호로 악명높은《조선교육령》을 또다시 공포하였다.(《조선교육문제관견》 일문 1936년 123～127페지)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의 새 세대들의 반일항쟁의지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일제는 한편으로는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억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통하여 식민지통치의 사환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반교육체계를 꾸며냈던것이다.

일제가 떠벌인 교육정책의《개편》이 극히 기만적이고 교활한 체계라는것은 1920년대에 벌어진《학교창설》놀음에서 잘 나타났다.

3.1인민봉기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민족교육기관창설의 지향과 요구가 급격히 높아졌으며 일제에게 빼앗긴 민족교육기관을 되찾기 위한 반일애국교육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당시 우리 인민들이 벌린 학교창설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발현으로서 민족교육운동의 중요한 구성부문을 이루고있었으며 그것은 반일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있었다.

교활한 일제는 학교창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지향을 받아들여 국가정책으로《학교창설》을 보장하는듯이 가장해나섬으로써 애국적인 민족교육운동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고 그것을 기회로 저들의 식민지노예교육기관들을 꾸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일제는 먼저《3면1교》의 학교창설놀음을 벌렸다.

《3면1교》란 1919년부터 1922년까지의 기간에 3개 면에 1개씩의 6년제보통학교를 400개 내온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일제의《3면1교》책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1921년에 경성(서울)시내 보통학교들의 입학정형을 보면 학령아동 1만 8 000명중 입학자는 불과 1 900명으로서 취학률은 겨우 10.5%였다.(《동아일보》 1921년 4월 16일부)

《3면1교》정책이 무엇을 추구한것인가에 대해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 시바다가《교육시설을〈3면1교〉로 개정한 의도가 조선사람들의 향학열이 매우 성황하여 1면1교 혹은 의무교육제도와 같은 열렬한 요망이 일어나니 당국으로서는 이를 억누르려는데 있었다.》고 한 실토를 통해서 잘 알수 있다.(《조선통치비화》 일문 1937년 280~281페지)

일제는 고등교육부문에서도 관제대학설립놀음을 벌림으로써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요구되는 저들의 사환군을 직접 길러내고 당시 우리 나라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던 민립대학창설운동을 압살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1922년 3월 새로 개악한 《조선교육령》 제12조에서 《대학교육 및 그 예과교육은 대학령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다음해 11월에는 《대학창설위원회》를 따로 조작하여 관제대학창설을 위한 놀음을 벌렸다.

일제가 조작한 《대학창설위원회》에는 새로 부임한 학무국장 나가노를 비롯한 총독부의 관리들과 일본인교육관계자들이 망라되였으며 그 성원 17명가운데 조선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일제는 그후 1924년 5월 《칙령》 104호로 《경성제국대학관제》를 공포하고 경성제국대학이 일본본토의 《제국대학령》에 의거한다고 규정하였다.

2. 2. 광주학생운동의 원인과 동기

1929년 광주학생운동은 그 어떤 우발적인 계기에 의하여 벌어진 사건이 아니였으며 그 밑바닥에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라는 명백한 원인이 깔려있었다.

광주학생운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아래에 몇건의 자료를 제시한다.

《…그해에 온 가족이 먹고 살 식량을 눈을 딱 감고 팔아서 죽자하고 우편국에 들이민 눈물겨운 학비가 얼마나 많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하는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것이다. …절박한 경제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일시도 마음 편히 지낼 날이 없게 한다. …한사람의 조선청년이 가슴에 품고 물러서는 한장의 졸업증서야말로 걱정과 눈물의 결정이다.》(《해방》 1931년 3호)

《경상북도 대구고등보통학교에서는 금년 새 학기가 열리면서 돌연히 이 학교 2, 3, 4학년생도(학생) 14명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는데 …원인을 듣건대 수일전 이 학교 일본인 모교원이 일본력사를 가르치면서 지난 임진왜란때 공을 세운 충무공 리순신을 적이라고 말함으로 생도측에서는 리순신은 조선의 유명한 명장이란 말을 들었는데 적이라는것은 무슨 말인가고 질문을 제기한것으로 하여 이와 같은 괴상한 처분을 하였다더라.》(《동아일보》 1928년 4월 3일부)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시 조선의 청소년들앞에 가로놓인 헤여날 길 없는 생활난과 학비난, 항시적으로 강요당하는 민족적모욕에 기초한 노예교육, 졸업이후의 렬악한 취업형편 등은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에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였으며 그것은 곧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발발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청년학생들의 반일의식이 고조되고 민족적대립감정이 극도로 첨예해지고있던 1929년 10월 3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조선인학생들과 일본인학생들사이에 큰 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라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타고있던 통학렬차안에서 일본남학생들이 조선녀학생들에게 모욕적언사를 던지며 희롱하는 추태를 부리였으며 그들이 기차에서 내

려 개찰구로 나가려 할 때도 앞길을 가로막고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있던 조선남학생들이 일본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을 단죄하자 그들은 도리여 제편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센징》이라는 모욕적언사까지 써가며 도발적으로 싸움을 걸어왔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건발단의 직접원인은 일인(일본인—필자)중학생의 조선녀학생 희롱에서》라는 제목으로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월 30일에 광주에서 광주녀자고등보통학교에 통학하는 박기옥(18살)이라는 녀학생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경에 기차를 타고 광주로부터 라주로 돌아올 때에 …광주중학교 생도로서 역시 라주에서 통학하는 일본인학생 다나까, 후꾸다, 스에요시 등 세명이 앞을 막고 조롱을 하므로 박기옥은 아무 말없이 피하려 하였으나 전기 일본인학생들은 피하는 쪽을 쫓아다니며 희롱을 일층 심하게 하는것을 …광주고보생 박준채라는 조선인학생이 몇마디 말로써 그 무리함을 질책하였던바 일본인중학생들은 도리여 고함을 치며 덤벼들어 싸움이 되려 할 때 동 역구내에 있던 순사는 박준채의 뺨을 때리면서 … 돌아가게 하였으나 이것저것으로 압축된 기압과 같이 항상 불끈불끈하던것으로 필경 폭발될 기미를 가지고있던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였던것이다.》(《동아일보》 1929년 12월 28일 호외)

일제경찰의 횡포한 처사에 조선학생들은 격분하였다.

다음날인 10월 31일 통학렬차안에서 조선학생들은 일본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인학생들은 조선학생들의 응당한 제의에 응할 대신에 오히려 제편에서 싸움을 걸면서 그들을 마구 구타하는 망동을 부렸으며 그로 하여 차칸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였다. 이때 일본인차장은 《단속》을 구실로 조선학생들을 2등칸으로 끌고갔는데 거기에 있던 《광주일보》사의 기자들을 비롯한 일본인들은 사건전말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않고 일본학생들을 두둔하면서 조선인인 주제에 건방지다느니, 잘못은 조선학생들에게 있다느니 하는 폭언을 마구 던지였다.

한편 일제의 어용신문인 《광주일보》는 철면피하게도 이 사건의 진상을 외곡하여 보도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조선학생들에게 넘겨씌우고 사건의 진상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역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적반하장격으로 조선학생들에게 《죄》를 들씌우는 이 도발적사건은 극도의 민족차별정책으로 갖은 수모를 당해오던 조선청년학생들의 반일감정에 불을 달아주는 도화선으로 되였다.

11월 1일 일본인학생들과 교직원 300여명은 보총과 단도로 무장하고 광주역전으로 몰려가 통학렬차를 기다리는 50여명의 조선학생들에게 전날 저들의 횡포를 징계한 학생을 내놓으라고 웨쳐대면서 각종 흉기를 휘둘러댔다.

무장한 일본인학생, 교원들과 조선학생들사이에 격투가 벌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농업학교와 광주사범학교, 광주고등보통학교의 기숙사에 있던 150여명의 학생들이 즉시에 현장에 달려왔고 광주정미소로동자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은 맨주먹인 조선학생들에게 울타리를 헐고 장작더미를 헤쳐 몽둥이를 쥐여주며 학생들의 투쟁을 지원하였다.

이날 일본불량배들의 란동에 의해 수십명의 조선녀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부상당하였다.

10월 30일과 31일, 11월 1일 광주지역 학생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만행은 가혹한 식민지적억압과 착취로 하여 쌓인 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을 폭발하게 한 직접적인 동기로 되였다.

2. 3. 광주학생운동의 발발과 확대발전

2. 3. 1. 광주학생운동의 발발

광주시내 여러 학교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을 망라하고있던 《독서회》를 비롯한 비밀조직들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과 민족차별대우를 반대하는 광주시내 전체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중적반일투쟁을 벌릴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를 다그쳤다.

학생조직들은 시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삐라들을 등사, 배포하고 시위대렬을 편성하는것과 함께 투쟁개시날자를 11월 3일로 정하였다.

청년학생들이 11월 3일을 투쟁개시일로 정한것은 이날이 일제가 그 무슨 산전(누에고치생산—필자)6만석돌파를 《축하》하는 모임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이고 또 장날이여서 광주주변의 여러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또한 이날이 명치《천황》의 생일인것으로 하여 《경축》행사놀음에 많은 청년학생들이 끌려나오며 따라서 그들을 조직적으로 궐기시키는데 유리하였기때문이였다.

11월 3일의 투쟁은 우선 광주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이 《경축식》마당에서 일제가 강요하는 일본국가와 《신사참배》를 일제히 거부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경축식》에 모였던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하여 광주사범학교와 광주농업학교의 약 1 000명의 학생들은 대오를 지어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노예교육제도를 폭로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삐라를 뿌리면서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한 대오는 일본인들이 경영하는《광주일보》사를 포위하고 사건을 날조하여 보도한 신문기사를 당장 취소할것을 요구하면서 인쇄기들을 파괴하였다.

한편 광주우편국앞을 행진해가던 학생들의 한 대오는 일본인학생들과 치렬한 격투를 벌리였으며 광주역전에서도 180여명의 학생들이 일본인학생들과 싸움을 벌렸다. 광주역전에서 일본인학생들과 싸움을 벌리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기숙사에 남아있던 광주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과 광주농업학교의 학생들까지 달려와 합세함으로써 투쟁대렬은 삽시간에 200여명으로 늘어났다.

조선학생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현장에 출동한 일제경찰들은 총을 쏘고 소방차로 물을 뿌리면서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미쳐날뛰였으며 단도를 비롯한 흉기로 무장한 일본인학생, 교원들도 더욱 기승을 부리였다. 이 싸움에서 총칼을 휘두르는 일제경찰들과 일본인학생들의 폭력행위로 30여명의 조선학생들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같은 시각 광주도립병원쪽으로 행진하던 다른 한 학생대렬도 경찰저지선을 돌파하면서 완강히 투쟁하였지만 총칼을 휘두르는 일제경찰의 탄압행위로 해산되였다.

일제경찰의 탄압으로 일단 대오를 해산한 청년학생들은 이날 12시경에 광주고등보통학교의 강당에 모여 오전에 있은 투쟁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피흐르는 상처를 부여잡고 토론무대에 오른 학생들과 학생대표들은 모두가 끝까지

싸울것을 결의해나섰으며 일제경찰과 불량배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자기들도 일정한 무장을 갖추고 대오를 지어 시내중심거리를 행진할것을 결정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청년학생들은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농기구실에 들어가 문을 까부시고 곤봉과 괭이자루, 참대칼, 야구방망이, 양잠용기구들을 각각 휴대하고 학교운동장에 모여 25명씩 줄을 맞춰 대오를 다시 편성하였다.

13시경에 교문을 나온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시내로 행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광주시내의 다른 학교학생들과 산전6만석돌파《축하》모임에 참가하였다가 해산된 일반시민들까지도 이에 합세하여 대렬은 삽시에 3만명으로 늘어났다. 광주녀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녀학생들과 시민들도 거리로 달려나와 붕대와 약품을 가지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처치하고 물그릇을 안겨주는 등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학생들의 폭력적진출에 질겁한 일제경찰은 요소마다 진을 치고 그들의 투쟁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학생들의 세찬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이날의 투쟁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학생충돌, 초일광경》이라는 제목을 달고 《…시민들도 더 합하여 무려 3만인의 행렬이 되자 경찰서에서는 경종을 무수히 울리여 소방수를 출동케 하여 진무에 전력하니… 당시의 광주시내는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였다고 한다.》고 전하였다.(《동아일보》 1929년 12월 28일 호외)

광주시내의 학생들이 일제히 반일투쟁에 진입하자 당황망조한 일제경찰은 전라도 각지에 조직되여있던 저들의 무장《자위대》, 소방대, 재향군인단, 청년단, 전라남도청년련합회, 각 학교의 일본인교원, 일본인학부형들까지 총동원하여 학생탄압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증강된 일제경찰의 대대적인 탄압만행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쓰러졌으며 대오는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11월 3일 투쟁은 치렬한 격투를 동반하면서 일반시민들까지 합세한 수만명의 군중시위투쟁으로 벌어졌으며 그것은 일제에게 된 타격을 안기였다.

11월 3일의 투쟁은 일제의 야수적탄압만행으로 일단 해산되였으나 보다 큰 규모의 반일투쟁으로 확대발전하는데서 결정적계기로 되였다.

2．3．2. 광주학생운동의 확대발전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만행으로 말미암아 온 광주거리는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였으나 무차별적인 탄압이 가해질수록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은 더욱 고조되였다.

광주의 청년학생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만행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신문들을 통하여 삽시에 전국에 알려지게 되였다.

《조선일보》는 《단도든 중학생과 충돌되여 경찰로만 부족하여 소방대까지 출동》이라는 제목으로 《…3일 오전 11시경에 광주고보생이 …우편소앞 지점에서 단도를 휴대한 광주중학교(일본인학교－필자) 학생과 충돌되여 일대 란투를 연출한것이 실머리로 오래동안 울분에 쌓여있던 저기압은 드디여 폭발되였는데 이 급보를 접한 광주고보와 광주중학교의 학생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현장에 달려와서 삽시에 일대 수라장으로 연출하게 되였다. 이 급보를 접한 광주경찰서에서는 경찰서의 힘만으로는 진압할수가 없었던지 즉시 경종을 요란하게 울려 소방대를 출동케 하여 간신히 진압하였는데 광주고보 학생중에

는 …10여명이 안면과 머리에 부상을 당하고 치료받는중이라더라.》라고 보도하였다.(《조선일보》 1929년 11월 5일호)

이러한 소식에 접한 전국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한결같이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만행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각지의 청년학생들은 광주의 학생들처럼 들고일어나 일제와 싸울것을 결의하였으며 각계층 인민들도 광주학생운동을 지지성원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전국적범위에서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환경속에서 여러 사회단체들은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뭇고 이 사건을 더욱 여론화하는 운동을 벌렸다. 11월 9일을 전후하여 신간회, 조선청년총동맹, 조선학생전위동맹,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 많은 사회단체성원들이 제각기 광주에서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대중적인 반일투쟁을 계획하였다.

여러 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의 주의주장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격분을 금할수 없게 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반일투쟁이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었다.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그후 경성(서울)에서는 각지에 조직되여있던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사명을 띤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지도본부가 조직되였다.

여러 사회단체들의 림시적인 련합으로 이루어진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지도본부는 일제의 탄압과 삼엄한 경계에 대처할 전략전술적대책을 바로세우지 못하고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는 자체의 조직체계를 세우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리고 자파세력확장을 목적으로 한 종파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분파적책동 특히 일제가 조직내부에 박아넣은 밀정들에 의하여 전국적인 반일항쟁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확대발전시킬수 없었다.

그러나 전국각지에서는 반일투쟁들이 계속 벌어졌다.

광주의 청년학생들은 이미 결의했던 재 궐기를 위한 준비를 다그쳐나갔다.

독서회성원들을 비롯한 광주시내의 여러 학생조직대표들은 11월 10일 모임을 가지고 투쟁방법을 토의하는 한편 당일에 쓸 삐라와 격문을 작성, 인쇄하였으며 11월 11일에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던 투쟁날자를 장날인 11월 12일로 변경시켰다.

그들은 당일날 아침모임 혹은 첫 수업시간도중에 학교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반일선동연설을 하여 전교의 학생들을 불러일으키면 일시에 전체 학생들이 거리로 떨쳐나가 시위행진을 벌리기로 하고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에게 줄 격문 2 000여매를 작성하여 각 학교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1월 12일 광주시내의 각 학교학생들은 첫 수업시간도중에 일제히 고함을 치며 교실밖을 뛰쳐나와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아침모임시간을 계기로 4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창고안의 농기구를 꺼내들고 격문을 뿌리면서 거리로 뛰쳐나갔다. 광주사범학교와 광주농업학교, 광주녀자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광주시내의 모든 학교들에서 1 000여명의 학생들이 일시에 시위행진에 돌입하였다. 투쟁에 또다시 떨쳐나선 학생들은 격문을 뿌리고 반일적인 선동연설을 하면서 광주형무소를 향하여 행진해나갔다.

학생시위대렬이 광주도립병원앞에 이르자 일제경찰은 시위대렬을 향하여 소방차로

물을 뿌리고 총을 쏘아대면서 대렬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구호를 웨치면서 대렬을 수습하고 방향을 바꾸어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날 투쟁에는 전체 광주시내의 남녀학생들뿐아니라 그들의 학부형들과 일반시민들도 참가하였다.

일제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린접군에서까지 경찰력량을 끌어들였으며 300여명의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이날의 학생들의 투쟁소식은 곧 광주의 여러 주변지역들에 퍼져갔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라주와 목포를 비롯한 광주 주변지역의 청년학생들도 동맹휴학과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제일먼저 11월 19일 목포상업학교에서 광주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성원의 투쟁을 벌리였다. 이날 이 학교의 100여명의 조선인학생들은 대렬을 짓고 노래를 부르며 시내를 시위행진하였다. 학생들은 전선줄을 끊어버리여 학교와 경찰서와의 련계를 차단하는 한편 곳곳에 선전삐라를 뿌리고 만세를 웨치면서 반일시위투쟁을 벌렸으며 앞을 가로막는 100여명의 일제경찰의 포위를 뚫기 위하여 격투를 벌리면서 끝까지 투쟁하였다. 이 투쟁과정에 일제경찰은 40여명의 학생들과 신간회 목포지회성원들 10여명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광주학생들에 대한 지지성원의 투쟁은 라주에서도 세차게 벌어졌다. 광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광주학생사건이 라주와 광주간의 통학렬차안에서 발단된것으로 하여 그들의 반일감정은 더욱 고조되였다.

11월 27일 대규모적인 반일시위투쟁에 떨쳐나선 라주의 실업보습학교와 농업보습학교, 보통학교의 500여명 학생들은《조선학생대중 만세!》,《조선인본위의 교육제도를 실시하라!》등의 구호밑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자유를 찾자는 선전삐라를 뿌리면서 행진하였다.

라주시내학생들의 시위투쟁에 이어 11월 30일에는 라주 송정리국민학교 학생들도 투쟁에 떨쳐나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11월말까지 광주시내의 주변지역들에서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벌어진 학생들의 투쟁건수는 9건에 달하며 이 투쟁들에는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광주의 주변지역들에서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확대를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청년학생들은 각 도의 주요도시들에서 동맹휴학과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경성(서울)의 청년학생들의 12월투쟁은 대대적인 삐라살포로부터 시작되였다. 12월 2일 밤과 3일 새벽을 리용하여 경성고등보통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와 중앙고등보통학교, 녀자상업학교 등 각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시내곳곳의 건물과 담벽, 전선대 및 자기 학교건물들에 청년학생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삐라와 격문들을 붙이거나 뿌리여 새로운 투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삐라살포투쟁에 이어 대대적인 반일시위투쟁이 전개되였다. 12월 4일 경성휘문고등보통학교와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이 시위투쟁에 일떠섰으며 12월 5일에는 시내의 여러 학교학생들이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

경성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 300여명을 비롯한 시내 각 학교학생들은《광주학생을 석방하라!》,《광주학생이 석방될 때까지는 공부할수 없다.》고 웨치면서 시내 곳곳에 배치된 경찰의 저지선을 박차고 거리로 행진하였다.

투쟁에 나선 각 학교의 청년학생들은 9일 아침 학부형들과 전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으면서 식민지통치의 아성인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경찰관강습생까지 총동원된 수백명의 무장경찰이 청년학생들의 시위대렬을 향하여 총을 쏘아댔으나 격분한 학생들은 곳곳에서 경찰들과 치렬한 격투를 벌리면서 오래동안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일제경찰은 1 200여명의 학생들을 검거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동아일보》 1929년 12월 28일 호외)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평양에서도 힘차게 벌어졌다.

평양에서의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세차게 벌어졌으며 이곳 학생들은 평양의 청년학생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앞장에 섰다. 12월 14일 숭실전문학교의 학생들은 일제히 시험을 거부하고 시험장에서 백지를 제출하는것으로 항거하였으며 그에 뒤이어 16일과 17일 숭실중학교, 광성고등보통학교, 녀자고등보통학교, 농업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학생들이 동맹휴학과 백지동맹투쟁을 벌렸다.

12월기간 전국적으로 볼 때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시위, 동맹휴학, 백지동맹, 시험거부 등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졌으며 그 건수는 무려 60여건에 달하였다.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1930년 1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큰 규모로 확대발전하였다.

이 시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주요도시들의 범위를 벗어나 린접지역에로 번져갔으며 여기에 로동자, 농민들까지 합세함으로써 더욱 고조되였다.

1월 8일 신의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개학식때 교장의 훈시가 끝나자 한 학생이 연단에 뛰여올라 눈물을 뿌리며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연설을 하면서 전체 학생들이 퇴장할것과 즉시 시위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호응하여 전교의 학생들은 경찰과 학교당국자들의 포위를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가 반일시위투쟁을 벌리였다. 같은 날 개성에서도 송도고등보통학교와 호수돈녀자고등보통학교 학생 500여명이 격렬한 반일연설을 하고 삐라를 뿌리면서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는 8일 개학날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며 9일 아침 모임때에는 광주학생들을 성원할데 대한 연설에 이어 전체 학생들이 일제히 행렬을 지어 거리로 떨쳐나갔으며 여기에 호수돈녀자고등보통학교 250여명의 학생들까지 합류되여 대렬은 삽시에 500여명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은 남대문부근까지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진행하였으며 탄압에 동원된 무장경찰들과의 충돌을 벌리면서 파출소앞까지 전진하였다.

1월 11일 함흥영생고등보통학교 학생 400여명은 아침모임을 마친 후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성원하기 위한 선동연설을 하면서 함흥영생고등녀학교 학생들과 합류하여 만세시위투쟁을 벌렸다. 이날 학생들은 경성(서울)의 조선총독부까지 쳐들어갈 충천한 기세로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1월 14일 평양숭인상업학교 400여명의 학생들은 만세시위투쟁을 벌리려다가 일제경찰에 저지되고 많은 학생들이 체포된 조건에서도 악대를 앞세우고 종로일대에 각종 삐라

들을 뿌리면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반대하며 구속자를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여 강력한 시위투쟁을 벌렸다.

1월 21일 평양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또다시 투쟁에 떨쳐나 앞을 가로막는 경찰들과 격투를 하면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각 도의 주요도시들뿐아니라 가까운 부, 군들까지에도 급속히 파급되여 1930년 1월에 들어와서는 전국의 13개 도를 휩쓸었다.

이 시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도 더욱 전개되였다.

부산방직공장의 2 300여명 로동자들은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지지성원의 표시로 1월 9일 총파업을 단행하고 임금인상, 8시간로동제의 실시,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대우페지 등의 요구조건을 들고 투쟁에 일떠섰다. 일제가 경찰, 재향군인, 소방대 등을 총동원하여 파업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공장문을 페쇄하며 녀직공 800여명을 기숙사안에 감금하여 외부와의 련락을 차단하는 등 파업진압에 미쳐날뛰였으나 그들은 삐라와 격문을 살포하면서 시위행진을 벌렸으며 기숙사에 감금된 녀직공들도 단식투쟁으로 항거하였다.

함남로동조합의 300여명 로동자들이 동정파업을 일으킨것을 비롯하여 부산방직공장 로동자들의 파업투쟁 등 광주학생운동을 지지성원하는 파업투쟁이 여러곳에서 일어났다.

한편 김해, 홍남, 천안 등 각지의 광범한 농민들도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에 고무되여 부산제2상업학교를 비롯한 부산시안의 청년학생들은 부산방직공장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벌어지던 1월 12일과 13일사이에 로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벌림으로써 일제경찰을 당황망조케 하였다.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들은《학원에 대한 경찰간섭 절대반대!》,《광주학생에게 가해한자를 엄벌하라!》,《광주학생피검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라!》,《식민지노예교육제도 절대반대!》등의 구호를 들고 시위투쟁을 벌렸다.

원산에서도 17일 10시 청년학생들이 수업종이 울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여기에 원산루씨녀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까지 호응하여 대렬은 급속히 늘어났다. 그들은 원산주재소앞에서부터 행렬을 짓고《피검된 학생들을 석방하지 않겠으면 우리들도 다같이 체포하라!》고 웨치면서 원산경찰서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원산부두로동자들이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였다.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1930년 2월과 3월에도 계속 벌어졌다.

이 기간에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검거구속된 학생들에 대한 일제의《공판》놀음을 반대하고 일제경찰의 만행을 폭로규탄하는 방향에서 주로 벌어졌다.

2월 19일과 20일에 광주학생사건관계자 49명의 학생들에 대한 2차《공판》이 광주에서 벌어지자 일제의 부당한《공판》을 반대하는 투쟁들이 전개되였다.《공판》소식이《조선일보》2월 21일과 22일부에 게재되자 전국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그를 단죄하여 다시금 투쟁에 떨쳐나섰다.

공판 당일인 2월 19일 광주의 청년학생들은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경성(서울)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10여개의 학교학생들은 일제히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다.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한 교원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철창속에서 철

쇄를 차고 《피고》로 법정에 나서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과 학교당국의 처사를 반대하여 결연히 사직하였으며 개성녀자상업학교의 한 교원은 일제경찰이 학생들의 투쟁을 진압하려고 교실안으로 마구 들어오려고 하자 《교실에는 경찰이 들어올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의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광주에서는 철창속에 갇힌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재감학생부형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일제의 《공판》당시 경찰이 저지른 죄행을 기록한 문건들을 등사하여 전국에 발송하면서 일제의 불법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2월 27일 녕변에서는 소림보통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이 선두가 되여 격문을 산포하고 기발을 흔들며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어린아이들까지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고 구호를 웨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키고 청년학생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일제경찰의 모진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투쟁은 2월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50여건이나 벌어졌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3.1운동기념일을 계기로 평양과 경성(서울), 함흥, 경성(함경북도), 김해, 삼례 등 전국각지에서 벌어졌다. 3월 1일과 2일 경성(서울)에서는 보성전문학교와 법학전문학교를 비롯하여 중앙고등보통학교, 경신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 중동학교, 배제고등보통학교 등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3월 5일에는 회령상업학교의 학생들이 동맹휴학투쟁을 단행하였으며 녕변, 박천, 삼례, 려수, 성진, 홍원 등 전국각지의 학교들에서 동맹휴학투쟁들이 벌어졌다.

이 시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감옥에서도 적극 벌어졌다. 3월 1일을 맞으며 광주형무소를 비롯한 감옥들에 갇힌 학생들은 일제히 감방벽을 두드리며 《독립만세!》를 웨치고 감방으로 들어온 밥그릇을 깨버리고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단식투쟁을 벌렸다. 배재고등보통학교 5학년생인 한 학생은 자기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죄행》을 말하라는 재판관의 요구에 대해 자기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 기발을 대오의 앞장에서 흔들며 나가던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피흔적이 생생한 기발을 재판관앞에 펼쳐보이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국내에서 활발히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중국동북지방과 연해주, 일본 등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던 해외의 여러 지역들에까지 번져갔다.

1월 12일 북평에 살고있던 동포들은 화북대학강당에서 림시대회를 열고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진상보고를 청취한 후 반일투쟁선언서를 발표하였으며 1월 28일 상해에서도 1 000여명의 동포들이 일제의 만행을 단죄하는 군중대회를 열고 상해주재 일본령사관을 향하여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울라지보스또크와 하바롭스크 등지에서도 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투쟁들이 진행되였으며 일본에서 공부하는 조선인학생들속에서도 투쟁열기가 세차게 타올랐다.

그러나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세차게 벌어진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반일투쟁은 많은 경우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책동에 의하여 실패로 끝나고말았다.

2．4．광주학생운동의 특징

광주학생운동은 3.1인민봉기와 6.10만세시위투쟁과 더불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폭압책동에 대한 조선청년학생들의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으며 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 용감성을 남김없이 과시한 의의있는 투쟁이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큰 타격을 준 광주학생운동은 이전시기에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투쟁과 차이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투쟁목표와 구호가 이전의 투쟁들보다 뚜렷하게 제시되고 조직화수준이 훨씬 높아진것이였다.

광주학생운동당시 청년학생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요구가 반영된 견결한 반일투쟁구호들을 제시하고 과감히 투쟁하였다.

11월 12일 투쟁에 떨쳐나선 광주의 청년학생들은《용감히 싸우라, 학생대중아!》라는 제목밑에《검거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자! 교내경찰관침입을 반대한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조선인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자!》는 구호를 제기하였다.(《현대사자료》 일문 제29권 미스즈서방 1972년 366페지)

라주실업보습학교와 농업보습학교, 보통학교의 학생들도 11월 27일《학생대중이여! 아느냐! 우리들이 어떠한 강압과 폭압을 받고있는가?》라는 표제밑에《보라, 광주학생충돌사건을! 그들의 편협한 행동과 포악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가? 사태가 학생사건이므로 학교당국에 일임하여 해결하게 하는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관 또는 경찰관의 출동은 무슨 망동이냐? 우리도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있어야 할것이다. 오늘날 어찌하여 이와 같은 압박을 받고있는것인가. 우리는 힘을 가지고 싸워서 자유를 획득할것이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위로서 대중의 각성을 높일것이다. 피압박민족해방 만세! 식민지탄압정치에 절대반대하라!》는 격조높은 내용의 구호를 제기하였다.(《조선에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일문 조선총독부 1930년 72페지)

다음해 1월 11일 투쟁에 궐기한 함흥상업학교와 함흥영생고등보통학교 학생들역시《모여라, 싸워라, 피압박민중이여! 3천리강산을 붉은 피로 화강하더라도 싸워라! 맨손을 서로 잡고 우리의 원쑤인 지배계급을 향하여!》라는 구호를 내들고 일제경찰과의 치렬한 격전을 벌렸다.(《형공》 일문 제76호 1930년 3월 27일 경성복심법원 형사부)

보는바와 같이 당시 청년학생들이 제기한 구호들에는 3.1인민봉기나 6.10만세시위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이 제기하였던 구호보다 명백한 요구조건들이 제기되고있는것이 주목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식민지노예교육의 반대와 조선인본위의 교육제도의 수립,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며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탄압을 반대하고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촉구하는것과 같은 내용의 투쟁목표와 구호가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조직화수준의 측면에서도 광주학생운동은 이전시기의 청년학생들의 투쟁보다 발전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한 1929년 11월초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에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동맹휴학 및 시위투쟁을 비롯한 각종 반일투쟁들에 참가한 학교수는 총 194개였으며 그에 참가한 학생수는 무려 6만여명에 달하였다.

그것을 각 도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각 도별	중등 및 전문학교		초등학교		계
	관공립	사립	공립	사립	
평안남도	8	10	5	4	27
평안북도	2	5	7		14
황 해 도	2	–	1		3
함경북도	9	–	9	1	19
함경남도	5	3	3	1	12
강 원 도	2	–	–	–	2
경 기 도	12	31	–	3	46
전라북도	3	4	–	–	7
전라남도	9	2	11	–	22
충청북도	3	–	3	–	6
충청남도	7	1	3	–	11
경상남도	8	3	9	–	20
경상북도	5	–	–	–	5
합계	75	59	51	9	194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1929년 10월－1930년 3월 참조)
(《현대사자료》 일문 제29권 참조)

이러한 사실들은 그 이전시기의 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경향으로서 이 시기 청년학생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자각과 반일의식이 훨씬 높아졌음을 보여주고있다.

2. 5. 광주학생운동이 남긴 교훈

광주학생운동은 1920년대말 우리 나라의 청년학생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벌린 대중적인 항쟁으로서 조선인민의 민족적기개를 떨치고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큰 타격을 준 의의있는 투쟁이였다.

광주학생운동은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시위한 투쟁이였다.

일제는 광주학생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수상의 총지휘밑에 군대와 경찰, 《재향군인회》와 소방대 등 수많은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으며 우리 인민과 조선청년학생들의 투지를 꺾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일제의 류혈적탄압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제놈들과 싸워 놈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조선인민은 절대로 일제의 노예가 아니며 자주성을 가진 존엄있는 민족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은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반일투쟁을 련속적으로 유발시키는데서 기폭제적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식민지나라의 청년학생들은 어느 계급, 계층보다 먼저 각성하고 반제투쟁에 일떠설뿐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각성을 촉진시키고 그들속에 투쟁의 씨앗을 뿌리는 매개자적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학생운동은 그자체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큰 타격으로 되였을뿐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민족의식, 계급의식을 크게 각성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투쟁에 합류시켰다. 평양과 함흥, 경성(서울)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학생들의 투쟁에 합류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식민지통치를 마비상태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은 여러가지 제한성으로 하여 일제의 탄압을 막아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말았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광주학생운동의 교훈은 첫째로 사회의 진보와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혁명운동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혁명적당의 령도는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함으로 하여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적규모에서 치렬하게 벌어졌지만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광주학생운동당시 이미 조직되였던 조선공산당은 종파분자들의 파쟁에 의하여 해산되였으며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1920년대초부터 앙양되기 시작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자파세력확장에 리용하려고 책동하였다.

한편 광주학생사건이 발발하자 신간회를 비롯하여 조선학생전위동맹, 조선과학연구회, 조선청년총동맹 등 여러 대중단체들은 제각기 진상을 조사하고 자기들대로의 투쟁계획을 세운다고는 하였지만 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지 못하고 정확한 투쟁방도를 제기하지 못함으로 하여 투쟁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게 하였다.

신간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성원들과 애국적학생들을 망라하여 조직된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지도본부는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진상조사와 일반적인 격문작성에만 몰두하면서 전국적규모에서 벌어지는 청년학생들의 운동에 정확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전국적인 항쟁에 대하여 론하면서 각 학교의 학생대표들에게 《…먼저 학교에 대한 맹휴조건으로서 형식상 진정서를 제출하고 선동연설을 하며 만세를 부르면서 교문을 벗어나 시위운동을 진행할것, 얼마간씩 사이두고 대렬을 지어 행진한다면 시위운동의 목적은 달성하는것이고 만약의 경우 교문을 벗어날 때에 경찰관이 제지한다면 맹휴로서 그치며 해산해버려도 민심을 소란시킨 목적은 달성되는것이다.》고 지시하였다.(《불온격문산포사건검거의 건》 일문 제17268호 18페지)

보는바와 같이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지도본부는 학생운동의 목적을 뚜렷하게 제기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투쟁의 목적을 《민심을 소란시키는것》으로 국한시켰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해 피와 생명까지 바쳐 싸우려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의지와 각오와는 거리가 먼것으로서 운동지도층의 계급적제한성으로부터 출발한 소부르죠아적소심성과 평화주의, 우유부단성의 직접적표현이였다.

광주학생운동의 전 과정은 청년운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

자면 반드시 로동계급의 당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광주학생운동의 교훈은 둘째로 혁명운동에서 승리하자면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광주학생운동당시 종파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은 그 지도층에 머리를 들이밀고 이 운동을 저들의 야욕실현에 리용하려고 책동하였으며 종당에는 투쟁을 실패로 이끌어갔다.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책동이 강화되고 모든 형태의 반일투쟁이 비법화된 당시의 조건에서 합법적성격을 띤 신간회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다면 성과를 거둘수도 있었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신간회안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거부하였으며 로농동맹에 기초한 반일민족통일전선 그자체를 반대하였다.

엠엘파를 비롯한 종파분자들은 《모든것은 신간회를 통하여》라는 구호밑에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그속에 용해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간회는 모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이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와서 다른 동맹자와 같이 투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그 누구라도 여기에서 헤게모니를 운운하는것은 무의미한 동시에 또한 불가한 일이 아니면 안될것이다.》고 하면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거부하였다.(《리론투쟁》 1928년 3월호 21페지)

종파분자들은 자기 파벌의 《혁명성》을 시위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투쟁을 조직하여 학생들이 무모한 희생을 내게 하였으며 반대로 자기 산하의 력량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투쟁에 일떠선 청년학생들을 해산시키는 행동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학생투쟁이 일제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한도에서 온화한 합법적호소에 그치도록 하였으며 자기들내부에서 서로 반목질시하고 다른 파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제경찰에 사전계획을 밀고하는 행위까지도 감행하였다.

그들은 12월 5일 경성(서울)에서 반일시위투쟁을 계획하고는 그에 앞서 2일과 3일 삐라살포를 조직함으로써 일제경찰에 사전탄압의 구실을 주었으며 12월 5일 전국적인 학생운동을 일으킬 과업을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학생전위동맹산하 학생대표들에게 주면서 《…경찰관의 경계가 엄중하다면 그 마당에서 해산하라.》고까지 하였다.(《불온격문산포사건검거의 건》 일문 제17268호 24페지)

광주학생운동이 벌어진 전기간에 발로된 종파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은 파벌을 청산하고 대오의 사상의지적, 조직적단결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거둘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광주학생운동의 교훈은 셋째로 혁명운동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청년운동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하나로 결합되여 통일적과정속에서 진행되며 강력한 무력적담보밑에 전개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반일투쟁은 우리 인민앞에 나선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과업이였으며 청년학생들만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공통된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지도부에 들어앉은 종파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은 학생운동의 전국적규모에로의 확대를 한사코 반대하였으며 부산방직공장 로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벌어진 로동자, 농민들의 련대성투쟁을 학생운동과 결합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과 로동자, 농민들의 반일투쟁은 하나의 통일적과정에서 진행되지 못하였고 종당에는 각개격파되였으며 얼마든지 거둘수 있었던 성과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무장으로 맞서지 못한것도 광주학생운동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인 반일투쟁으로 발전하자 일제는 전국에 비상경계망을 펴고 경찰들과 함께 2개 련대의 정규무력까지 동원하여 적수공권의 조선학생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경찰들과 기마경관대, 경찰관강습생, 재향군인단, 청년단, 소방대원들을 기관총과 보총, 권총과 일본도로 무장시켜 투쟁진압에 내몰았다. 1930년 1월 15일과 16일사이에 경성(서울)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의 수는 매일 1 700여명에 달하였고 동원된 자동차수는 140여대나 되였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일제는 완전무장한 2개 련대의 군대병력까지 동원하였으며 50여명의 학생들을 학살하고 1 600여명을 검거투옥하였다.(《최근에 있어서의 조선의 치안상황》 일문 1934년 참고)

광주에서의 일제의 탄압만행에 대하여 당시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현재 광주는 계엄상태에 빠지고 조선인 대 일본인의 처참비장한 시가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붉은 피가 랑자한 시체는 거리에 2중, 3중으로 쌓여있다. …》(《광주학생사건과 그 영향》 일문 총독부경무국 1929년 38페지)

그러나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맞설만 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일제의 류혈적인 탄압을 막아내지 못하고 투쟁은 실패로 끝나고말았다.

3. 결 론

탁월한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실패와 좌절만을 겪어야 했던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일찌기 청년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묶어세우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의 홰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실천투쟁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의 7.27을 안아온 청년들은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받들어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세인을 경

탄시키는 위훈을 세웠다.

류례없이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철석의 신념으로 가슴불태우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우리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이룩한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은 수령을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조국의 부강번영도, 청년들의 보람찬 삶도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력사에 뚜렷이 새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들이라고 하시였다.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 청년은 어느때나 있었고 이름을 날린 청년들도 있었지만 오늘의 시대처럼 모든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떨치는 보람찬 청춘의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의 청년들은 청년중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모든 청년들을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는 위대한 우리 당의 품속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새로운 최전성기를 펼쳐나갈것이다.

실마리어 학생운동, 반일투쟁, 노예교육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과 제한성

최 성 우

1. 서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일정한 력사적환경속에서 발생발전하여 사람들의 운명개척과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나 리론, 력사적사실과 유적유물들입니다.》

사회과학연구에서 력사주의원칙을 옳게 구현하여 지난 기간에 제기되였던 문제들을 옳바로 밝혀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것은 지금은 물론 먼 앞날에 가서도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서유럽나라들에서는 봉건적사회관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사회관계가 발생하던 시기에 신흥부르죠아지의 대표자들과 귀족계급의 일부 선진분자들에 의하여 반그리스도교적이며 반봉건적인 인문주의사상이 발생하였다.

14～16세기에 서유럽에서는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유럽근대문화의 시초를 마련하기 위한 운동인 문예부흥이 일어났다. 문예부흥은 14세기에 이딸리아에서 먼저 일어난 후 15～16세기사이에 에스빠냐, 프랑스, 영국,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휩쓸면서 과학과 문화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며 근대유럽문화발전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문예부흥기에 문학과 예술분야만이 아니라 력사학분야에서도 신흥부르죠아지의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사관과 리론, 서술방법들이 발생하여 서유럽력사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된 인문주의력사학은 서유럽에서 신학적이며 봉건적인 력사학을 타파하고 근대적인 력사학의 시초를 마련함으로써 근대력사학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인문주의력사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것은 학술적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론문에서는 지난 시기 학계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과 그 제한성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 1. 인문주의력사학의 발생

14～16세기 유럽에서 신흥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사상적으로 대변한 인문주의사상이 하나의 시대적인 사조로 널리 퍼지고 그에 기초한 문예부흥운동이 벌어지면서 력사학분야에서도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한 인문주의력사학이 발생하였다.

서유럽에서 인문주의력사학이 발생하게 된것은 우선 14～16세기에 이르러 봉건적억압과 착취, 반동적인 그리스도교회의 정신적지배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봉건, 반교회투쟁이 맹렬히 벌어져 봉건제도가 붕괴기에 처하게 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인민들의 강력한 반봉건, 반교회투쟁에 의하여 봉건제도가 붕괴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신학적이며 봉건적인 력사학도 파산에 직면하게 되였다.

서유럽에서 인문주의력사학이 발생하게 된것은 또한 봉건적사회관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관계가 발생하면서 신흥부르죠아지들의 리해관계를 사상적으로 대변한 인문주의사상이 출현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봉건제도가 쇠퇴하고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는데 따라 유럽에서는 14～16세기에 신흥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대변한 인문주의사상이 하나의 시대적인 사조로 널리 퍼지게 되였다. 인문주의사상이 널리 전파되면서 신흥부르죠아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한 인문주의사관이 출현하고 그에 기초한 인문주의력사학이 발생하고 발전하게 되였다.

유럽에서 인문주의력사학의 첫 발생지는 문예부흥의 발원지였던 이딸리아의 피렌쩨였다.

이딸리아에서 인문주의적력사서술의 첫시작은 《르네쌍스문화의 개척자이며 최초의 근대인》(《서양사학사상사》 일문 길천홍문관 1970년 44페지)이라고 불리운 프란체스꼬 뻬뜨라르까(1304－1374)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그는 로마의 이름있는 정치가들과 군사가들의 전기인 《명인전》을 썼다. 한편 보까치오(1313－1375)는 이브로부터 당시의 나뽈리녀왕이였던 죠안나에 이르기까지 무려 140여명에 달하는 서방력사에 이름있는 녀성들에 대하여 서술한 《녀류명인전》과 단떼의 전기인 《단떼전》을 썼다.

신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그 성격을 보여주려고 시도한 뻬뜨라르까와 보까치오의 전기서술은 중세의 신학적인 력사서술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것이였다. 그러나 력사적사실에 어긋나게 인물들을 지나치게 리상화하거나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하여 만화적인 개소들을 많이 서술하는 등 력사적인 내용과 문학적인 묘사가 뒤섞여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뻬뜨라르까와 보까치오에 의하여 력사서술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그후 레오나르드 부르니 아레티노(1369－1444)를 비롯한 피렌쩨의 사가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피렌쩨의 사가들은 종전의 그리스도교리설명에 복종하던 력사서술을 배격하고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력사서술을 진행하였다. 즉 하나는 진, 선, 미를 탐구하는 순수 학술적인 방향에서, 다른 하나는 통치계급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하여 정치적인 교훈을 줄것을 목적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피렌쩨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였던 력사서술의 새로운 경향은 베니스, 나뽈리, 밀라노, 법왕령, 만뚜바, 제노아 등지에로 퍼지였다.

이처럼 피렌쩨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났던 력사서술에서 새로운 경향은 이딸리아각지에서 진행되고있던 력사서술에 큰 영향을 주어 오래동안 력사서술에 남아있던 중세의 신학적영향에서 벗어나 력사학을 새로운 발전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게 하였다.

그후 이딸리아에서 발생한 인문주의력사학은 서유럽에서 인문주의사상의 전파와 함께 잇달아 진행된 문예부흥운동속에서 유럽각지에로 퍼지여 새로운 부르죠아력사학을 낳게 하였다.

서유럽사학사에서 대표적인 인문주의력사가는 이딸리아의 레오나르드 부르니 아레티노(1369－1444)와 그위챠르디니(1483－1540), 마키아벨리(1469－1527), 도이췰란드의 플라씨우스(1520－1575) 등이였다.

레오나르드 부르니 아레티노는 12권으로 된 《피렌쩨국민사》,《이딸리아사》, 단떼와 뻬뜨라르까의 전기들을 저술하여 인문주의력사학의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그위챠르디니는 1494년부터 1534년까지의 이딸리아력사를 담고있는《이딸리아사》를 썼는데 이 책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인기있는 력사저서로써 유럽의 여러 나라말로 번역되였다. 마키아벨리는《군주론》,《로마사론》,《전술론》,《피렌쩨사》 등 여러 책들도 집필하였다. 이러한 책들중에서 그의 력사적견해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책은《피렌쩨사》이다.《피렌쩨사》 제1책에서 마키아벨리는 게르만인들의 이딸리아정복으로부터 1434년까지의 이딸리아력사를 개괄하였다.

도이췰란드의 대표적인 인문주의력사가였던 플라씨우스(1520－1575)는 1559～1574년에 13권으로 된《마그데부르그교회사》에서 카톨릭교회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인문주의력사학은 종교적금욕주의와 봉건적신분제도를 반대하고《인간의 해방》과 개성의《자유》와《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신학의 부속물로 되여 교회와 봉건제도를 합리화던 력사학을 중세기의 몽매와 그리스도교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2.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

2. 2. 1. 신학적 및 봉건적성격 극복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은 중세기의 신학적이며 봉건적인 력사서술을 타파하고 인간과 그의 리해관계를 기본으로 력사연구와 서술을 진행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인간을 무시하며 짓누르는 봉건적신분제도와 그리스도교리를 반대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성을 내세우는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카톨릭교적이며 봉건적인 력사학을 반대하였다.

문예부흥기에 들어와서 유럽력사학은 인문주의사상의 영향밑에 중세기의 그리스도교리의 설명과 교회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신학적사관을 타파하고 인간과 현실중심의 사관으로 발전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우선 중세시기에 지배적이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적인 신학적사관을 반대하였다.

서유럽에서 교부학의 최대의 대표자였던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인류력사발전은 신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의 계책과 섭리에 따라《지상국》으로부터《신의 나라》로 발전한다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신학적사관인《신의설》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력사는 하느님의 간섭을 통해 이루어지고있으며 이미 정해진 하나의 종점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점에 이르러서는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여 지상에서 신의 력사는 끝나고《영원한 제국》인《신의 나라》가 시작된다는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설에 기초하여 인류력사발전을《영아기》,《유년기》,《소년기》,《청년기》,《성년기》,《로년기》의 6개 시기로 나누고 력사발전에 관한 신학적인 견해를 구체화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6번째 시기에 해당되는《로년기》가 개별적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박두한 시기인것과 같이 인류력사에 있어서도 종말기라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기는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하여 구원된다는것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인류는 그리스도교에 의하여 구원되여 다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인류최후의 력사발전단계에 살게 된다는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에 따라서 사는 충직한 신앙자만이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충실한자들은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놓은 신학적력사관은 중세기에 지배적인 사관으로 되여 중세유럽력사학에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력사발전에 관한 이러한 신학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견해의 궁극적목적은 봉건적착취제도를 불변한것, 신성불가침한것으로 정당화하는데 있다.

인문주의사상이 봉건제도와 그리스도교리를 반대하는데서 출발한것처럼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한 인문주의력사학도 역시 자기의 투쟁방향을 신학적사관을 반대하는데로 돌렸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반동적인 카톨릭교리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현상들을 신의 의사에 의한것으로 설명하는것을 반대하고 력사를 신흥부르죠아지의 립장에서 서술하였다.

이딸리아의 초기인문주의력사가의 한사람이였던 레오나르드 부르니 아레티노는《피렌쩨국민사》서술에서 중세시기의 카톨릭교적인 신학적인 력사서술을 비판하고 사회력사적현상들을 종전의《신의설》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과 심리에 관한 예리한 분석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법왕들의 행위와 종교적싸움도 오직 정치적인 리해타산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력사적사건과 사실들을 계급이나 당파의 립장과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분석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교회사위주의 신학적력사서술을 반대하고 력사연구와 저술에서 도시의 력사, 전쟁사, 외교사를 기본주제로 삼았다.

실례로 인문주의력사가들인 레오나르드 브루니 아레티노와 마키아벨리, 그위챠르디니는 교회사나 단순한 교회와 수도원의 년보가 아니라 도시의 력사를 서술하면서 도시에서 벌어진 당파들간의 투쟁을 서술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력사서술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료들은 중세기의 년대기나 년보들에 의거하였지만 사료들을 대담하게 취사선택하여 자기 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서술하였다.

이딸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였던 그위챠르디니는《초자연적인것들 혹은 인간이 볼수 없는것들》을 서술했던 사람들에 관하여 연구하는것은《미친짓》이라고 카톨릭교적인 신학적력사서술을 비판하였다. 그는《이딸리아사》에서 독자들에게《선량한 사람은 신이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이 벌한다.》고 하는따위의 설교는 황당한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충고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9세기까지만 하여도 사가들이나 년대기기록가들의 중심사관으로 되고있던 아우구스티누스의《신의설》은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저술들에서는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또한 력사서술을 통하여 봉건제도를 사상적으로 뒤받침하고있던 로마법왕과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진행하였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쩨사》에서 이딸리아가 당하고있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정치적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첫째가는 원인은 로마법왕의 분렬주의정책에 있다고 로마법왕의 배족정책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도이칠란드의 인문주의력사가였던 플라씨우스는《마그데부르그교회사》에서 로마법왕 그리고리우스 7세와 도이칠란드황제 하인리히 4세사이에 벌어진 서임권을 둘러싼 싸움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법왕을 패덕자, 배신자로 묘사하였다.

《마그데부르그교회사》의 서술로 카톨릭교회와 로마법왕의 《권위》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자 카톨릭교회의 지배층들은 이에 대응한 력사서술을 진행하기까지 하였다. 로마법왕과 카톨릭교회는 바띠깐문서고의 관장이였던 추기경 바로니우스에게 위임하여《마그데부르그교회사》의 반카톨릭교적인 서술을 론박하기 위하여 《교회사》를 쓰도록 하였다. 바로니우스는 교회사가들에게 바띠깐의 문서들을 통채로 개방하고 전 12권으로 된 방대한 량의《교회사》를 저술하도록 하였다.(《근대사학사》상 일문 길천홍문관 1962년 42페지)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또한 전설이나 우화 그리고 경신적견해에 기초한 교회사가들의 결론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중세초기나 중기까지에 《년대기》나 력사서술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던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설교하는《기적》과 성자들에 관한 서술이였다.

그러나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저술들에서는 그러한《기적》에 대한 서술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그대신 신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인간의 사회경제생활이 기본으로 되였다.

만약 인문주의력사가들이《기적》에 대하여 쓰는 경우에는 주로 카톨릭교적인 봉건력사학을 비웃는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리용하였다.

실례로 이딸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인 레오나르드 부르니 아레티노는《피렌쩨국민사》에서 신의《기적》을 조소하고 혹은 그것을 인간의 역할로 설명하는데 리용하였다.

이렇게 봉건적력사학에 대한 인문주의력사가들의 비판적립장은 12～14세기에 일부 봉건사가들이 선행시기나 당대의 사관과 사료에 가한 비판적립장에 비해 볼 때에 현저한 전진이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또한 현실생활에 관심을 돌리면서 현실생활을 서술하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중세기의 종교적환상의 외피속에 가리워졌던 현실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였으며 중세의 그리스도교사가들과는 달리 래세가 아니라 지상의 현실생활에 관심을 돌렸다.

반동적인 그리스도교리를 내용으로 하고있는 중세의 력사학은 세계와 인간의 기원을 성서에 준하여 해석하면서 인간의《원죄설》을 떠들어댔으며 금욕주의와 무저항주의를 통하여서만 그것이 구원될수 있다는 반동적인 리론을 설교하였다.

그러나 문예부흥기에 이르러 력사학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신중심이 아니라 현실중심의 시대에로 이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중세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현상들을 사실주의적으로 서술하는데로 지향하였다. 그들은 현실생활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식에 대한 갈망과 생활에 대한 락천적태도를 적

극 표현하였다.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력사학에서는 력사서술이 세속화되였으며 정치적경향이 강화되였다.

중세시기 력사가들의 거의 대다수는 승려들이였으며 따라서 중세기의 력사서술은 철저히 그리스도교적인 교리설명에 복종하였다. 그리고 중세기의 력사서술에서는 그 서술형식에서 볼 때 수도원의 년보와 왕의 업적을 기록한 년대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년보는 매년, 매월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력사기록을 맡아보았던 사람들이 간단히 기록하여 만든것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년보는 고대시기부터 작성되였다. 년보는 대체로 당대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였는데 한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년보를 작성하는 사업이 세월의 흐름속에서 대를 이어 진행됨에 따라 여러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년보에는 년보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으며 제목도 서문도 없다.

유럽에서 년보적기록방법이 력사서술의 한 형식으로서 출현하게 된것은 중세초기였다. 처음에 중세유럽에서 년보는 해마다 날자가 바뀌는 부활절날자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일람표를 작성할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중세에 서유럽에서 기록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확한 천문학지식이 없었던 그리스도교성직자들이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회는 부활절날자가 성직자들이나 수도승에 의하여 잘못 계산되는 일이 일어날것을 우려하여 앞으로 몇년동안 부활절이 되는 날자들을 알려주는 일람표들을 작성하게 되였다. 이렇게 종교적인 목적에서 부활절일람표가 작성되였다. 그런데 이 일람표에는 점차 일련의 종교적명절들과 수도원장, 주교, 군주, 법왕들이 바뀐 사실들,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사건들이나 전쟁들이 기입되였다.

이처럼 년보속에 기록되는 사건들은 하나의 련관성속에 정리되지 못하고 다만 일어난 날자순서에 따라서 짧게 언급되였을뿐이였다. 그러다가 이러한 기록방법이 점차로 부활절일람표의 형식을 벗어나서 일종의 력사서술의 형식으로 확대되였다. 이러한 기록방법은 영국의 노쌈부리아지방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였다가 점차 유럽대륙에도 전파되였다. 특히 칼대제(742－814)는 프랑크제국내의 모든 수도원들이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년보를 작성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중세의 모든 수도원들과 큰 성당들은 자체의 년보를 작성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년보는 세속적인 군주들의 위탁에 의하여 왕이나 왕조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년보들은 카롤링왕조(751－987)의 초기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3세기에 이르러 이딸리아의 도시국가들이 각각 자체의 년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문예부흥기에 들어와서 승려들이 력사서술을 독점하던 현상은 거의나 없어졌으며 인문주의력사서술에서는 수도원이나 왕의 업적을 기록한 년보와 년대기가 더는 쓰이지 않았다. 년보와 년대기를 쓰는 경우에도 년보와 년대기적력사서술형식과 체계를 따랐을뿐 그 내용은 반봉건적이며 반그리스도교적이였다.

이렇게 인문주의력사학은 중세기의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적사관에서 많이 벗어났으며 력사서술에서는 중세기에 지배적이였던 교회, 봉건주의적요소들이 많이 없어졌다.

2．2．2. 근대적인 연구 및 서술방법의 기초 마련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은 근대적인 력사연구와 서술방법의 기초를 마련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우선 사료연구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사료에 대한 비판과 연구를 통하여 력사를 서술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력사를 구체적인 사료를 가지고 서술하려고 시도하면서 사료의 가치 특히 신빙성정도에 많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전설적사료보다 문헌사료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였고 고고학적자료와 기타 물질사료의 가치도 인정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사료수집과 그 정리 및 고증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문예부흥기에 많은 사료들이 정리되고 출판되였다. 사료에 대한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이러한 새로운 태도는 나아가서 력사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낳게 하였다.

문예부흥기에 유럽에서는 력사문헌학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시기의 책들에 대한 문헌학적인 연구가 심화되였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의 예술작품들과 저작들을 고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인문주의사상을 구체화하였다.

문예부흥기에 유럽에서 인쇄술의 발명으로 출판업이 성행하면서 많은 그리스－로마의 고전들과 책들이 출판되여 력사연구의 문헌적기초가 마련되였다.

고대시기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손으로 씌여지여 수사본의 형태로 전해오던 그리스－로마의 많은 고전들이 학자들에 의하여 출판되였다.

실례로 1345년에 이딸리아인문주의의 선구자였던 뻬뜨라르까는 고대로마의 웅변가였던 키케로(B.C. 106－B.C. 43)의 저작물들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고대로마의 력사가였던 타키투스(55경－120경)의 《게르마니아》도 발굴되여 출판되였다. 1480년에 고대그리스의 이름난 전기작가였던 플루타르코스(46경－127경)의 《그리스－로마비교영웅전》이 피렌쩨에서 라틴어로 번역출판되였으며 1575년에는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출판되였다.(《플루타크영웅전》 1 일문개조사 1935년 7페지)

전유럽적으로 1460년부터 1700년사이에 적어도 17명의 고대사가들의 책의 복사본이 250만(2 500 000)부나 출판되였다고 한다.(《브리타니카백과사전》 영문 20권 1996년 569페지)

이것은 문예부흥기에 유럽에서 력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력사연구가 그 이전시기보다 더 심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볼수 있다.

사료연구방법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딸리아인문주의사가인 콤포니 레트(1428－1458)는 비문과 옛날 화페들을 물질사료들로 리용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사료를 매우 심중히 대하였을뿐아니라 그 연구와 고증에서 매우 세밀하였다. 이것은 사료학연구분야에서 인문주의력사학이 이룩한 새로운 큰 전진이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문헌사료에 대한 비판적연구방법을 력사연구에 도입하였다.

문예부흥기 유럽에서는 문헌연구에 충실하면서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사료들을 언어학적으로 비판하여 사료에 담겨져있는 내용과 전승되고있는 사실들이 서로 부합되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려는 력사가들이 나왔다.

이러한 학술적경향을 가진 력사연구자들을 서유럽력사학에서는 력사문헌학파라고 한다.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력사가들중에서 대표적인 력사문헌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로렌쪼 발라(1405－1457), 플라비오 비온도(1388－1463) 등이였다.

력사문헌학파에 속한 사가들은 오랜 연구를 진행하여 문헌의 원본을 복원 및 출판하였으며 문헌들의 순수성과 가치를 분석하고 점차적으로 증거들을 검증하면서 학문적인 력사저술들을 진행하였다.

발라는 사료의 진가를 언어학적분석을 통해 밝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내놓았다.

발라는 당시 로마법왕과 대립되여 싸우고있던 자기의 후원자인 나뽈리왕의 요구에 따라 1440년에 법왕이 세속적권력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는 리론적, 법률적근거로 되고있던 《콘스탄티누스황제의 교회기증장》의 허위성을 까밝히는 《콘스탄티누스황제의 가짜선물에 관하여》라는 론문을 썼다. 여기에서 그는 로마법왕이 콘스탄티누스황제로부터 받았다는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로마법왕자신에 의하여 날조된 허위라는것을 폭로하였다. 콘스탄티누스황제가 로마법왕에게 선물을 준 명세표를 일명 《콘스탄티누스황제의 교회기증장》이라고 하는데 이 기증장의 내용은 콘스탄티누스황제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때에 로마법왕 실웨스트르 1세(314－335)에게 감사의 표시로 로마, 이딸리아 및 서유럽의 여러 지역에 대한 종교상지배권뿐아니라 세속적통치권도 준것처럼 되여있다. 이러한 위조문서의 내용을 중세사람들은 그대로 믿어왔다.

그는 언어학적분석방법을 리용하여 기증장에 기록된 라틴어가 콘스탄티누스황제의 시대인 4세기의 언어가 아니라 8세기의 언어라는것을 판명함으로써 문서가 그리스도교회가 후세에 꾸며낸 허위라는것을 증명했다.

발라는 1444년에 출판한 책 《라틴어의 우아성》에서 정확한 라틴어사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단어의 의미는 자연적인것이 아니라 인습적이며 력사적인것이기때문에 변화되는 관습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되는 력사적발전의 관점에서 옛 문헌에 실려있는 문장의 원래 뜻을 찾아내고 정정하며 해설하는데 사가들이 중요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사료에 대한 언어학적비판을 처음으로 진행하였던 연구자였다.

발라의 영향밑에 비온도는 중세의 력사기록에 대한 비판적연구를 진행하였다.

비온도는 중세 영국의 년대기학자인 제흐리가 진행한 신화적인 력사서술을 비판하는 개요를 썼는데 이 원고에 《나는 결코 거짓말과 경신성으로 간주되는 그 어떤것도 하지 않을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비온도는 고문서연구가로서 사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전승되고있는 사실들의 진실과 거짓을 판명하는 연구방법을 처음으로 내놓았으며 비온도학파에 속하는 다른 연구자들은 증명서, 비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력사서술에 응용하는 방법을 내놓았다.

플라비오 비온도는 유럽사학에서 처음으로 중세사의 시기구분을 진행하였다.

그는 서고트족의 왕이였던 알라리크(370?－410)가 이딸리아에 침입하여 로마를 점령하였던 410년부터 1410년까지의 력사를 서술한 《로마제국의 쇠퇴이후 력사》에서 선행한 봉건교회사가들이 내놓은 《로마영원설》을 반대하면서 로마제국과 고대사회, 고대문화는 A.D. 5세기경에 멸망하고 이때로부터 인류력사는 새로운 단계 즉 중세기(*medium aevum media Tempestas*)에 들어섰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책에서 중세유럽의 력사적시기들을 구분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에

비온도는 유럽력사가들중에서 유럽의 력사발전단계를 처음으로 구분한 력사가라고 말할 수 있다.

비온도의 중세사시기구분은 인문주의력사학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연구성과의 하나였다.

비온도는 중세의 력사기록에 대한 비판적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일정한 사건과 사실들을 리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다 수집하여 호상 대비적으로 그의 신빙성을 고증한데 기초하여 력사를 서술하였으며 인용한 사료의 출처를 밝히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해까지 달았다.

15세기 이전의 력사가들은 얼마 안되는 년대기나 기타 사료들을 이러저러한 각도에서 조립편집하거나 서술에 리용한 사료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지만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사료를 광범히 취사리용하는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을 서술할 때에는 의거한 사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주해를 달았다.

비온도의 새로운 력사서술방법은 17세기 서유럽나라들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이 내놓은 연구방법들은 력사학분야에서의 큰 진보로써 근대력사학의 방법론적인 근본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문주의사가들은 또한 력사서술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가져왔다.

마키아벨리는 중세의 수도원의 년보나 년대기와 같은 낡은 서술체계를 버리고 년대순에 따라 각종 사료들을 체계화하여 종합하는 새로운 서술방법을 시도하였으며 프란체스꼬 그위챠르디니는《이딸리아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특히 중세시기에 승려들과 봉건지배계급이 력사서술에서 라틴어를 널리 통용한것과는 달리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력사서술에서 민족어를 사용하였다.

마키아벨리는 력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력사적사건과 현상들간의 깊은 내적련계를 론리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력사적현상을 사람들의 활동의 결과로 보면서 이러한 대표적인 례를 13～14세기 피렌쩨의 사회정치투쟁사에서 찾았다.

이러한 력사서술방법은 종전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없었던것으로써 력사서술방법에서의 커다란 혁신으로 되였다.

15～16세기 인문주의력사가들에 의하여 중세시기에 씌여진《성자전》과 완전히 다른 근대적인 전기서술의 기초가 마련되였다.

《근대적인 의미를 가진 최초의 전기》(《서양사학사상사》 일문 46페지 길천홍문관 1970년)라고 불리운 보까치오의《단떼전》, 죠르지오 바자리(1511－1574)의《이딸리아의 뛰여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렬전》등은 인문주의력사학에서 전기서술의 대표작으로 되였다.

그중에서 이딸리아의 이름난 미술가, 건축가이며 학자인 죠르지오 바자리가 1550년에 쓴《이딸리아의 뛰여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렬전》이 유명하다.

그는 책에서 16세기의 이름난 조형예술가 180여명을 소개한 후 중세의 예술은《암흑세기의 산생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예술의 부흥은 또스까나의 화가였던 쥐오또(Giotto.1266－1337)로부터 시작되여 미켈란젤로시기에 와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로마의 고전미술이 게르만족의 침입 특히 고트족들에 의해 파괴되여 중세시기에는 락후한 고틱식이 류행되였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술은 발생, 성장, 로후, 사멸의 길을 걷다가 현재에 와서 다시 되살아나 그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하면서

사학사상에서 처음으로 문예부흥(르네쌍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러한 전기서술은 내용과 형식이 중세시기에 씌여진 《성자전》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는것으로서 근대적인 전기서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도이췰란드인문주의력사가들에 의하여 많은 사료들이 정리되고 출판되였다.

16세기에 도이췰란드에서는 서고트인들의 법전, 칼대제의 법령,《십자군원정》에 관한 사료 등과 같은 귀중한 원사료들이 수집정리되였으며 중요한 사료학적가치를 가지는 력사서들이 연구집필되였다.

이처럼 인문주의력사학은 중세의 신학적이며 봉건적인 력사서술을 타파하고 력사학을 그리스도교신학의 종속에서 점차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게 크게 기여하였다.

2. 3. 인문주의력사학의 제한성

인문주의력사학은 주로 신흥부르죠아지와 귀족들의 리익을 대변한 력사학으로서 일련의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을 가지였다.

인문주의력사학자체가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된 력사학이므로 인문주의가 가지고있는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을 그대로 띠게 되였다.

인문주의사상가들의 대부분이 부르죠아 및 귀족출신들이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계급적처지와 사회적 및 시대적측면에서 제한성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인문주의력사학의 제한성은 무엇보다도 사회력사적현상을 신흥부르죠아지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는 견해와 관점에서 출발하여 력사발전의 추동력을 신흥부르죠아지와 귀족들로 본것이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우선 자기들의 계급적립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왕이나, 귀족, 법왕과 부유한 도시부르죠아지들의 활동과 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력사를 서술하였다.

대표적으로 이딸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인 그위챠르디니는《통치자》들의 행동이 력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통치자들의 행동의 중요한 계기는 그들에게 있는 야심이나 순간적욕망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론리를 전개함으로써 결국 모든 력사는 우연적현상이나 순간적인 심리적충동에 의하여 추동된다는 관념론적인 결론에 떨어지였다.

15세기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저술에서는 왕이나 봉건귀족, 법왕 등이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력사적활동인물로 등장하였으며 드물게 부유한 부르죠아출신들이 력사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수 있는것으로 되여있었다.

실례로 마키아벨리는 피렌쩨의 약화의 원인을 강력한 군주정권이 세워지지 못한데서 찾으면서 강력한 국왕통치를 제창하였다.

그리고 도이췰란드의 력사가인 플라씨우스는《마그데부르그교회사》에서 중세시기 서임권을 둘러싼 로마법왕과 도이췰란드황제들사이의 지배권쟁탈전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도이췰란드황제를 도이췰란드민족에게 고유한 모든 미덕을 갖춘 왕으로 묘사하였다.

이처럼 력사발전에 대한 인문주의력사가들의 견해는 왕이나 귀족, 도시부르죠아지들이 력사발전을 추동한다는 주관관념론에 기초하여 설명한 반동적인것이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또한 부르죠아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출발하여 인민대중을 력사

발전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보거나 지어는 완전히 무시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력사서술에서 왕이나, 귀족, 법왕과 부유한 도시부르죠아지들을 중심에 내세우고있는 반면에 인민대중의 투쟁을 적대시하여 모독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인 레오나르드 브루니 아레티노는 피렌쩨의 상층계급에 속하고있던 부유한 상인과두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1378년 피렌쩨에서 일어났던 촘피폭동을《우둔한 천치들의 동란》이라고 비난하였다.

그위챠르디니는《이딸리아사》서술에서 피렌쩨의 가장 반동적인 도시귀족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립장에 서서 만약 인민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것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인민들이 통치배들의 양보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항하는 경우에는《반드시 가혹하고 무자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는 1378년에 피렌쩨빈민들의 일으킨 촘피폭동을《무뢰한들의 음모》라고 비난하였다.

이처럼 인문주의력사학은 철두철미 새로 자라나고있던 신흥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한 부르죠아력사학이였다.

인문주의력사학의 제한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중세력사학의 영향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것이였다.

인문주의시기는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이행기였으며 아직 부르죠아지가 형성기에 있었던만큼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취약하였다.

봉건세력에 비하여 미숙하고 취약하였던 부르죠아지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나온것으로 하여 인문주의사상은 봉건과 교회에 대한 비판에서 철저하지 못하였다.

일부 인문주의력사가들의 력사서술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신의설》의 영향이 적지 않게 남아있었다.

최초의 인문주의자였던 뻬뜨라르까는 로마를《신에 의하여 선출된 도시》로, 력사상에서《최후의 국가》로 묘사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봉건귀족적사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력사서술에서도 중세기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봉건적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일부 인문주의력사가들의 력사서술에서는 마키아벨리를 내놓고는 거의 대다수가 년대기적서술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딸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인 레오나르드 부르니 아레티노를 비롯하여 기타 사가들의 저술들이 중세기의 년대기적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인문주의력사학의 제한성은 다음으로 그리스-로마력사학을 우상화하면서 고대의 수사학적서술방법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여 력사서술을 진행한것이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고대를 당대현실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리용하였다. 그들은 고대를 인간과 사회의 완성으로, 당시로서는 도달할수 없는 본보기로 보았다. 그들은 고대가 낡은 노예제적관계속에 있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고대를 자유인의 자유로운 세계로서 고대의것을 모방, 부활시키는것을 리상으로 내세우고 력사연구와 서술을 진행하였다.

이딸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인 레오나르드 브루니 아레티노와 마키아벨리는 고대그리스나 로마에 있어서와 같이 력사를《생활의 교사》로 간주하고 정치활동가들의 교양에 그

목적을 두고 력사서술에서 형식적인 수사학적기교에 치우치였다.

이처럼 인문주의력사가들은 고대그리스—로마사가들의 형식적인 문장서술과 수사학적기교에 큰 매력을 느끼면서 당대사람들의 감정과 정신에 맞는 문장서술에는 관심을 거의 돌리지 않았다.

문예부흥 그자체가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연구하고 되살리는 형식을 띠고 진행된것만큼 인문주의자들은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발굴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없었던 당시의 인간생활을 리상화하고 그것을 현실생활에 재생시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인문주의력사학도 인문주의문학과 예술 등과 마찬가지로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력사학을 연구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되살리는 형식을 띠고 진행되게 되였다.

물론 인문주의력사가들의 력사서술은 실지에 있어서 단순한 고대그리스—로마사학을 모방, 부활시키는 한계를 넘어섰지만 그들자신은 항상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고전적인 고대사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인문주의력사가들은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력사학을 맹목적으로 우상화하고 그 서술방법과 기교를 그대로 모방하게 되였다.

3. 결 론

인문주의력사학은 중세의 그리스도교적이며 봉건적인 력사서술을 타파하고 근대적인 력사연구와 서술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력사적진보성을 가진다.

중세기적몽매주의와 종교적금욕주의를 반대한 인문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여 전개된 인문주의력사학은 중세 서유럽의 지배적인 사관이였던 신학적사관을 반대하여 력사연구와 서술을 진행함으로써 력사학을 그리스도교리와 중세기적미신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문주의력사학에 의하여 력사문헌학 등 력사연구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였으며 근대적인 력사연구방법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처럼 인문주의력사학은 서유럽사학사에서 볼 때 력사학을 근대적인 학문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신흥부르죠아지들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력사학인것으로 하여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가진다.

실마리어 신의설, 문예부흥, 인문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력사학 제65권 제2호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의 파국적후과와 그 교훈

부교수 정 광 선

1. 서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불신과 알륵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여러 나라에서 전쟁과 분쟁이 그칠 사이없이 일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있다.

아랍세계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하여 《아랍의 봄》으로 불리우는《색갈혁명》이 일어났다.

아랍나라들에서 일어난《색갈혁명》으로 뜌니지와 리비아, 에짚트 등 나라들에서 정부들이 전복되고 수리아와 예멘에서는 폭력적인 반정부운동이 계속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심화되는 사회적불안과 무질서속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피난민사태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그 여파가 아랍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주변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에서 교훈을 찾는것은 피난민위기와 같은 대참사의 확대를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색갈혁명》으로 빚어진 아랍세계의 참사가 남긴 교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론문에서는 아랍나라들에서 벌어진《색갈혁명》의 시작과 과정,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색갈혁명》의 후과와 교훈을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 1. 아랍나라들에서《색갈혁명》의 시작과 과정

아랍세계에서의《색갈혁명》은 2010년말 뜌니지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그 동기로 된것은 이 나라의 어느 한 소도시에서 발생한 한 청년의 분신자살사건이였다.

2010년 12월 17일 수도 뜌니스에서 남쪽으로 약 260㎞ 떨어진 중부뜌니지의 자그마한 도시 시디부지드에서 한 청년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그마한 남새상점

을 경영하던 무함마드라는 29살 난 청년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여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았던것이다. 이 분신자살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이 인터네트에 오르자 수많은 뜌니지청년들이 반정부폭동을 선동하는 기사들을 련이어 인터네트에 실었으며 이에 화답하여 곧 대중적인 반정부폭동이 터졌다.(《에코노미스트》 2016년 1월 9일 38페지)

뜌니지대통령 벤 알리가 군대에 폭동을 진압할것을 명령하였지만 오히려 군대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에게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날것을 《권고》하였다. 내외의 압력으로 2011년 1월 14일 23년간 집권하였던 벤 알리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뜌니지에서의 폭동과 그 결과에 대한 소식은 곧 인터네트를 비롯한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전체 아랍세계에 퍼져나갔으며 이로 인하여 아랍세계는 대동란에 빠져들었다. 뜌니지에서 1월 14일 벤 알리정권이 붕괴된데 이어 1월 22일 예멘에서 살레흐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2월 11일에는 에짚트의 무바라크정권도 무너졌다. 뒤이어 2월 15일 리비아의 제2수도인 비니가지에서 반정부시위가 개시된데 이어 3월 17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무력행사를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3월 19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나토무력이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8월 23일에는 나토무력의 지원밑에 리비아의 반란군이 수도 타라불스를 점령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대통령 가다피가 반란군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한편 예멘에서는 6월 3일 대통령부에 대한 포사격으로 대통령이 부상을 당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결국 예멘대통령 살레흐는 11월 23일 권한이양서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산께이신붕》 2011년 11월 25일)

수리아에서도 2011년 3월 데르아시에서 반정부시위가 일어난데 이어 정부군과 반정부세력사이의 끊임없는 류혈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이밖에도 알제리와 만지역의 순니파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서도 시아파에 의한 반정부시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아랍세계의 《색갈혁명》과정을 나라별로 종합하여보면 아래와 같다.

뜌니지

2010년 12월 모함메드 보우아지지의 주도하에 폭동.

2011년 1월 대통령 벤 알리 망명, 림시정부 수립.

2011년 10월 첫 선거진행, 이슬람교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안나흐다당이 국회선거에서 최대의석을 차지.

에짚트

2011년 1월 까히라에서 무바라크정권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남.

2011년 2월 무바라크대통령 퇴임.

2012년 6월 무슬림형제단계 대통령후보자 모하메드 무르씨가 대통령으로 선거.

리비아

2011년 2월 비니가지시에서 가다피대통령을 반대하는 폭동이 시작.

2011년 3월 나토군이 리비아의 공군무력을 습격, 파괴.

2011년 8월 나토군이 수도 타라불스를 점령.

2011년 10월 대통령 가다피 사살.

2012년 7월 독립파세력이 국회선거에서 최대의석을 차지.

예멘

2011년 1월 대통령 알리 아브둘라흐 살레흐의 재선을 반대하여 반정부시위가 벌어짐.

2011년 3월 아라비아반도에 있는 알 카에다조직이 알무하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

2011년 11월 살레흐 예멘을 떠나면서 자기의 권력을 대리인 아브둘라흐 만쑤르 알 하디에게 넘겨줌.

2012년 2월 대통령선거에서 하디가 대통령으로 당선.

수리아

2011년 3월 데르아시에서 반정부시위가 일어남.

2012년 5월 반란군이 두번째로 큰 도시인 할레브를 공격.

2012년 8월 할레브시 분리, 정부군이 반정부군에 대한 포격을 개시.

(《에코노미스트》 2016년 1월 9일)

이처럼 아랍나라들에서《색갈혁명》으로 짧은 기간에 뜌니지와 에짚트, 리비아와 예멘에서 장기집권하였던 정권들이 무너졌으며 수리아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2．2．아랍나라들에서《색갈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

지금 서방의 신문, 방송들은 아랍세계의 대동란을 초래한 원인을 마치도 뜌니지와 에짚트, 리비아와 수리아 등 이 지역 나라들에 장기집권하였던《비민주주의》적인 정권들의 부정부패에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 지역 나라들의 한심한 경제형편 특히 식량위기와 높은 청년실업률, 전통적인 종교적 및 종족적불화를 그 원인으로 평가하고있다. 이것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아랍나라들에서《색갈혁명》이 일어나게 된것은 결코 이 지역 나라들의 내부문제에만 기인된것이 아니다.

아랍나라들에서《색갈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사전략적요충지이며 전략자원지대인 이 지역을 기어이 타고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간섭과 침략책동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아랍지역을 손에 넣기 위하여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침략수법들을 써왔으며 특히 랭전종식후 그러한 책동은 보다더 강화되였다.

랭전종식후 제국주의자들은 아랍나라들에 서방식민주주의를 이식하기 위하여《바르쎌로나과정》과 같은 침략계획들을 작성하여놓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서방나라들은 이 침략계획에 따라 아랍나라들에《자유민주주의》를 널리 확대할수 있도록 명백한 국내정치개혁을 진행할것을 강요하였으며 그 대가로 더 많은《원조》를 제공할것을 약속하였다. 뿐만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 북을 비롯한 정보기술공간들과 각종 출판선전물들을 통하여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렸으

며 현 정부관리들의 부정부패행위들을 과장하여 선전함으로써 해당 나라 인민들의 반정부감정을 높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은 이미전부터 이 지역 나라들에 존재하여온 민족적, 종교적불화를 조장시키고 더욱 부추겨 복잡한 정세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놓고는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나중에는 《분쟁조정》, 《인권옹호》의 구실로 나토무력을 들이밀어 정권을 전복시키였다.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다음으로 이 지역 나라들이 자체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지 못한데 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후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대부분의 아랍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정치강령을 제시하고 실행해나가지 못하였다. 특히 랭전종식후 변화된 국제정세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지 못하고 서방나라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의 고유한 정치방식을 포기하였다. 결국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종교적, 민족적불화가 더욱 심화되여 나중에는 폭력적인 사태에로까지 이어지게 되였다.

아랍나라들은 또한 국제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는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지 못하였다. 민족적독립을 달성한 후 아랍나라들은 자체의 민족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구호를 내놓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식민지시기의 편파적이며 불균형적인 경제체제를 완전히 마스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이전 종주국들의 경제에 의존하여 목전의 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갔다. 특히 이 지역 나라들에서는 원유산업을 위주로 하는 편파적인 경제구조를 허물지 못하였으며 그나마도 원유가공과 판매는 대부분 서방의 기술과 기업들에 의존하여왔다. 그러다나니 농업은 여전히 부진상태에 있게 되고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목이 매여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략탈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결국 세계적인 경제파동, 특히 식량위기가 초래되자 실업과 빈궁이 만연하게 되고 인민들의 반정부감정이 더욱 높아져 폭력적인 사태에로까지 번져지게 되였던것이다.

아랍나라들은 또한 자위적방위력도 튼튼히 다지지 못하였다.

지정학적위치와 전략자원지대라는 조건으로 하여 아랍나라들은 그 어느 지역나라들보다도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나라들은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데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아랍나라들은 자체의 군수공업을 튼튼히 다질대신 풍부한 원유자원을 리용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다른 나라들의 무장장비들을 구입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군대를 무장시켰다. 결국 반정부세력의 무장공격과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물리치지 못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게 되였다.

2. 3.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의 후과

아랍지역을 휩쓴 《색갈혁명》은 이후 이 지역 나라들에 파국적후과를 가져다주었다.

아랍세계에서 《색갈혁명》은 우선 이 나라들의 정치정세를 완전한 혼란상태에로 몰아갔다.

뛰니지에서 2011년 10월에 진행된 선거를 통하여 이슬람교원리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안나흐다당이 국회선거에서 최대의석을 차지하였지만 야당들과의 정권쟁탈전은 끊임

없이 벌어졌으며 2013년 2월에는 야당지도자였던 쵸크리 벨라이드가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로부터 초래된 정치적위기로 하여 안나흐다당은 국회에서 탈퇴하게 되였다. 2014년 10월에 다시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온건파인 니다 토운스당이 승리하여 이 당의 지도자인 무함마드 알 바쥐 까이드 앗 씹씨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였지만 정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에코노미스트》 2016년 1월 9일)

에짚트에서도 무바라크정권이 무너진 후 선거를 통하여 무슬림형제단산하에 있는 자유공정당 당수 무르씨가 대통령으로 되였지만 2013년 7월 군사정변이 일어나 이 정권은 1년만에 무너지고말았으며 무슬림형제단의 활동도 금지당하였다. 그후 2014년 5월 군부출신의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음해 12월 국회선거에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최대의석을 차지하였지만 여전히 정치정세는 불안정한 상태에 남아있었다.

《색갈혁명》후 가장 큰 정치적동란에 빠져든것은 리비아였다.

리비아에서는 과도정부가 내전의 종식을 선포하고 1년안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 정권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부족, 교파 등 각이한 세력들의 리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나라의 정치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2012년 7월에 선거가 실시되고 국민세력련합이 제1당으로 선출되였지만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에서부터 각이한 세력들사이에 파벌싸움이 일어나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수상이 빈번히 교체되는 등 정치적불안정이 지속되였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 대통령까지 반정부세력에 의하여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들어와서부터 국내각지에서 이슬람교원리주의무장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트리폴리국제비행장과 석유시설들이 이들에게 장악되고 정부는 사실상 붕괴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6월 국회총선거가 진행되여 새로운 국회가 조직되였지만 반대파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4년 8월에는 무력으로 타라불스를 습격하였으며 새로 조직된 국회가 토브루크시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혼란된 정치정세를 리용하여 지하드와 이슬람교국가를 비롯한 이슬람교극단주의세력들이 더나시와 쑤르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저마끔 자기의 통치구역을 설정하고 통치기구들을 설치하였다.(《에코노미스트》 2016년 1월 9일)

예멘에서도 살레흐정권이 무너진 후 2012년 2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디의 정부는 2014년 8월 연료보조금문제로 일어난 반정부시위로 하여 사임하였으며 2014년 9월 반란군이 수도 사나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하디는 남부도시 아덴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에코노미스트》 2016년 1월 9일)

순니파인 하마드국왕이 정권을 잡고있는 바레인에서도 주민의 70%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정치적권리의 확대를 요구하여 2011년 2월 14일 시위를 벌렸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희생자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시위가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해 바레인정부는 이미 감금하였던 시아파정치인 23명을 석방하고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소득이 없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바레인국왕은 2월 26일 2명의 왕족출신의 각료들을 포함하여 4명의 각료를 교체하는 등 완화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시위는 계속되였다.(《해외사정》 2011년 3월 1일)

쿠웨이트에서도 3월 8일 수상의 사임과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시위를 법적으로 전면금지하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3월 10일부터 전국도처에서 시위가 빈번히 일어났다.(《에코노미스트》 2011년 3월 29일)

이러한 반정부시위들은 모두 류혈을 동반한것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색갈혁명》이 일어난 초시기에만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에짚트정부는 자기 나라에서 2011년초 3주일간 지속된 시위과정에 적어도 846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리비아정부도 국내전쟁과정에 량측의 사망자수가 도합 3만명이상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예멘정부도 살레흐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과정에 2 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하였다. 내전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수리아에서도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 3월말부터 6월사이에 약 9 000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이처럼 아랍세계에서의 《색갈혁명》은 이 지역 나라들의 정치정세를 파국적처지에 빠뜨렸다.

아랍세계에서 《색갈혁명》은 또한 이 나라들의 경제에도 파국적후과를 미쳤다.

아랍나라들가운데서 《색갈혁명》이 제일먼저 시작된 뜌니지에서는 국가수입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관광수입이 2012년에 그 전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에코노미스트》 2012년 3월 6일)

에짚트에서도 2010년에는 국내총생산액이 5.1% 장성하였지만 2011년에는 장성폭이 1.2%도 되나마나했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특히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전해에 비해 약 30% 줄어들었다. 한편 실업률도 2011년 11월까지 11.9%로서 지난 10년사이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다.(《에코노미스트》 2012년 3월 6일) 2012년에 에짚트의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량)의 전량에 해당하는 2 700억US$로 늘어난데 비해 외화보유량은 150억US$로 줄어들었다. 2013년 10월에는 이미 서방자본이 에짚트에서 빠져나갔고 유럽과 미국은 원조를 중단했다. 59개의 최고급호텔들이 문을 닫았고 기자시의 피라미드에는 관광객을 거의 찾아볼수 없게 되였으며 룩쏘르시의 관광은 80%나 떨어졌다.(《현대국제관계》 2014년 1월 1일 23페지)

리비아에서는 2011년에 원유수출가치가 40% 떨어진것으로 하여 국내총생산액에서 60%이상의 손실을 입었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그후 이 나라에서 수출로 얻어지는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석유생산이 다시 시작되였지만 생산량은 《색갈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에코노미스트》 2012년 3월 6일)

예멘도 커다란 경제적타격을 받았다. 《색갈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유엔은 2011년 예멘의 경제가 3.4% 장성할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였다.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의하면 2012년에 예멘의 국내총생산액은 0.5% 감소되였다. 또한 《색갈혁명》의 초시기에만도 50만명이상의 예멘인들이 집을 잃었고 약 100만명에 달하는 5살이하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었으며 25만명이 굶어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그리고 주민의 55%가 빈궁선이하에서 생활하고 1 000만명이 식량난에 허덕이였다.(그중 500만명은 식량부족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뿐만아니라 청년들의 50%이상이 직업을 가지고있지 못한 처지에 빠졌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수리아도 2011년 10월까지 국내총생산액에서 60억US$의 손실을 입었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게다가 유럽과 미국, 뛰르끼예로부터 경제제재가 가해져 수도 디마스끄에서도 전기와 연료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에코노미스트》 2012년 3월 6일)

2013년 상반년도까지 북아프리카 및 중근동나라들이 《색갈혁명》으로 인하여 입은 경

제적손실액은 550억US$에 달하였으며 2013년 아랍나라들의 직접투자는 17%로 떨어졌다.(《쁘라우다 워스또까》 2013년 6월 9일)

아랍세계에서 《색갈혁명》은 또한 대인권참사인 피난민위기를 발생시켰다.

2017년 6월현재 세계적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자기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넘어간 피난민의 수는 2 170만명, 고향에서 쫓겨나 살길을 찾아 국내의 여기저기로 방황하는 류랑민수는 4 500만명에 달하였다.(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보고 2017년 6월 20일) 그가운데서 최근년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나라들에서 발생한 피난민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있어본적이 없는 최고수자를 기록하였다. 유럽동맹국경선조절통제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2월 13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5 526명에 달하는 뜌니지이주민들이 이딸리아의 암뻬도우싸섬에 이주해 왔다. 3월말에 이르러 원주민이 4 500명밖에 안되는 이 섬에 이주해온 뜌니지사람들은 1만 8 500명계선을 넘어섰다.(《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유럽동맹정책의 발전추세》 현대국제관계 2011년 4월 1일) 그후에도 뜌니지의 피난민수는 계속 늘어났다.

리비아에서도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여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국제피난민구제조직은 70만명의 리비아주민들이 국내전쟁기간에 주변나라들로 피난하였다고 발표하였다.(《포린 폴리씨》 2012년 6월 30일)

가장 혹심한 피난민위기를 산생시킨 나라는 수리아이다. 2012년 5월 유엔은 분쟁기간 약 50만명의 수리아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버리고 떠나갔으며 15만명이상이 요르단과 레바논, 뛰르끼예 등 주변나라들로 피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리아의 피난민수는 더욱 늘어났다. 2016년 6월 20일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는 2015년말 현재 피난민이 제일 많은 나라 10개를 지적하였는데 그가운데서 수리아의 피난민수는 490만명으로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후에도 수리아의 피난민수는 계속 늘어나 2017년 6월에는 전란을 피해 다른 나라들에 피난간 이 나라 사람들의 수가 500만명에 이르렀다. 이밖에 미처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떠돌아다니는 류랑민의 수는 무려 630만명에 달하였다.(《2016년 강제이주에 관한 세계적경향》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보고 2017년 6월 20일) 이것은 인구가 2 369만 5 000명(2010년현재)인 이 나라에서 주민의 거의 절반이 피난민이거나 류랑민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아랍세계에서 《색갈혁명》이 초래한 파국적후과는 비단 이 지역 나라들에만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였다.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에서 발생한 피난민은 주변나라들인 뛰르끼예, 레바논, 요르단으로 밀려들었으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퍼져갔다.

어느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만도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온 피난민수는 100만 4 300여명으로서 그 전해의 4배나 된다고 한다.(《로동신문》 주체105(2016)년 2월 29일)

2015년과 2016년이후에도 유럽으로 향한 피난민들의 행렬은 끊기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낡은 배를 타고가다가 바다에 빠져죽는 비극적인 참사를 당하면서도 피난민들은 계속 유럽으로 밀려들어갔다. 2015년 유럽으로 가던 도중 3 675명의 피난민들이 지중해에 빠져죽었으며 2016년에는 그 수가 7 448명으로 늘어났다.(《통계를 통해 본 세계피난민위기》 유럽안정제안 영문 2017년 1월 30일 15페지)

밀려드는 피난민들은 유럽나라들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유럽나라들은 피난민들에게 어떻게 식량과 주택, 의료, 교육, 취업상방조를 제공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이로 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실례로 2015년에 도이췰란드의 바이에른주정부는 메르켈수상에게 만일 련방정부가 피난민들이 도이췰란드로 대량적으로 밀려드는것을 계속 허용한다면 《재판소에서 만나게 될것》이라는 내용의 《최후통첩》까지 보냈다. 도이췰란드의 정보기관은 도이췰란드경내에 종교극단분자들이 급속히 증가되였는데 이슬람교국가를 비롯한 극단조직들이 피난민들속에서 무장인원들을 모집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신화》 2015년 10월 21일)

이밖에도 뽈스까와 마쟈르를 비롯한 많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동맹의 피난민강제할당정책에 반대의견을 표명한것을 비롯하여 피난민문제는 유럽동맹의 정상적인 운영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심지어 피난민위기는 유럽동맹의 존재자체를 위협하였다. 피난민위기대응과 관련한 의견상이로 2016년에 영국이 동맹에서 탈퇴성명을 발표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2. 4. 《색갈혁명》이 남긴 교훈

《색갈혁명》으로 하여 파국적위기에 처한 아랍나라들의 현실은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교훈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면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사소한 환상과 기대도 가져서는 안되며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아랍나라들의 유일집권당체제에서는 마치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듯이 떠들어대면서 서방식정치방식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였으며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원조》를 미끼로 이 나라들을 회유하였다. 이러한 책동은 특히 랭전종식을 전후한 시기에 더욱 집요하고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결국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여가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국제정세속에 친서방적인 나라들뿐아니라 알제리, 리비아와 같은 반서방감정이 비교적 강하다고 하던 아랍나라들도 서방식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은근한 환상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가지고 다당제를 받아들이였다.

다당제는 정부조직에 참가할수 있을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진 정당들이 여러개 존재하는 상태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부르죠아정당제도의 하나이다. 다당제는 보통 어느 한 정당이 정권을 독차지하는것이 아니라 몇몇 정당들이 참가하는 련립정권을 형성한다. 따라서 다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는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 있을수 없다.

1981년에 집권한 무바라크가 다당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에짚트가 아랍나라들에서 제일먼저 다당제를 받아들였으며 그에 이어 뜌니지에서는 1988년에, 알제리에서는 1989년에 다당제를 도입하였다. 이밖에 마로끄와 수단, 모리따니를 비롯한 이 지역의 기타 나라들에서도 다당제를 받아들였다.

다당제가 도입됨으로 하여 에짚트와 마로끄, 알제리, 뜌니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벌써 랭전종식직후 야당세력들이 이슬람교운동세력과 야합하여 집권여당들에 대립하여나섬으로써 정치적불안이 계속되였으며 알제리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폭력적인

반정부시위가 벌어져 국회들이 해산되고 군부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사태들이 벌어졌다. 결국 다당제도입으로 인한 사회정치적불안정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였으며 이 지역 나라들에 파국적후과를 가져다준《색갈혁명》을 초래하게 되였던것이다.

교훈은 다음으로 사상과 리념,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와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아랍나라들은 오래동안 지속된 시아파와 순니파사이의 대립과 모순, 아랍세속민족주의와 이슬람원리주의사이의 대립과 모순이라는 첨예한 문제들을 안고있다.

시아파와 순니파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1 000년이 훨씬 넘는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아랍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차별대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바레인에서는 정권을 쥐지 못한 주민의 70%에 달하는 시아파주민들이 순니파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우대에 대하여 커다란 불만을 표시하고있으며 순니파가 74%로서 다수이지만 인구의 10～15%밖에 안되는 시아파계의 알라위파가 정권을 잡고있는 수리아에서는 순니파주민들이 반정부활동의 주력을 이루고있다.(《내슈널 인터레스트》 2012년 5월 1일)

정권을 장악한 교파는 자파세력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파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 그들의 진출을 폭력으로 진압하고있다. 2012년 3월 14일 바레인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만협조리사회가맹국의 합동군인《반도의 방패》군을 끌어들여 시아파교도들의 시위를 진압한것은 그 단편적인 실례이다.

세속민족주의세력과 이슬람원리주의세력사이의 대립과 모순도 아랍세계를 분렬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랍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세속민족주의세력은 원리주의세력의 진출을 각방으로 억제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이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수리아와 예멘에서의 국내전쟁을 들수 있다.

이처럼 뿌리깊은 종교적 및 민족적불화와 사상과 리념의 차이로 인한 반목과 질시는 아랍사회를 분렬시키고 이 나라들에서 반정부세력을 사촉하여 보다 친서방적인 정권을 세우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되여 나중에는《색갈혁명》이라는 파국적후과를 초래하게 되였던것이다.

교훈은 다음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청년들속에서 제국주의사상문화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이나 동경도 자라나지 않도록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오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서 주역을 놀고있다.

아랍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도 랭전종식후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자유아랍방송》을 비롯한 방송선전수단과 출판선전물들 특히 트위터, 페이스 북을 비롯한 정보기술공간을 통하여 아랍나라들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류포시키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러나 아랍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으며 청년들을 건전한 사상과 정신으로 교양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아랍인민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겪어보지 못한 아랍의 청년들속에서 서방세계에 대한 환상이 널리 조장, 류포되게 되였고 점차 전통적인 아랍식생활방식을 싫어하고 서방식생활양식에 대한 동경에 사로잡히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대중적인 반정부시위에 앞장서게 되였던것이다.

3. 결 론

이처럼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은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나라와 민족의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에 언제나 높은 각성을 가지고 대처해나가지 못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있다.

우리는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이 남긴 교훈을 통하여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실마리어 《아랍의 봄》, 《색갈혁명》, 피난민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제65권 제2호
력사학 (루계 제549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인쇄소 **김일성**종합대학인쇄공장
인쇄 주체108(2019)년 10월 20일 발행 주체108(2019)년 10월 30일

ㄱ－195231 값 200원

DPR Korea
Address: Ryongnam-dong, Ryomyong Street,
Taesong District, Pyongyang
E-mail: ryongnamsan@star-co.net.kp
Fax: 0085-02-381-4410, 0085-02-381-4427

정기간행물번호
제19923호